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경관 자료조사

2023



**unesco**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World Heritage since 2019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경관 자료조사

2023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 제 출 문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귀하

본 보고서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경관 자료조사 연구」의 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관 계 자
 

이배용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장
박성진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장
박진재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실장
신종일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PM
박새은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PM
  
- 자 문 위 원
 

김덕현	국립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경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좌교수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연 구 진
 

책임연구원	성종상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원	정해준	계명대학교 교수
	김서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이제이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김보람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보 조 원	여해린	서울대학교 석사
	박준용	계명대학교 석사과정
외부연구원	장 림	북경건축대학교 연구교수

# □ 목 차

I. 개요 .....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3
2. 연구 목적 .....	15
3. 연구 방법 및 내용 .....	16
II.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개념 및 경향 연구 .....	9... 1
1. 세계유산 문화경관 .....	21
2.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32
3.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산 사례 조사 .....	35
III. 기초 자료 조사 분석 .....	7 5
1.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서원의 경관 가치 개관 .....	59
2. 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기준과 지침 분석 .....	62
3. 선행연구 조사 분석 .....	68
IV. 문화경관 조사 분석 .....	97
1. 조사 분석의 방법과 틀 .....	81
2. 서원별 문화경관 요소 .....	86
3. 한국의 서원 문화경관 고찰 .....	164

V. 문화경관으로서 서원의 가치 분석 .....	961
1. 개관 .....	171
2. 성리학적 관점에서 서원의 가치 .....	173
3. 세계유산 문화경관 관점에서 서원의 가치 .....	176
VI. 결론 및 제언 .....	19
1. 한국의 서원 경관의 보전 및 관리 .....	181
2. 한국의 서원 경관의 활용방안 .....	183
3. 한국의 서원 경관 관련 제언 .....	186
부록 .....	189
1.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고 .....	191
2. 국내 및 국외 답사 .....	194
3. 참고문헌 .....	200



# I. 개요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내용





# I. 개요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 배경

####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곳은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 기준 (iii)을 인정받음.
- 그 이후 한국의 9개 서원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 및 통합해설 마련이 권고됨에 따라, 2015년에 발족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2022년에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로 개소하게 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과 관련한 여러 연구(방문객 관리연구, 주요 건축물 이력, 건축물 및 수목 현황조사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완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경관

- 유네스코가 1992년에 문화경관 개념을 도입한 이후 65개 국가의 121개 유산이 문화경관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문화경관의 개념을 통해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가진 중요 가치 중 하나는 입지와 지형을 중요시하며, 주변 마을 및 자연경관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문화경관적 관점에서의 가치임.
- 따라서 한국의 서원이 가진 속성과 가치를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 활동으로 세계유산 목록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2) 연구 필요성

#### (1) 세계유산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심화

- 세계유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호 및 전승할 가치가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유산이므로 OUV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 한국의 서원에서 경관은 서원의 입지와 배치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임.
- 따라서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26항(전략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계유산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을 강화하는 것은 서원의 OUV를 심화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완하는 방법임.
- 한국의 서원 경관과 입지에 관련된 역사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그 결과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서원의 향후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심화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로서 의의를 지님.

## (2) 세계유산 서원의 문화경관 연구 필요

-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서 세계유산의 한 유형으로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을 “대대로 이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힘과 자연환경의 영향 아래서 인간 사회와 정주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되어 온 바를 뚜렷이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원을 문화경관으로 보자면 “명료하게 규정된 경관(Clearly Defined Landscape)”과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이라는 두 가지 세부 유형에 부합할 여지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원 건축 당시의 건물이나 전체 배치 등은 “인간의 의도에 의해 디자인된”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후 현재에까지 이르는 동안 변화되고 생성 소멸해 온 과정은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에 속함.
- 따라서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의 보전 관리에는 문화경관으로서의 속성과 가치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OUV, 진정성, 완전성을 심화할 수 있음.
- 이는 유산구역만 아니라 주변의 개발로 인한 영향 지역(Area of influence of action)까지 감안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경관 보전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서원의 문화경관 연구는 문화적, 시각적 관련성을 고려한 주변 지역의 경관 요소를 적극 발굴, 확인함으로써 세계유산 관점에서의 한국 서원의 가치를 심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유산관광 등 현대적 활용에 적극 기여할 수가 있을 것임. 이점은 특별히 주위 산수자연과의 관계를 중시해 온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연구 목적

### 1) 세계유산 서원 자료집 발간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본 과업의 목적은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 자료집 발간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에 있음.
- 한국의 서원 9개소의 문화경관에 대한 역사 및 현황을 조사 및 기록화하여 서원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단, 본 보고서는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경관으로 재등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초 자료 수집을 통한 향후 관리 및 보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2) 서원의 경관 가치 발굴을 통한 가치의 다양성 향상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현재 보편타당한 가치(OUV)를 인정받았으나, 서원의 입지, 인물과의 관계, 주변 마을과의 관계, 풍수, 공간의 배치, 주변 지형과 배경 수립은 서원의 구역(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세계유산의 Buffer Zone)에서 중요한 요소로 경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서원의 경관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서원을 건축물군 위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주변 공간과의 조화와 경관자원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가치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

### 3)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연구를 통한 신뢰성 강화

- 서원의 문화경관 해석을 통해 물적, 추상적 경관의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여 서원의 가치 발굴 및 OUV, 진정성과 완전성을 심화하고 신뢰성(credibility)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는 앞으로 서원의 가치 창출 및 경관적 측면에서 활용 방향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활용 가능함.

### 3. 연구 방법 및 내용

#### 1) 서원의 기초 자료 조사 분석

- 서원의 기초 자료 조사 분석은 서원의 일반 현황과 기존 서원의 경관 보존관리 지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함.
- 서원 경관 보존관리 지침 및 관련 자료 조사 분석은 기존의 서원 보존관리 매뉴얼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분석하여, 서원의 경관 요소에 대한 기존의 관리 현황을 고찰함.
- 또한 한국의 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와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함께 분석하여, 서원의 경관으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서원의 경관 연구를 위해 서원의 입지와 연혁, 경관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함.

#### 2)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개념 및 경향 연구

-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개념 및 경향 연구는 유네스코 문화경관 개념 분석,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확인 및 동서양 문화경관의 접근과 이해를 통해 다루고자 함.
- 유네스코 문화경관 개념 분석에서는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문화경관을 이해하고, 문화경관 관련 국제 보존원칙(헌장)의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관점에서 문화경관의 해석 방법과 현재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함.
-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확인 및 적용에서는 문화경관 개념의 태동과 연구의 흐름을 살펴봄, 문화경관 개념을 한국의 서원에 적용하기 위해 동양과 서양의 문화경관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서원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함.
- 유네스코 문화경관 유산 사례 조사는 2023년 현재 등재된 126개의 문화경관 유산을 분석하고, 특히 서원과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국외 문화경관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 연구를 통해 서원의 경관적 가치를 확인함.
- 한국의 서원과 유사한 가치를 지닌 국외 교육 유산 답사 및 문화경관 지역 답사를 통한 비교연구로 한국의 서원 심화 연구를 진행함.

#### 3) 기존 서원의 경관 조사 분석

- 기존 서원의 경관 조사 분석은 서원의 입지 조사 분석, 서원의 경관 관련 고문헌 조사 연구 및 주요 경역별 경관 조사 연구를 통해 분석함.
- 서원의 입지 조사 분석은 입지의 연원과 이동 과정, 입지 지형 유형과 형국, 주변 지역 공동체의 인물과 관계를 통해 분석함.
- 서원의 경관 관련 고문헌 조사 연구는 문루 강당 기문 및 관련 인물의 시문에 나타난 경관의 의미를 조사하

며, 인문, 사회, 역사와 관련한 입지와 경관을 분석함.

- 주요 영역별 경관 조사 연구는 서원의 경역 구분 설정을 통해 제향공간, 강학공간, 유식 및 교류 공간을 분석하며 그중 서원의 경관과 관련이 높은 유식 및 교류 공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 경관 요소 관련 상세자료는 진입로, 축선과 대창구조, 건축물 및 연지와 내외 수로, 안바당, 수목 식재, 자연적 장소 경관과 원경 등의 요소로 분석함.

#### 4) 문화경관 조사 분석

- 본 보고서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경관 가치 발굴 및 해석을 통해 서원의 경관이 가지는 가치를 분석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 해당 분석을 위해 서원별 문화경관 요소의 조사 방법 및 절차, 서원의 경관 요소의 구성요소를 연구함.
- 이에 따라 총 5가지의 경관 요소를 추출하였고, 서원별 선행연구 분석 및 현장 답사를 통해 발굴한 경관 요소를 틀에 맞추어 작성함.
- 각 서원별로 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과거 경관의 변화 사항, 개발에 의한 영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서원마다 특징을 지니는 경관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서원의 경관이 가지는 가치와 이점을 특징적으로 도출함.

#### 5) 제언

- 세계유산 한국 서원의 경관 가치 발굴 해석으로 향후 요구되는 서원 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언함.
- 서원 경관의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요소를 지역공동체 및 국민(관광객)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언함.



## II.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개념 및 경향 연구

---

1. 세계유산 문화경관
2.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3.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산 사례 조사





## II.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개념 및 경향 연구

### 1. 세계유산 문화경관

#### 1) 문화경관의 이해

##### (1) 문화경관

###### ① 경관 (景觀, landscape)

- 사전적 의미로는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으로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으로 정의함.
- 현대적 의미에서 경관은 일차적으로는 ‘보이는 풍경’을 뜻하겠으나, 이차적으로는 보이는 풍경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함.
-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경관을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제2조 정의)’이라고 정의함.
- 이에 앞서 2000년,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가 제정한 유럽경관협약(European Landscape Convention)에서는 경관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소에 의한 작용,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는 주민들이 인식한 영토의 부분’으로 지칭함.
- 이렇듯 경관은 보는 주체의 인식(認識, perception)을 전제로 한 주관적 심상이 담긴 것으로, 보는 사람의 심성에 배어 있는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그들이 속한 사회적 가치를 나타냄.

###### ② 문화경관 (文化景觀, cultural landscape)

- 경관은 인식이라는 인간의 문화적 사유 활동이 전제되는, 그 자체로 이미 문화적 산물임.
- 문화는 경관에 대한 인식(perception)에 있어 여과 장치로 작동하게 되며, 경관은 그 모습 그대로 묘사할 수도 있지만, 대개 사람들은 같은 경관이라도 문화를 배경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고 이해함. 그렇기에 경관은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적인 표현임.

- 케빈 린치(Kevin Lynch)와 게리 해크(Gary Hack)는 경관을 '거대한 의사소통 장치(enormous communication device)'(Lynch and Hack, 1962)라고 하는 등, 오랜 세월 사람들이 경관에 공유된 가치관을 투영하고, 그 물질적 증거인 경관이 다시 사람들에게 인식되면 문화 또한 변화함.
- 경관은 자연과 문화의 힘 사이의 역동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의 표현으로 항상 변화해왔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과 공간 구조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로(Antrop, 2005), 이 과정에서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환경 사이 상호작용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됨.
- 문화경관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서민들의 역사와 토지 관리 전통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특성과 한계, 그리고 자연과의 특수한 영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의 특정 기술을 담고 있음(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2, Annex 3).
- 이러한 지역 지식(local knowledge)은 오랜 시간동안 변화하는 환경을 관찰하고 그에 대응하여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등 세대에 걸쳐 축적되었을 때 가장 풍부해지기 마련임(Ford and Martinez, 2000).

## (2) 문화경관의 속성

### ① 시간성과 복합성

- 텡스트라(Vern Terpstra)와 데이비드(Kenneth H. David)는 문화란 “학습되고, 공유되며, 강제적이고 상호 연관된 상징들의 집합체”로 보고, 이러한 상징들이 곧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련의 방향성’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방향성은 한데 어우러져서 “모든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는 실마리가 된다고 함(Terpstra and David, 1991).
- 문화경관은 생태적으로 오랜 진화 과정이 누적된 총체적 자연환경이고, 인간 역사로 보자면 무수한 세대간의 노력과 성과가 전승된 문화적 산물임.
- 그리고 누적된 진화의 결과로서 자연 상태와 전승된 인간 노력의 산물이 더해진 복합체라고 할 수 있음.

### ② 역동성

- 문화경관은 자연환경과 인간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끊임없이 변화함.
- 자연화의 과정과 힘 혹은 인간의 개조 및 개발행위는 그 변화의 중요한 동인이 됨.
- 시대와 지역, 문화에 따라 경관 자체는 물론 그것의 가치도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함.

### ③ 전체성

- 문화경관은 다차원의 척도를 갖는 위계적이며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로, 각 구성 요소들의 합 이상의 차원을 갖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임.

- 의미와 기능에서도 복합적이며 지각에서뿐만 아니라 패턴화된 조직, 구조, 과정이라는 체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전체성을 지님.

#### ④ 상호관련성

- 인간은 누구나 자연과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는 물리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함.
- 이와 같은 관계의 과정 혹은 결과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면서 생성되고 누적된 문화경관은 결국 그 모든 관계의 산물임.

#### ⑤ 지역성

- 문화경관은 지역마다 다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연과 사람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임.
- 특정 지역의 환경 조건은 그에 대응되는 방식과 만나서 지역 특유의 문화적 양식과 산물을 낳게 되며, 그것은 곧 다른 지역과 구별 짓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으로 귀결함.

#### ⑥ 공유성

- 경관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특정의 경관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등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동시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경관을 접하기 마련으로, 경관은 지역 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적 속성을 지님.

#### ⑦ 연속성

- 문화경관은 자연과 문화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는 그 둘의 구성 비율에 따라 가장 자연적인 것에서부터 그 반대의 인공적인 것에까지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양상과 그 특질이 달리 나타난다.
- 특정 경관은 그 자체로 자연과 문화, 혹은 그 둘의 복합 형태로서 공간상 혹은 시간상의 연속성을 지님. 다시 말해, 공간적으로는 주위와 연속된 실체로 존재하며, 시간적으로 급세 생장소멸하기 보다는 비교적 긴 시간을 두고 형성되며 지속됨.
- 그러나 때로는 자연재해 혹은 대규모 개발 등으로 연속성이 급작스럽게 깨어지기도 함.

#### ⑧ 다양성과 다원성

- 시간과 공간은 경관의 주요 변인으로, 시대에 따라 기술과 문화가 달라지니 경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역에 따라 자연환경 여건은 물론 사람과 문화가 다르니 경관 역시 달라지기 마련임.

- 대상으로서 경관 자체도 다양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 역시 다르기 마련으로, 주체의 정신적 작용의 산물로서 경관은 관점에 따라 예술, 과학, 산업, 농업, 관광, 종교 등 다양한 차원으로 인식됨.
- 문화경관의 구성요소나 양상만이 아니라 가치와 효용, 의미와 상징, 인식과 평가에 있어서까지 다양하고 다원적인 대상임.

표 II-2. 문화경관의 속성

속성	내용
시간성과 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적으로 오랜 진화 과정이 누적된 총체적 자연환경</li> <li>• 무수한 세대간의 노력과 성과가 전승된 문화적 산물</li> <li>• 자연 상태와 인간 노력의 산물이 더해진 복합체</li> </ul>
역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끊임없이 변화</li> <li>• 시대와 지역,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것</li> </ul>
전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요소들의 합 이상의 차원</li> <li>• 복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전체성</li> </ul>
상호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사람간의 관계성</li> <li>•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며 생성</li> </ul>
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마다 다른 특징으로 나타남</li> <li>• 특정 지역의 환경조건이 그와 대응하는 방식과 만나 문화적 산물을 낳음</li> <li>• 지역 교유의 정체성으로 귀결</li> </ul>
공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시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경관을 접함</li> <li>•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공재적 속성</li> </ul>
연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자연적인 것부터 인공적인 것까지 연속적인 스펙트럼</li> <li>• 자연, 문화, 혹은 복합체로서 공간상, 시간상의 연속성</li> </ul>
다양성과 다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는 다양성을 가짐</li> <li>• 경관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이 달라 인식되는 차원이 다양</li> <li>• 요소, 가치, 의미, 인식과 평가에 있어 다원적인 대상</li> </ul>

(출처 : 성종상 2021)

## 2)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이해

### (1) 세계유산 제도 이해

-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1972년 제17차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 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말함.

-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는 것은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나 지방 등 지역적 범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세계인이 협력하여 보호할 당위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인류가 함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후대에 전승하여 향유한다는 목적도 있으므로 유산의 보호·관리는 세계유산 목록 등재만큼 중요한 일임.
- 세계유산은 1978년 등재된 12개의 유산을 시작으로 현재 168개국 1,199개의 세계유산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등재하였으며 현재 16건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음(UNESCO, 2023).
- 세계유산 제도 구체적인 운영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만든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따름.
-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며 1978년 채택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됨. 세계유산제도는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왔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됨.
- 문화유산은 유형유산으로 분류되며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 속해야 함. 운영지침에서는 유형유산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는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유산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기념물(monuments)이란 건축물, 기념비적인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유물이나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 및 여러 요소가 조합된 것을 말하며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이란 독립건물 또는 연결된 건물이 집단을 이루며 서로 떨어져 있거나 연결되어 건축적 동질성을 갖거나 경관 속에 점한 위치로 인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함. 유적지(sites)란 인간이 만든 것이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것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을 말함.
- 자연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서 물리적·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로서, 미학이나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지질학적·지형학적 생성물,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명확하게 구획된 지역으로 학술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자연 유적지 또는 명확하게 구획된 자연지역으로, 학술,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복합유산은 운영지침에서 세계유산 협약 제1조 및 2조에 명시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복합유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운영지침에서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기준으로 등재기준(Criteria) 10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문화유산의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i)부터 (vi)까지, 속하는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자연유산의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vii)부터 (x)까지, 속하는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그리고 등재기준에 부합하는 유산의 가치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진정성·완전성이 기술되어야 하며, 등재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 관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2) 세계유산 문화경관 개념 정립 및 제도화를 위한 주요 선언 및 문서

### ① 베니스 헌장(Venice Charter) (ICOMOS, 1964)

- 「기념물과 사적지의 보존복원을 위한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으로 유산의 개념 및 보존 전반에 대해 다룬 헌장으로 유산과 주변환경을 함께 보존하는 맥락적 보존방식 체계를 제안함.
- 보존 및 복원정비에 있어 진정성(authenticity) 개념을 제안함.

### ② 세계유산협약(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1972)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의 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함.
- 지정과 관리에 있어 '10가지 등재기준'과 함께,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 '보호관리 계획' 기준을 도입함.
- 이에 따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 1977년에 마련되고 유산의 개념과 대상의 변화와 확장에 따라 2021년까지 27회 개정됨.

### ③ 버라 헌장(Burra Charter) (Australia ICOMOS, 1979)

- 「문화적 중요장소 헌장(Charter for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으로 전통적 유산의 개념인 기념물(monument) 중심의 유산 개념과 정책을, '장소(place)' 개념으로 확장하여 문화와 자연 사이의 만연한 이분법적 사고를 공간적, 인문적 해석으로 통합한 주요 선언임.
- 장소는 자연유산과 문화적 가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관적 요소를 고려한 총체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
- 보존과정에서 유지관리, 보존(preservation), 수복, 재건, 전용, 새로운 작업, 사용과 재사용, 연관성과 의미의 유지, 해석의 개념을 포함함.
- 유산의 해석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공동체 참여(community inclusion)'를 도모함.

### ④ 플로렌스 헌장(The Florence Charter) (ICOMOS, 1981)

- 「역사적 정원 보존 헌장(the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Gardens)」으로 정원이라는 유기체, 곧 동식물을 유산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속성으로 간주함으로 고정적, 정태적인 대상에 한정되어 있었던 유산의 실체를 확장함.
- 역사정원은 '살아있는 요소가 주가 되어 사라지고 재생되는 살아있는 기념물'로 인간 의도로 만들어진 조형공

간으로 간주함.

- 환경에 의지하는 정원 고유성 유념, 정원의 가치 보존에 인간의 조작적 행위에 집중(계획과 지형, 수종, 비율, 색채 계획, 식생, 구조 등)한 현상임.
- 그동안 역사적 구성에 주로 집중했던 유산 전문가들은 식물과 같이 삶과 죽음의 주기를 가진 생명체에 의해서도 가치가 부여되는 ‘장소’와 ‘경관’ 개념에 점차 주목하게 됨.

#### ⑤ 나라 문서(Nara Document) (ICOMOS, 1994)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로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평가를 위해서는 그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할 것 주문함.
- 유산의 물적 형태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진정성은 유지할 수 있다는 ‘진보적 진정성’ 개념을 사용하게 됨.
- 진정성의 6가지 요소를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활용과 기능, 전통기법과 기술, 장소와 주변 환경, 정신적 요소와 느낌’으로 정의함.

#### ⑥ 토속건축유산에 관한 헌장(Charter on the Built Vernacular Heritage) (ICOMOS, 1999)

- 물리적인 구조물 보존에 집중했던 기존 유산 보존과 관리 관습을 거스르는 개념임.
- 국제적으로 균질화되어가는 문화와 사회경제적 현상에 위협받던 토속 건축 유산의 보존을 목표로 함.
- 토속 건축이 한 공동체 문화의 표현이자, 영토와 관계의 표상이 되고, 더 나아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부분으로 역할하는 토속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바탕을 둠.
-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본 헌장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제약에 대한 대응이자, 지속적인 적응과 진화를 통해 축적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세대 간 전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⑦ 호이안 프로토콜(Hoian Protocol) (UNESCO Bangkok, 2009)

- 아시아 문화 관점에서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을 해석함.
- 진화하는 문화적 과정으로의 지속가능한 관리, 아시아의 풍수, 전통 신앙, 기술 등 추상적 틀의 이해가 바탕이 된 진정성 개념을 강조.
- 나라 문서의 진정성의 6가지 요소를 실무적 활용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 단순화하여 ‘위치와 주변환경, 형태와 디자인, 활용과 기능, 비물질적 특성’을 제시함.



## ⑧ 세계유산 문화경관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

-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은 세계유산 문화유산 유형 중 하나로 자연과 문화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서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조된 것도 유산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도입됨.
- 1992년 제1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본에 문화경관이 추가되었으며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으로 정의함.
-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문화경관은 “자연환경과 연속적으로 내외부에서 가해지는 사회, 경제, 문화적 힘으로 인해 유발되는 물리적 제약 및/또는 기회의 영향 아래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인간 사회와 정주지의 진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됨.

표 II-3. 세계유산 문화경관 특성

분류	자연 보호 구역 Protected Natural Area	역사적 유적지 Historic Sites	문화 경관 Cultural Landscape
평가 항목	자연적 가치	문화적, 혹은 역사적 가치	<u>문화와 자연적 가치</u>
지리적 범위	생태계와 분수계 보호를 위해 넓은 지역	건물, 건물군, 고고학지 보호를 위해 작은 지역	모든 가치를 담을 수 있는 <u>넓은 지역</u>
지하 보호	법적으로 지하 보호	지하 보호 없음	지하 보호가 필요 할 수 있음
유형 & 무형 가치	자연 특성과 관련한 유무형의 가치	역사/문화 특성과 관련한 유무형 가치	자연과 문화, 그리고 경관 자체를 포함한 <u>모든 유무형의 가치</u>
지역 관리에 있어 자연/문화 가치 균형	문화/역사 가치는 후순위	자연 가치는 후순위	<u>문화와 자연 가치의 균형과 통합</u>

(출처: Anthony J. English & Ellen Lee 2003)

- 문화경관은 단일한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없으며 문화유산 등재기준으로 문화경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정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나, 일부 복합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함. (111개소 문화유산, 10개소 복합유산)

### ※ 복합유산과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의 구분

복합유산과 문화경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복합유산은 등재기준(i)-(vi) 중 최소 하나, 등재기준(vii)-(x) 중 최소 하나, 즉 두 가지 기준을 근거로 등재됨. 복합유산의 경우 양쪽의 등재기준을 각각 충족시켜야 함. 문화경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문화 또는 자연유산의 특징이 아니라 문화와 자연 간 상호관계에서 비롯됨. 문화경관은 문화유산 등재기준을 근거로 식별함. 그러한 유산 중에는 자연적 가치가 있는 유산도 있으나 대개는 자연유산 기준을 근거로 등재 근거를 설명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유산이라면 복합유산과 문화경관으로 등재됨

(참고: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Second edition).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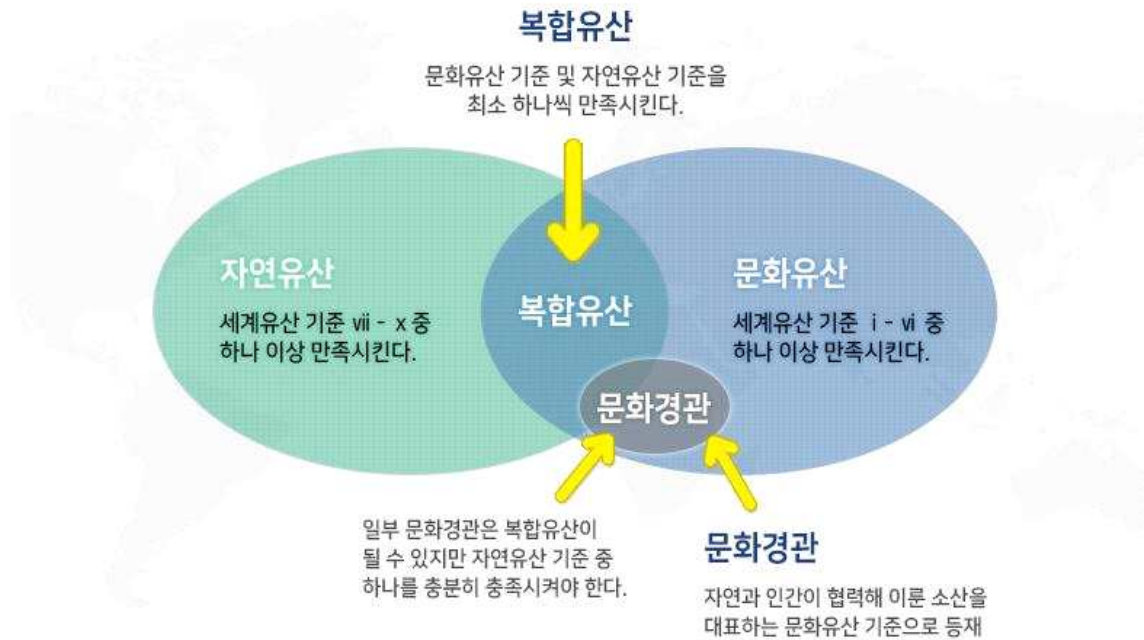


그림 II-1.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범위  
(출처 ; 문화재청)

- 문화경관은 설계·조성된 경관(designed landscape),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연상적 경관(associative landscape)으로 구분됨.
  - 설계·조성된 경관 : 인간이 의도적으로 설계, 조성한 경관으로, 여기에는 종교적인 이유나, 다른 기념비적 건물과 건조물군 등과 연관되며, 종종 심미적 이유로 기인해 조성한 정원과 공원 경관을 포함함.
  -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 초기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및/또는 종교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자연환경과의 연관되거나 이에 대응하여 현재의 형태로 발전했다. 이러한 경관에는 그 형태와 구성요소에 진화 과정이 반영되며, 이는 다음 두 가지 하위 항목으로 분류됨.
    - 잔여(또는 화석) 경관(relict(or fossil) landscape) : 진화 과정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종료된 경관으로, 그 중요한 특징은 여전히 물질적 형태로 볼 수 있는 경관.
    - 지속하는 경관(continuing landscape) :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활발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며, 진화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경관 유형.
  - 연상적 경관(associative landscape) : 지역에 중요하지 않거나 이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적 속성의 물질적 증거보다는 자연 요소가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종교, 예술, 문화적 연상을 근거로 한 경관.

표 II-4.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유형과 특징

문화경관의 유형		정의 / 주요 특성	대표 유형 / 사례	평가 / 해석의 접근
1	설계, 조성한 경관 designed landscape	인간 의도에 의해 디자인된 경관미/사회적/위탁적 의도로 형성 종종 종교적/기념적 건물군 등과 연관	정원, 공원, 무스카우어 공원 (독일)	조경적 접근
2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사회/경제/행정/종교 등 다양한 배경으로 생성되어 진화되어 온 것		
	잔여(화석) 경관 relict(or fossil) landscape	진화 과정이 과거 시점에 종료	고부스탄 암각화 (아제르바이잔)	고고학/역사학 접근
	지속 경관 continuing landscape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	피코섬 포도밭경관 (포르투갈)	경제학/사회학 등과 인간행동패턴 연구
3	연상적 경관 associative landscape	자연 요소가 불러일으키는 종교, 예술, 문화적 연상을 근거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 (호주)	인류학/민속학적 접근

(출처: UNESCO, 2008; Aplin 2007을 토대로 작성)

- 1993년 뉴질랜드의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National Park)’을 최초로 문화경관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21개소의 문화경관이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됨.
- 1995년 이후 매년 평균 4건 이상씩 등재되면서 등재된 세계유산 유형 중 ‘사이트(site)’에 이어 ‘경관(landscape)’형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세계유산 문화경관이 그동안 유럽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나 최근 아시아 지역 등재 증가 중임(한국은 0개소).
- 전통적 농업 경관, 종교적·역사적 경관, 산, 성지, 종교적 대상지, 역사문화 루트, 역사 도시, 산업 경관, 정주지, 정원, 공원 등 문화경관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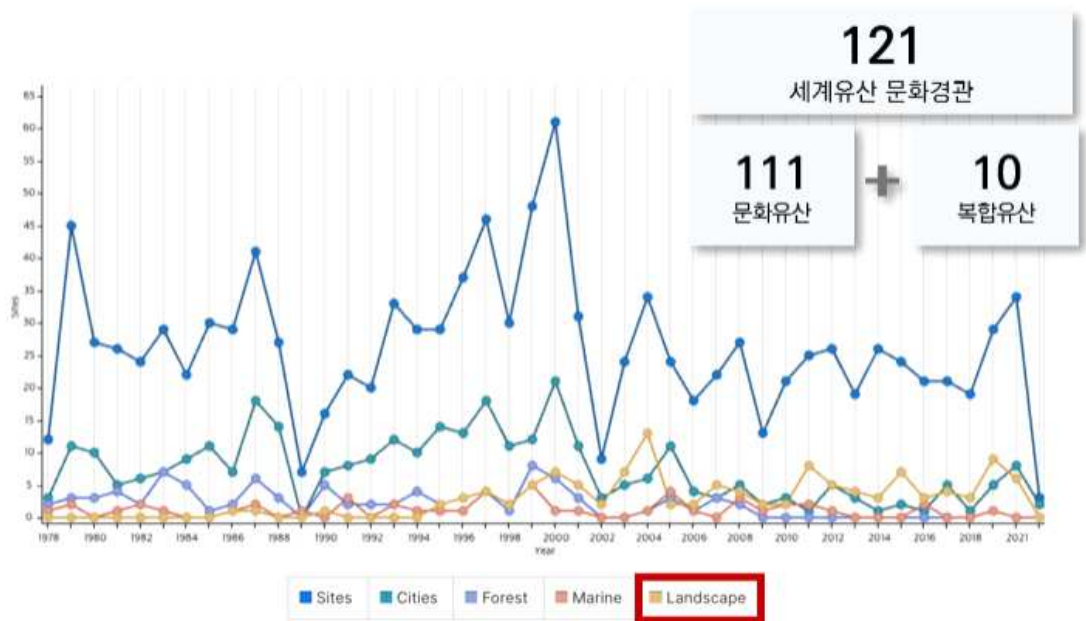


그림 II-2. 세계유산 문화경관 등재 현황  
(출처 : UNESC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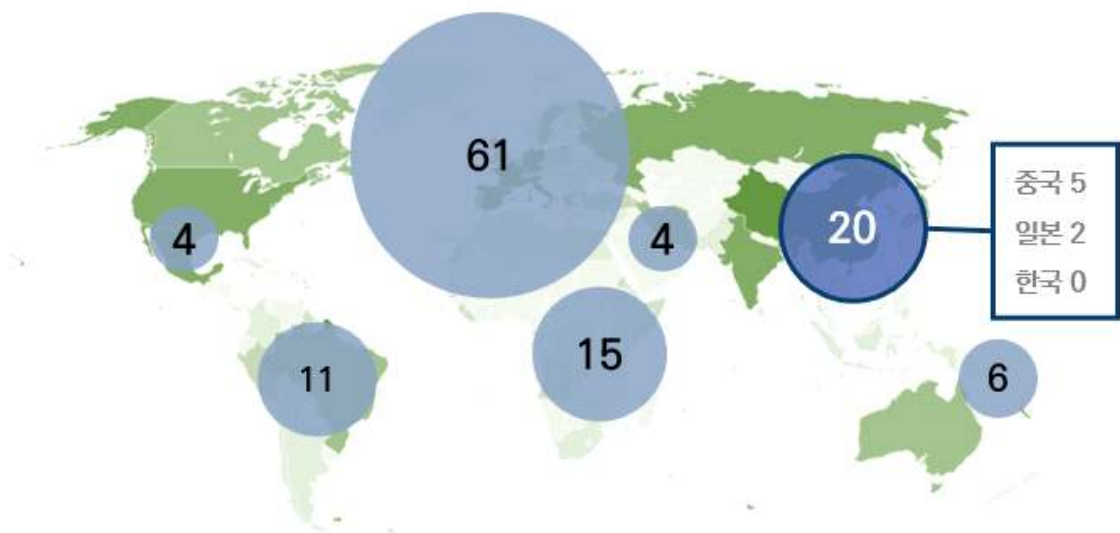


그림 II-3. 세계유산 문화경관 분포 현황  
(출처 : UNESCO 2022)

## 2.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1)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문화경관의 지향점

#### (1) 서구 중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비판과 대응

##### ① 서구적 시각으로서 보편성과 물질 중심적 사고에의 비판

- 1990년대까지 세계유산의 시각은 보편성에 치중, 물질적 측면을 주로 강조하는 등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고로 편중됨.
- 지역적 혹은 시대적 차이를 넘어서는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우선시해온 유네스코의 근본적인 성찰을 일으킴.
- 삶과 깊이 연대한 정신적, 상징적인 비물질적, 무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동양의 접근법 고찰이 요구됨.

##### ② 자연-문화 간의 이분법적 사고의 반성

- 문화경관 이면에 자연을 인간과 대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열등한 것으로 여겨온 서구의 자연 인식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인식됨.
-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 활동의 다양성을 존중, 자연-인간 연대 의식에서 오랜 시간에 형성된 산물이 다양한 지역문화로 확장됨.
- 유산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소수민족 문화나 원주민 문화, 토착 문화 등이 문화경관의 범주로 세계유산의 반열에 오름.

##### ③ 지역 간·유형별 불균형의 해소

- 1994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럽 비중의 과다함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유산목록의 균형, 대표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을 승인하고 착수함. 2015년에도 “지역 및 문화상의 불균형이 계속 심화”함에 대한 지적이 공식적으로 제기됨.
- 지역별로 특색이 다른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생겨난 다양한 것들, 특히 경관이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의식하기 시작함.
- 이에 등재 건수 ‘사이트(site)’형 유산의 비중이 여전히 높기는 하나, ‘경관(landscape)형 유산’의 수가 9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중임.

##### ④ 한정된 분야와 특정 유형 위주의 편중 현상 극복

- 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 계통(78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힌두교(32건)계통이 그다음으로 많고, 불교(3건)와 이슬람교(2건) 계통이 증가함.

- 문화유산은 유럽과 북미 지역은 85%(총 529건 중 453건)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약 55%(총 96건 중 53건)에 불과한 수준이며, 아랍지역에서는 자연유산의 비중이 불과 6%(총 86건 중 5건)에 불과함.
- 이에 문화, 특히 재래적 전통문화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⑤ 서구 중심적 세계유산 문제에 대안으로 문화경관 대두

- 세계유산을 다루는 데도 보다 확장되고 포괄적인 시각과 방법이 요구됨.
- 장소 지향적이며 물적, 비물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경관적 접근법 요구되는 실정임.
-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결과로 경관뿐만 아니라, 경관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와의 다양한 가치의 발굴과 해석이 필요함.
- 이에, 문화경관이 세계유산 불균형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됨.

### (2) 세계유산 문화경관 보존 원칙과 가치

- 문화경관의 보존 방식은 일반적인 문화재의 역사적, 고고학적, 문화 예술적 접근과 달리 장소 지향적임.
-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함.
- ‘경관’을 단위로 하여 경관의 물리적 요소와 경관 속 인간의 행태와 그 관계까지 다루는 포괄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함.
- 무엇보다 문화경관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산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게 됨.
- 지역 환경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부합하고 경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목표를 둔 문화경관의 보존은 생태환경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가시적, 비가시적 가치를 양산함.

표 II-5. 문화경관의 보존원칙

원칙	내용
원칙 1	문화경관과 연관된 사람들이 관리에 있어 주된 해당 당사자들일 것
원칙 2	성공적인 관리는 포괄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주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와 동의를 통한 거버넌스를 형성할 것
원칙 3	문화경관의 가치는 사람과 그들의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반하며, 관리의 초점을 그 관계성에 맞출 것
원칙 4	관리의 초점은 문화경관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를 지도(guiding)할 것
원칙 5	문화경관의 관리는 더 넓은 경관의 맥락에 통합될 것
원칙 6	성공적인 관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것

(출처: Nora Mitchell et al., 2010; 채혜인, 박소현 2015)

표 II-6. 문화경관 보존으로 인한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


가치	내용
<p>환경적 가치 Environmental valu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 다양성 보호 및 향상</li> <li>• 주요 환경 서비스 보호, 예) 깨끗한 물과 공기, 비옥한 토양</li> <li>• 유익한 개발 유도 및 장려</li> <li>• 유해한 개발 감소, 혹은 제거</li> <li>• 시각적 경관의 다양성 및 가치 유지</li> <li>• 광범위한 농촌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제공.</li> </ul>
<p>문화적 가치 Cultural valu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 고취</li> <li>• 전통문화 자원과 관습의 보호와 제고</li> <li>• 독특한 경관과 유물 보호</li> <li>• 예술과 문학적 영감 고취</li> <li>• 높은 수준의 장소성 개발 및 적합한 여가활동 발전 도모</li> <li>• 자연과 문화의 상호작용 유지</li> </ul>
<p>정신적 가치 Spiritual valu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와 국민적 장소/지역의 정신적, 신성한 가치 보호</li> <li>• 이러한 장소의 향유를 위한 접근성 및 시설 확보 및 개선</li> </ul>
<p>교육적 가치 Educational valu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및 해설 시설 제공</li> <li>•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촉진</li> <li>• 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 및 연구 시설 제공</li> <li>• 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폭넓은 지원시설 건설.</li> </ul>
<p>과학적 가치 Scientific valu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 연구 고양</li> <li>•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상에 대한 관찰과 평가 지표 개발</li> </ul>
<p>여가적 가치 Recreational valu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유형과 스케일에 적합한 여가 및 관광을 통해 대중에게 폭넓은 향유 기회 제공</li> </ul>

(출처: Nora Mitchell, Jessica Brown & Michael Beresford 2005)

### 3.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산 사례 조사

#### 1) 유네스코 문화경관 유산 분석

##### (1) 항저우의 시후호 문화경관 (West Lake Cultural Landscape of Hangzhou)

국가	중국	
분류	문화	
등재연도	2011	
등재기준	(ii), (iii), (vi)	
유산면적	3,322 ha	
완충지역	7,270 ha	
구성요소	호수, 인공섬, 사찰, 정원	

- 시후호와 호수의 3면을 둘러싼 언덕과 인공적인 독길과 섬, 다리, 정원, 탑, 사원이 문화경관이 형성됨.
-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 사상(평화로움/그림 같은 자연) 반영, 동아시아의 경관 설계에 커다란 영향을 줌.
- 당과 송대의 문학과 예술의 반영, ‘시후 10경’ 같이 시적인 경관 개념은 중국에서 700년간 지속되며 동아시아에 영향을 줌.
- 천년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나, 항저우시 확장과 스카이라인은 위협적인 요소임.
- 1982년 [시후호 풍치지구] 지정이 보호정책의 근간이 됨. 보호 기관은 ‘내부기관’과 ‘폴뿌리 단체’로 운영되어 다양한 지역단체, 지역사회와 마을들이 함께 참여함.

기준 (ii) : 시후호의 경관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 사상(‘불교의 평화로움’이나 ‘그림 같은 자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동아시아의 경관 설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침. ‘시후10경’과 같이 시적인 이름을 붙인 경치 좋은 장소의 개념은 전 중국에서 700년간 지속되었고, 한국 지식인들이 시후호를 방문했던 16세기 이후로는 한반도에도 전파됨.

기준 (iii) : 시후호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융화를 보여주는 일련의 ‘그림’을 만들어나가게끔 경관을 개선하는 매우 특수한 문화적 전통의 훌륭한 사례임. ‘개선’된 시후호는 이 전통을 탁월한 방식으로 구현한 실제 물로, 숲이 있는 언덕을 배경으로 하여 인공적인 독길과 섬들, 다리들, 정원들, 탑들, 사원들이 훌륭하게 배치되어 있음.

기준 (vi) : 당대와 송대의 문화는 최고의 미를 그림처럼 펼쳐 보이기 위해 경관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이뤄낸 조화를 잘 보여줌. 섬과 독길, 사찰, 탑과 관상수가 어우러진 시후호의 빼어난 경관은 많은 화가들을 사로잡았으며 여러 시인이 이 경관에 이름을 붙임.



## (2)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

국가	일본	
분류	문화	
등재연도	2004(2016 수정)	
등재기준	(ii), (iii), (iv), (vi)	
유산면적	506.4 ha	
완충지역	12,100 ha	
구성요소	산지, 성림, 참배길, 사원	

- 태평양을 굽어보는 기이 산(紀伊山)의 울창한 숲에 3곳의 영지(靈地)가 참배길을 통해 고대 수도 나라와 교토와 연결됨.
- 일본의 전통적인 자연 숭배 의식에서 비롯된 신도(神道)와, 중국과 한국을 통해 유입된 불교의 독특한 융합인 신불습합(神佛習合) 사상의 성지라고 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종교 문화의 교류와 발전을 보여줌.
- 기이 산지가 독특한 형태의 신사와 사찰을 만들어낸 주요 배경임.
- 주변의 산림 경관은 1,200여 년 동안 영산(靈山)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잘 입증된 전통의 증거.
- 1868년 무사 정권이 막을 내린 후 신불습합 활동 금지로 쇠퇴 위기에 있다가, 1897년 『고대 신사와 사찰 보호법』 제정이 보호정책 근간으로 작동함.

기준 (ii) : 기이 산지의 문화경관을 이루는 기념물과 유적은 신도와 불교의 독특한 융합이며, 동아시아 종교 문화의 교류와 발전을 보여줌.

기준 (iii) : 기이 산지의 신도 신사와 불교 사원, 그리고 관련 의식은 지난 1,000여 년간 일본 종교 문화의 발전을 확연히 보여줌.

기준 (iv) : 기이 산지는 독특한 형태의 신사와 사찰을 만들어낸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일본 곳곳의 사원과 신사 건물에 깊은 영향을 줌.

기준 (vi) : 유산과 주변의 산림 경관은 1,200여 년 동안 영산(靈山)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잘 입증된 전통을 보여주는 곳임.



## (3) 타푸타푸아테아 (Taputapuātea)

국가	프랑스	
분류	문화	
등재연도	2017	
등재기준	(iii),(iv), (vi)	
유산면적	2,124 ha	
완충지역	3,363 ha	
구성요소	바다, 마을, 다랭이논, 신앙	


- 라이아테아(Raiatea) 섬의 문화와 바다 경관으로 구성되며, 유산 중심은 정치·예식·장례·종교 중심지인 ‘타푸타푸아테아 마라에(Taputapuātea marae)’ 단지임.
- 14-18세기 마오히 족의 신앙에 따라 건설된 사회적으로 기능한 사원인 마라에(살아있는 자의 세계와 조상의 세계가 만나는 지점)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 마라에 단지는 석호를 둘러싼 암초를 향한 신성한 길인 ‘테 아바 모아(Te Ava Mo’a)’를 조망하는 영성을 표현하는 특별한 장소로 볼 수 있음.
- 유형의 속성들(고고학 유적지, 구전 전통 장소와 관련 장소, 마라에)과 무형의 속성들(기원설, 의식 및 전통 지식)이 결합된 하나의 성스러운 문화경관임.
- 1952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법률』에 따라 보호, 2015년 관리계획으로 육지와 해양환경의 문화경관은 보호는 물론 전통 지식과 기술 전승을 시행함.

기준 (iii) : 타푸타푸아테아는 천년 간의 마오히(mā’ohi) 문명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함. 마오히의 역사는 바닷가의 타푸타푸아테아 마라에 단지와 고지대 계곡의 다양한 고고학적 유적지에 서려 있음. 또한 길게 뻗은 바닷길을 따라 카누로 항해하는 기술,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항해하는 방법, 새롭게 정착한 섬을 부족을 위한 장소로 변화시켰던 방법 등을 증언함.

기준 (iv) : 타푸타푸아테아 유산은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마오히 족의 신앙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적으로 기능한 사원인 마라에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임. 마라에는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조상의 세계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다. 마라에 타푸타푸아테아는 족장들의 최고 연합과 숭배 의식을 보여주는 구체적 표현임을 입증함.

기준 (vi) : 폴리네시아의 문화적 조상의 고향인 타푸타푸아테아는 폴리네시아 전역의 사람들에게 기원을 상징하고 선조와 연결되는 방식이 드러나 있으며, 동시에 폴리네시아인들의 영성을 표현하는 매우 특별한 의미의 장소임.

#### (4) 암보히망가 왕실 언덕 (Royal Hill of Ambohimanga)

국가	마다가스카르	
분류	문화	
등재연도	2001	
등재기준	(iii), (iv), (vi)	
유산면적	59 ha	
완충지역	950 ha	
구성요소	도시, 무덤, 성지, 종교	


- 왕궁·매장 지역(왕의 무덤), 그리고 나무·샘물·호수·공공회의 장소 등의 성스러운 장소들로 구성됨.
- 요새화된 왕궁 도시는 공간은 의례에 따라 구분함.
- 500년 동안 마다가스카르의 종교의식과 사람들의 정신 속에 내재된 성스러운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 국가적 상징 장소로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임.
- 정상부는 실용적이면서 영적인 이유로 삼림, 저지대 숲은 그러한 장소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근거지로서 개간, 저지대 경사지에 계단식 농업 등 문화경관을 이루고 있음.
- 신성한 숲은 고유의 희귀한 식물이 서식함.
- 20세기를 통틀어 종교적 목적을 가진 순례의 대상이며 활기 넘치는 성지임.

기준 (iii) : 암보히망가 왕실 언덕은 마다가스카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적 상징임.

기준 (iv) : 암보히망가 왕실 언덕의 전통적 설계·재료·시설 배치에서 볼 때, 최소한 16세기부터 사회적·정치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

기준 (vi) : 암보히망가 왕실 언덕은 수 세기에 걸쳐 전통, 종교의식, 기도에 중점을 두었던 특별한 장소의 표본임.

## (5) 영국 레이크 디스트릭트 (The English Lake District)

국가	영국	
분류	문화	
등재연도	2017	
등재기준	(ii), (v), (vi)	
유산면적	229,205 ha	
원충지역	—	
구성요소	호수, 산지, 마을, 농업	


- 산악 환경이라는 물리적 제약 아래에서 농부들이 지역 품종의 양을 고지대 초지에 방목하는 독특한 전통 농경 목축을 하면서 형성된 결과임.
- 18세기 픽처레스크 운동을 통해 조화로운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낭만적 참여에서 시작된 인간과 경관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
- 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과 운동은 보호 지역이라는 개념 형성(예.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보전토지관리 제도 등), 이후 전 세계에 전파됨(예. 옴스테드).
- 문화경관이 자아내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 농경·목축업을 지원 유지하며, 대중이 지역의 특별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기회를 제공함.
- 1949년 『국립공원 및 농촌 접근에 관한 법률』, 부지 20% 이상이 내셔널트러스트 소유, 5년마다 관리계획은 기후변화나 개발압력, 변화하는 농업 체계와 질병, 관광 등 유산이 직면하는 과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임.

기준 (ii) : 18세기에 경관의 가치는 이탈리아와 북유럽의 풍경화 스타일과 관련된 ‘픽처레스크 운동(Picturesque Movement, 그림 같은 경관 운동)’을 통해 인지되고 감상됨. ‘영국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가치는 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운동과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휴양 활동의 발전을 직접 이끌었고,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

기준 (v) : 레이크 디스트릭트 경관은 지역 품종인 양이나 소를 기르는 북유럽 고지대의 농경목축 체계로서 비교 불가능한 탁월한 사례이며, 이런 농축산 방식은 장엄한 산악 환경에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형태가 형성되고 적응됨.

기준 (vi) : ‘픽처레스크 운동’을 통해 조화로운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낭만적 참여에서 시작된 인간과 경관 사이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그에 따라 나타난 감정적 반응, 모든 사람은 경관의 가치를 누리고 즐길 권리가 있다는 생각,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경관보호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한 요구(이후 다른 여러 나라에 이와 유사한 권리 제도가 확산됨) 등임.

## (6) 발 도르차 (Val d'Orcia)

국가	이탈리아	
분류	문화	
등재연도	2004	
등재기준	(iv), (vi)	
유산면적	61,187 ha	
완충지역	5,660 ha	
구성요소	농경지, 도시, 마을, 수도원 등	

- 14-5세기 통치 이상을 반영하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을 바꾼 르네상스 시대의 우수한 방식임.
- 시에나 상인들의 정착지로 효율적인 ‘공동체’의 이상향으로 농경지 뿐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든 즐거운 경관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는 ‘경관’ 개념의 시초가 됨.
- 발 도르차의 경관은 이를 만들어온 상인들의 근거지인 시에나와 더불어 유토피아적인 이상과 관련이 깊은데, 시에나는 일종의 ‘공동체’였고, 발 도르차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농촌의 발전 모델이었으며, 둘 다 최고의 미학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음.
-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발 도르차의 경관을 그린 그림은 르네상스의 초상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경관에 관한 사고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줌.
- 큰 농가들이 눈에 띄는 요소이며 로지아, 벨베데레스, 포치(건물입구에 지붕이 없혀 있고, 흔히 벽이 둘러진 현관), 진입로 양쪽으로 나무가 심어진 길 등의 눈에 띄는 건축요소가 풍부함.
- 경작지 확장과 개선된 관개 체계 등으로 변화에 따라 1999년에 이 지역은 예술, 자연, 문화 공원으로 보호 공동 관리단체를 설립한 다섯 개 자치도시가 시작했으나 후에 주 정부로 통합됨.

기준 (iv) : 발 도르차는 훌륭한 통치 이상을 반영하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을 바꾼 르네상스 시대의 우수한 방식을 보여줌.

기준 (vi) : 발 도르차의 경관은 르네상스 시대에 번성한 시에나 화파 미술가들의 사랑을 받았음. 발 도르차의 이미지, 특히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경관을 그린 그림은 르네상스의 초상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경관에 관한 사고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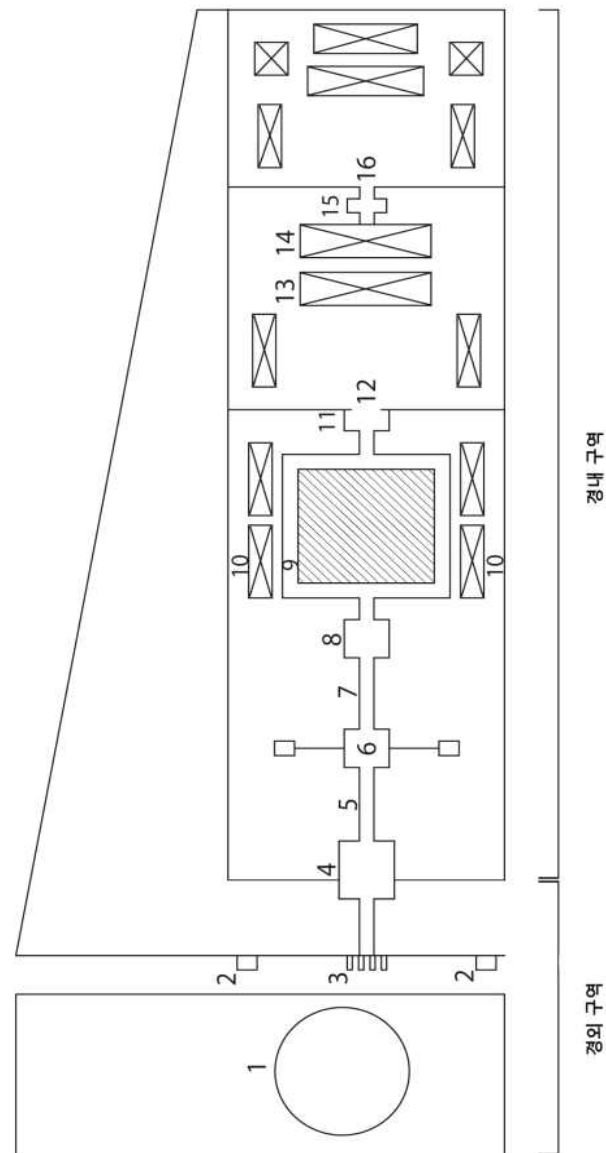


## 2) 서원과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국외 문화유산 사례 조사

## (1) 베트남 - 하노이 문묘 (Văn Miếu)

국가	베트남	
위치	하노이	
시대	1070	
구분	교육기관	

- 베트남의 각 왕조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중국식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관리를 선발하고, 문묘와 국자감을 세워 유학을 교육함. 이러한 과정에서 하노이 문묘는 건축물과 현판 등이 유교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건물의 배치도 유교의 사상이 반영된 한국의 서원과 유사성을 지님.
- 하노이 문묘의 경우 공자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070년에 세워졌으며, 1076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대학으로 유학자를 양성함. 경내는 벽을 경계로 모두 다섯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 문은 왕만이 출입했고, 좌우 출입로는 일반인들이 출입함. 경내 좌우에는 거북 머리 대좌를 한 82개의 진사제명비가 있고, 여기에는 1442년에서 1787년 사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이 새겨져 있음.
- 문묘문에서 들어가면 1805년에 건축된 규문각(Khuê Văn Các, 奎文閣)이 있음. 옛 유학자들은 규문각에 올라 시문 창작, 담론 또는 향유 활동을 하였음. 현재 규문각은 1,000여 년의 역사 문화가 담겨있는 하노이시의 상징이며 베트남 사람의 호학정신을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10만동 화폐에 새겨져 있을 만큼 하노이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여겨짐.
- 규문각을 지나 대성문(大成門)을 지나면 중앙의 대성전(大成殿)과 좌우의 기숙사 건물이 있음. 대성전은 신위를 모신 사당임. 중앙 마당에는 왕을 상징하는 향로가 있으며, 이 마당에서 과거시험을 치르기도 함. 문묘 전체가 서원과 유사한 배치를 가졌으며, 현재 기숙사 건물 내부가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됨.
- 마지막으로 국자감이 그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자감은 베트남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최근에도 베트남 젊은이들은 입시철이나 매년 새해가 되면 공자를 모신 하노이 문묘를 찾음. 이곳에는 베트남 최초의 대학인 국자감과 함께 1484년부터 지난 300년간의 과거급제자를 기록한 82개의 진사제명비(進士題名碑)가 도열해있기 때문인데, 한국의 서원도 조선시대 공부와 학습의 중심지로서 상징공간이 될 수 있다고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



1 문호(文湖)	2 하마비(下馬碑)	3 사주(四柱)	4 문묘문(文廟門)
5 입도구(入道區)	6 대중문(大中門)	7 성달구(成達區)	8 규문각(奎文閣)
9 천광정(天光井)	10 진사비정원(進士碑庭園)	11 대성문(大成門)	12 대배장(大拜場)
13 배당(拜堂)	14 대성전(大成殿)	15 태학문(太學門)	16 국자감(國子監)

그림 II-4. 하노이 문묘와 국자감의 배치도

(출처: 김현제 & 이지선, 2022)



그림 II-5. 문묘의 대성전 위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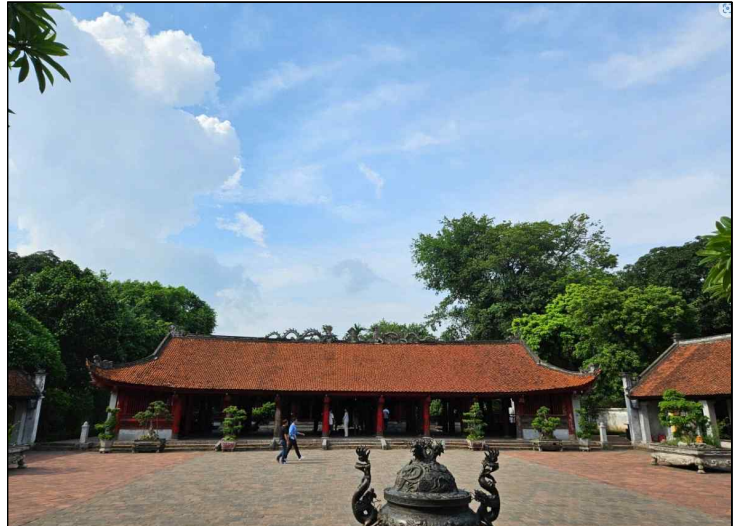


그림 II-6. 국자감과 마당



그림 II-7. 하노이 문묘 대성전의 좌우 건물에서 진행되는 활동





## (2) 베트남 – 타이비 사원 (Thái Vi)

국가	베트남	
위치	닌빈	
시대	Tran dynasty	
구분	사원	

- 닌빈 쟁안 경관 단지 내에 있는 타이 비 사원은 쩌 타이 통 왕이 타이 비 사원을 지은 옛 땅에 지어짐. 대로와 용마당은 돌로 포장되어 있으며, 기둥과 트러스가 정교하고 세심하게 조각된 모놀리식 녹색 돌로 만들어진 매우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음. 이 장식들은 마치 나무에 조각된 것처럼 매우 유연하고 생동감이 있음.
- 타이비 사원 축제는 매년 음력 3월 14일과 15일에 호아루현 난하이면 반람 마을 타이비 사원에서 열림. 사원 축제는 크게 기념의식과 축제로 나뉨. 기념의식은 행진과 쩌 왕조에 대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며, 사원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임. 축제에서는 사지춤, 용춤, 인간 체스와 레슬링, 보트 타기와 같은 게임으로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가 진행됨.
- 타이비 사원은 공동체와의 협력 관계에 중심이 되는 사원으로 현재까지 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체에 의해 사원이 잘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됨. 한국의 서원도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에 대한 연혁을 살려 공동체 의식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그림 II-8. 타이비 사원의 입구  
(출처 : Vietnam Discovery Travel 2023)



그림 II-9. 연구진 답사 당시 지역 주민들이 사원에 방문한 모습



## (3) 중국 - 악록서원 (岳麓書院)

국가	중국	
위치	호남성 창사시	
시대	976	
구분	교육기관	
설립자	주동(朱洞)	
관리주체	호남대학교 악록서원 문화연구소	

- 악록서원은 교학, 장서, 제사, 정원, 기념의 5대 건축 구조로 구분됨. 서원주체, 부속 문묘 및 신축된 중국서원 박물관이 있음. 현존하는 건축물의 대부분은 명나라와 청나라 유물이며, 그 옛 건축물은 배치상 중축 대칭 형식을 채택함. 악록서원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잘 보존된 서원 건축군임.
- 남송(南宋), 원(元), 명(明), 청(淸) 각 대를 거쳐 청나라 말 광서(光緒) 29년(1903년)에 이르러 악록서원은 호남성 성도대학당과 합병하여 호남고등학당으로 개편됨. 중화민국 15년 (서기 1926년), 호남고등학당은 정식으로 호남대학(湖南大学)으로 명명되었고, 서원 터를 확장하여 오늘에 이름.
- 백학천과 청풍천에서 함께 발원된 수원은 서원을 거쳐 영귀교 아래 탁청지에 모였다가 상강으로 합류함. 상강과 악록산 사이에 천마산과 봉황산이 상강 나루터에서 악록산으로 이어지는 시각 축선상에 병풍이 됨. 악록서원은 명대(明代) 이미 '좌묘우학'의 배치가 완성되었으며, 현재는 청대(淸代)의 기본 건축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두문에서부터 어서루까지 공간에 주축선을 두고 있고, 본관 건물은 주축선을 따라 대칭으로 배치됨.
- 악록서원의 경우 호남대학교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유산을 관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한국의 서원에 비해 유식의 기능보다 강학과 장서의 기능에 치중하여 서원의 관리 및 관광 방향이 정해진 것이 특징임.



그림 II-10. 관광객으로 인해 애만정(愛晩亭)의 유식 기능이 발현되지 않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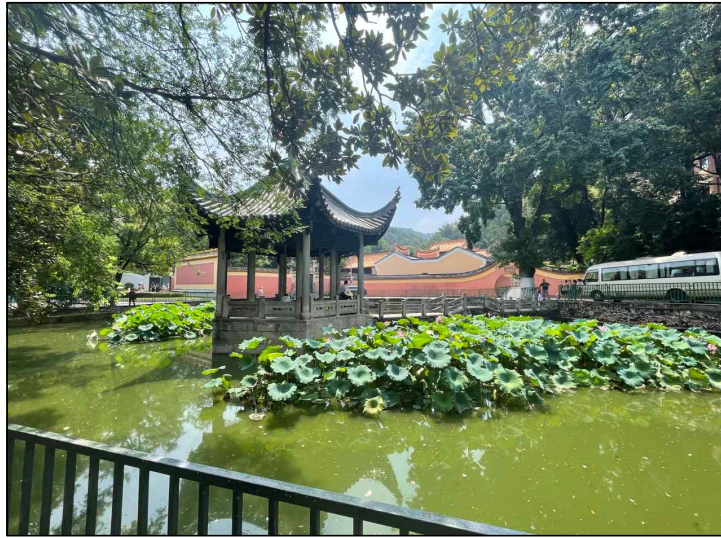


그림 II-11. 악록서원 외부의 취향정(醉香亭)은 서원의 높은 담으로 인해 서원 배치와 연결되지 않는 공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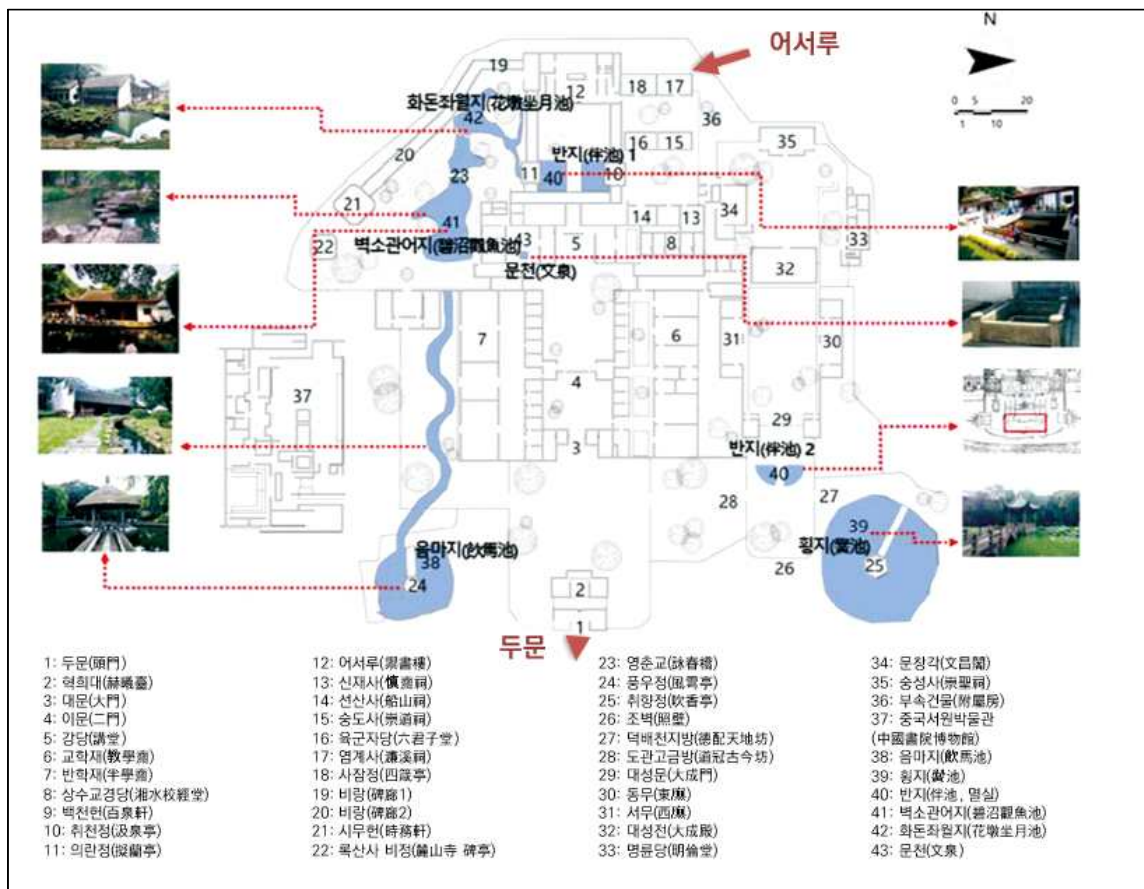


그림 II-12. 악록서원 건축 배치와 수체계  
 (출처 : 마서호 & 노재현 2022를 재구성함)

## (4) 중국 - 백록동서원 (白鹿洞書院)

국가	중국	
위치	강서성 주장시	
시대	940	
구분	교육기관	
설립자	이발(李渤)	
관리주체	구강시 문화재 보호국	

- 백록동서원은 세계유산 문화경관으로 해내제일서원(海內第一書院)이라는 명성을 얻으며 중국 4대 서원의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음. 백록동서원, 호남성 창사의 악록서원, 허난성 상구의 응천서원, 허난성 등봉의 숭양서원과 합쳐 '중국 4대 서원'으로 불림.
- 서원의 창시자는 남당(南唐)의 이발(李渤)로 거슬러 올라감. 이발은 흰 사슴 한 마리를 길렀으며 온종일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백록 선생이라고 부른 일화가 있음. 후에 이발은 강주(지금의 구강) 자사(刺史)에 취임하여 옛터를 다시 유람하였는데 이곳에 정자와 누각을 건설하고 샘물을 파고 꽃과 나무를 심어 이곳을 유람명승지로 만들었. 그리고 이곳의 산봉우리가 구멍 모양으로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어 백록동(白鹿洞)이라고 이름 짓게 됨.
- 주회를 모시는 최초의 서원으로, 소수서원에 영향을 미침.
- 한국의 서원과 달리 담이 높고 누가 없으나 경역 밖으로는 오로봉을 바라보는 독대정과 자연을 노래한 각자가 많음.
- 현대에 생긴 주차장으로 인해 마을로부터의 진입로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서원의 입지가 경내에서 경외를 향유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입지의 선택은 한국의 서원과 비교할 점이 있음.
- 백록동서원의 경우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서원과 같이 높은 담으로 인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서원 건축물과의 연계가 한국의 서원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음.
- 서원의 주변에는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문인(주회, 류세양, 립천준, 공욱 등)의 각자 바위(24개)가 다수 존재하며, 시민들이 한국의 옥산서원과 같이 물놀이를 계곡에서 즐기며 휴식을 취함.





그림 II-13. 백록동서원의 관도계(貫道溪)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문객들과 서원 주변의 각자 바위 안내판



그림 II-14. 백록동서원 주변 관도계에 퍼져있는 각자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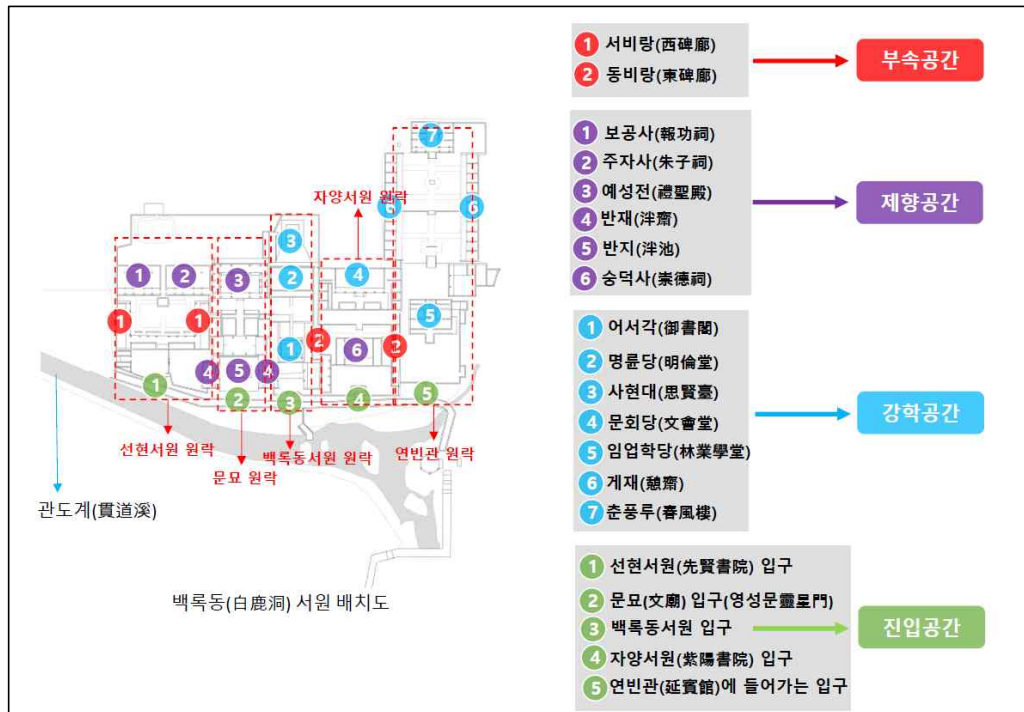


그림 II-15. 백록동서원 배치도

(출처: 한동청 외 2011를 인용하여 재구성)



그림 II-16. 백록동서원 건축 배치와 수체계

(출처: 마서효 & 노계현 2022를 재구성함)



## (5) 중국 - 아호서원 (鵝湖書院)

국가	중국	
위치	강서성 상라오시	
시대	남송(南宋)	
구분	교육기관	
설립자	주희(朱淵)	
관리주체	상요 문화 관광국	

- 아호서원은 상라오옌산현(上饒鉛山縣) 아호진 아호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 장시성4대 서원 중 하나로 면적은 8,000㎡임.
- 아호서원은 일찍이 유명한 문화 중심지였고, 특히 남송의 이학자 주희(朱熹)와 육구연(陸九淵) 등의 아호지회는 중국 유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 성대한 행사가 됨. 육구연은 배움에서 도덕 함양을 가장 우선시했고, 주지는 독서 등 학문을 통해 만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논쟁이었음.
- 서원은 남송(南宋)부터 청나라(清代)까지 800여 년 동안 몇 차례 병파되고 또 몇 차례 재건됨. 그중 청(淸) 강희(康熙) 56년(1717)의 정비와 증축공사 규모가 가장 큼.
- 강희 황제는 어서루의 글씨를 써서 증축 공사를 지원하였음. 서원은 수백년을 거쳐 풍모가 여전하고 구도가 완전하며 원상이 보존되어 있으며 서원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임.
- 아호산은 옌산현경내 남동쪽 무이산(武夷山) 분수관(分水關)에서 발원하며, 최고봉 아호봉정상에서는 신강(信工)이 조망됨. 산정에 있는 호수는 수면 폭이 60,000㎡에 달하며, 호수에 연이 많아 연호(蓮湖)로 불리었으나, 후에 동진(東晉) 공씨(龔氏)가 거위를 많이 키워 ‘아호(鵝湖)’로 개칭함.
- 서원과 아호마을은 모두 산속 분지에 있어 외부와 연결된 진입로는 북쪽의 길고 좁은 오솔길뿐임. 서원은 북쪽을 향하며, 호산(虎山)을 등지고 동쪽으로 상산(象山)이, 서북쪽에는 사산(獅山)이 있음.
- 아호서원 바로 왼쪽에 도교 사원인 아호사가 있으며, 서원이 아호사와 불탑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호마을 및 아호사와 관련이 깊었을 것으로 추정됨.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의 교육과 독서의 기능을 지금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중요함.



그림 II-17. 아호서원의 전경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배치도



그림 II-18. 1744년 당시 아호서원의 모습





그림 II-19. 서원 내부에서 전시되어 있는 서원의 과거 사진



그림 II-20. 아호서원 건축 배치와 수체계  
(출처 : 마서효 & 노재현 2022를 재구성함)



## (6) 중국 - 만송서원 (万松書院)

국가	중국	
위치	절강성 항저우시	
시대	1498	
구분	교육기관	
설립자	-	
관리주체	항주시 원림박물관	

- 만송서원은 서호10경의 하나로 당나라(唐) 정원 연간(785-804)에 세워졌으며 보은사(報恩寺)라고 불림. 그 뒤 명나라(明) 홍치 11년(1498)에 만송서원으로 개칭됨.
- 만송서원은 태화서원(太和書院), 포문서원(敷文書院)으로 불렸는데, 명나라, 청나라(淸) 때 항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래되었으며, 영향이 가장 넓은 문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음. 명나라 왕양명(王陽明) 등 학자들이 이곳에서 강의한 적이 있고, 청나라 강희(康熙), 건륭(乾隆) 두 황제가 남순할 때 각각 절수포문(浙水敷文), 호산추수(湖山萃秀)를 하사함.
- 서원의 주요 건물로는 양성문(仰聖門), 명도당(明道堂), 대성전(大成殿), 육수각(毓秀閣) 등이 있음. 명도당은 서원의 강당으로 중국 역대 과거문화를 보여줌. 대성전에는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공자행교도(孔子行教圖) 벽화가 설치되어 있음.
- 고대 서원에 필수적인 장서, 제사, 강학의 세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재현하고 관광객들이 고대 서원의 교육 형식에 대해 직관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송서원의 건축 양식과 실내 가구 양식은 기존의 것과 매우 유사함. 이는 고대 서원의 풍모를 완전하게 보여주며, 현대 관광산업의 실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만송서원 내부에는 바위나 정자에서 보이는 호수 등 경물을 명명하는 등 경내에서 자연환경을 즐김. 또한 쌍조정, 반지, 완운지, 지당 등 다른 서원에 비해 수체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02년 재건하며 장서, 제사, 강학의 세 가지 기능을 온전히 재현해서 의의가 있음. 특히, 서원에 얹힌 전설을 이용한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현재까지 항저우시에서 중심 서원으로 많은 방문객을 얻고 있음.



그림 II-21. 만송서원의 패방



그림 II-22. 만송서원 주변의 각자 바위





그림 II-23. 만송서원의 배치도



그림 II-24. 만송서원 건축 배치와 수체계

(출처 : 마서호 & 노재현 2022를 재구성함)

### 3) 국외 교육 유산과 비교한 한국 서원의 특징

- 한국의 서원은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의 전통 유학 교육시설과 같이 ‘궁자’의 제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선현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에 특징이 있음.
- 또한, 내부지향적인 중국의 서원과 달리 한국의 서원은 자연 속에서 유식 공간을 주요 요소로 생각하여 서원 공간의 배치 구성을 달리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의 서원은 주변 산세와 계곡, 하천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됨.
- 자연의 소리나 빛을 그대로 체험하는게 한국의 서원 특징이라면 중국의 서원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정원을 통해 자연을 경험함.
- 중국의 서원은 입구에 패방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서원은 패방이 아닌 ‘누각’을 두어 주변 경관의 조망권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있음. 이는 경관이 중요한 서원의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한국 서원의 특징임.
- 베트남의 하노이 문묘와 중국의 백록동서원, 아호서원을 살펴보면 강학공간으로 접근하기 까지 큰 담이 구획을 나누고 있음. 이는 강학의 공간과 외부 공간의 차이를 두는 배치적 요소임.
- 반면에, 한국의 서원은 주변 자연과 지형지물에 맞춘 공간의 배치 탓에 서원의 담장이 다른 유산 교육기관에 비해 높지 않은 특징이 있음.
- 주의해야 할 부분은 도산서원 등 일부 서원이 성역화 사업 당시 담장이 높아져 과거 한국 서원의 경관과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중국의 무이정사가 건립되면서 소수서원 이후에 조선시대에 건립된 한국의 서원은 균일적인 배치를 따르고 있는 것이 한국의 서원이 가지는 특이성으로 각 서원 간의 배치 구조를 통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공동체와 선현과의 관계가 서원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III. 기초 자료 조사 분석

---

1.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서원의 경관 가치 개관
2. 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기준과 지침 분석
3. 선행연구 조사 분석



## III. 기초 자료 조사 분석

### 1.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서원의 경관 가치 개관

####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상의 한국의 서원 가치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성리학에 기반한 한국 사회 문화 전통의 특출한 증거로 가치가 인정됨. 특히,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이 나타남.
- 서원은 선현의 뜻을 기리며 모시는 제향, 사림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 후속 세대의 학문적 양성을 기본 목표로 하는 강학, 해당 지역의 지성 활동을 선도하는 교류(네트워크)와 유식의 기능을 갖춘.
-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던 성리학이 지역화되고 변형된 독특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줌.
- 특히, 각 9개 서원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 및 주변 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서원 주변의 경관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중요한 부분은 모두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의 서원은 등재 기준 Ⅲ(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전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 일 것)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됨.
- 서원의 입지와 건축물의 배치는 성리학의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창조되었음.

#### 2) 이코모스 질의서 상의 한국의 서원 가치

- 이코모스 2차 질의서는 ‘경관과 원거리 시야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지적하였음.
- 한국의 서원이 성리학의 가르침과 관습의 일부로 서원의 주변 경관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건물뿐만 아니라 산과 같은 먼 거리의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당사국이 원거리의 경관적 요소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지, 이를 공식화하고 있는지, 그러한 연결 부분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기를 원함.
- 당시, 질의서의 답변으로는 서원별 주요 경관 요소와 법적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답변으로 보이는 전망 경관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첨부하였음.

- 이코모스의 경관과 원거리 시야의 보호에 대한 질의 내용처럼 각 서원별 경관 요소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서원의 전망 경관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서원과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관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서원별 경관 요소가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속하고 있는지, 서원과 연관되어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III-2. 이코모스의 질의서에 따른 경관관련 답변 내용

구분 서원		완충구역 내 자연환경 요소 (문화재보호법 및 환경 관리법)					완충구역 외 자연환경 요소 (지자체 관련법 및 환경 관련법)		
		경관요소					경관 요소		
		산(가시권 내)		강/계곡	들판	마을	산 (산지관리법)	강/계곡 (한천법)	들판 (농지법)
		앞산	뒷산						
1	소수서원	연화산	영귀봉	죽계천	주변 농지	-	연화산 (가시권 외) -영주시-	죽계천 -영주시-	-
2	남계서원	-	송안산	남계천	주변 농지	-	당산(1.3km) -함양군-	남강 -함양군-	농지 -함양군-
3	옥산서원	자옥산	어래선	자계천	주변 농지	-	자옥산 (가시권 외) -경주시-	자계천 -경주시-	-
4	도산서원	-	도산	낙동강	주변 농지	-	삼각산(1.3km) -안동시-	낙동강 -안동시-	농지 -안동시-
5	필암서원	-	증산	문필천	주변 농지	-	삼봉(1.4km) -장성군-	-	농지 -장성군-
6	도동서원	개구리섬	대니산	낙동강	주변 농지	-	제석산(3.1km) -달성군-	낙동강 -달성군-	-
7	병산서원	병산	화산	낙동강	-	-	병산 (가시권 외) -안동시-	낙동강 -안동시-	-
8	무성서원	-	성황산	필수천	주변 농지	무성리	시산(1.1km)	칠보천 -정읍시-	농지 -정읍시-
9	둔암서원	-	고정산	-	주변 농지	-	주산(2.5km) -논산시-	연산천 -논산시-	농지 -논산시-

(출처 :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내 이코모스 추가질의 2차 보완자료)

### 3) 등재결정문 상의 한국의 서원 가치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그 교육과 사회적 관습은 많은 부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음.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인 증거임.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도로, 수목과 시야 내 경관 등 인접 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 요소를 의미함. 해당 유산의 이들 속성은 전반적으로 그 상태가 우수하며, 유산에 압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인 개발과 총해, 화재, 지진과 방문객 문제 등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유지. 그 활용과 기능, 전통은 대부분 그간 지속되어 온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축소됨. 서원의 위치와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 서원의 위치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선현과의 연관성이고, 두 번째 요소는 경관으로, 서원은 자연 감상과 심신 단련을 위해 산과 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함. 특히 사방이 뚫린 누각과 같은 건물은 그러한 경관과의 연결을 더욱 원활하게 함. 학자들은 성리학 고전과 문학작품을 공부했으며,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음.
- 등재신청서 상의 내용을 통해 경관이 한국의 서원이 가진 가치의 일부로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관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서원 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가능할 수 있음.

#### 4) 한국의 서원 경관 가치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서에서는 서원이 위치하는 지역의 지성 활동을 선도하는 교류(네트워크)와 유식의 기능을 한국의 서원이 가진 주요한 가치 중 하나로 보아 교류와 유식 공간도 유산의 완전성을 이루는 요소라고 분석함.
- 특히, 서원 유산에 대해서 경역 내의 건축물뿐 아니라, 원래의 지형과 주변 환경에서도 진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보존과 관리를 위해 서원의 경관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함께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도 강조하였음.
- 이코모스 질의서 상에서도 경관과 원거리 시야의 보호를 지적한 것은 서원 유산에서 경관이 세계유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주요 가치 속성임을 반증함.
- 따라서 서원의 경관 요소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서원 관리에서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서원의 경관에 대한 이해와 관리 지침, 경관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함.
- 이는 단순히 서원을 경관 조망점으로 설정하여 보이는 물적 경관뿐만 아니라, 서원과 역사적, 학술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관 요소를 포괄함.
- 2021년에 시행된 한국의 서원 정기보고에서 서원의 속성은 ‘한국 서원의 교육체계 및 제향’, ‘서원의 입지 및 배치’, ‘서원의 경관’, ‘서원의 건축물’ 4가지로 제시됨.

## 2. 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기준과 지침 분석

### 1) 개요

-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과 국가유산으로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에 대한 정기보고와 모니터링, 대응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국가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은 정기점검, 정기조사, 문화재돌봄사업에 의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대상이 됨.
- 문화재청은 서원의 관리를 위해 2010년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2018년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을 문화재청 훈령으로 제정하였음.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이전에 9개의 서원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2012년에는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담당공무원, 보존전문가 및 관련 업체가 서원의 경관 특징을 잘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게끔 함.
- 기존의 경관 보존 및 관리 기준과 지침을 통해 한국의 서원 경관 관리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안 도출을 위해 분석이 요구됨.
- 그리고 세계유산협약 권고사항과 국내법상 경관 보존관리 체계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서원의 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 구조를 파악하고자 함.

### 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1) 정기보고

-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에 대한 정기보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산의 관리를 맡고 있는 당사국이 자체 보고 과정을 말한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정기보고 과정을 조정하고 촉진하며, 정기보고에 대한 추가적인 전문가 조언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보고의 목적은 1) 당사국의 세계유산협약 적용에 대한 평가 제공, 2)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유지 평가, 3)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산의 보존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최신 정보 수록, 4) 협약 이행과 세계유산 보존에 대한 당사국 간 지역 협력과 정보 및 경험 교환을 위한 메커니즘 제시임.

#### (2) 모니터링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132항 6(Monitoring)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존 조치와 심사의 주기성, 심사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 (3) 운영지침 이행을 위한 한국의 서원 통합 모니터링 연구

- 한국의 서원이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9개 서원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에 관한 권고를 내림.
- 이에 따라 서원을 위한 통합모니터링 지표가 개발되었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됨.
- 해당 연구는 모니터링의 지표를 일반지표, 핵심지표, 특수지표로 나누고 있는데, 1) 일반지표는 신청 유산의 일반관리, 주변 환경, 관광시설 분야, 2) 핵심지표는 신청 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인 자연재해, 화재, 환경 압력 분야, 3) 특수지표는 신청유산의 물리적 형태(부동산 문화재)뿐 아니라 무형적 요소(동산 문화재)까지를 포함함.
- 각 지표에서 서원의 경관에 관한 사항은 일반지표의 주변 환경(경관 침해 요소, 배수 상태, 쓰레기 처리와 위생)이 있으며 핵심지표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서 자연재해가 해당됨.
- 또한, 특수지표는 경관 및 주변 환경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구분하여 경관과 주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

표 III-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모니터링 지표

구분	일반지표	핵심지표	특수지표
모니터링 대상	신청유산에 대한 일반관리, 주변환경, 관광시설 분야	신청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인 자연 재해, 화재, 환경압력 분야	신청유산의 물리적 형태(부동산 문화재)뿐 아니라 무형적 요소(동산 문화재)까지도 포함
모니터링 주체	서원(고직사) 관리인과 문화재안전경비원	서원(문중, 유림) 및 관리사무소,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같은 관리자	분야별 전문가
모니터링 주기	매일(1일)	분기별(3개월)	반기별(6개월)

(출처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9)

표 III-4. 서원 모니터링 핵심지표

구역	영향요소	지표항목	주체	주기	결과
유산구역	자연재해	지형이 손상된 곳이 있는가?	서원(문중 및 유림) + 관리사무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정기 (분기별)	y/n
		하천이나 수로의 수위 변화가 있는가?			y/n
		홍수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가?			y/n
완충구역	자연재해	지형이 손상된 곳이 있는가?			y/n
		하천이나 수로의 수위 변화가 있는가?			y/n
		홍수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가?			y/n

(출처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9)

표 III-5. 서원 모니터링 일반지표 중 일반관리와 주변환경

분야	지표항목	주체	주기	결과
일반관리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서원(교직사) 관리인 + 관리사무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상시 (매일)	y/n
	재난 및 재해관련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y/n
	화재 발생 시 행동 조치요령에 대한 안내가 있는가?			y/n
주변환경	경관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y/n
	외부지역으로부터의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			y/n
	쓰레기 처리와 쓰레기통 주변 위생은 청결한가?			y/n
	문화재 구역내 방치된 물건은 없는가?			y/n

(출처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9)

표 III-6. 서원 모니터링의 특수지표 중 경관 및 주변 환경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분류	구분	체크리스트 범주	주체	주기
경관	자연경관	지형의 손상 여부	분야별 전문가 (건축, 조경, 문화재 등)	정기 (반기별)
		자생수림의 보존상태		
		고사한 수목 여부		
		기타		
	인공경관	미관을 해치는 옹벽 여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과 구조물 여부		
		미관을 해치는 절토, 성토, 사면 여부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하거나 돌출되는 색상 존재 여부		
		기타		
주변환경	시설물	담장 및 석축 안전 여부		
		문화재 주변 시설물 훼손 여부		
		기타		
	식생	소나무 군락의 병충해(재선충) 또는 훼손 여부		
		관람객 동선의 침해 여부		
		기타		
	조망	돌출 요소 여부		

(출처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9)

### 3) 국내법상 경관 보존관리 체계

#### (1)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2010)

- 보존 정비에 치우쳐 있는 기존 지침이나 매뉴얼 형태에서 벗어나 서원의 인문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한 전통 의례와 강학 전통 등의 무형자료 및 전적·고문서·목판·금석문 등의 유형자료, 서원의 풍광 등에 대한 조사를 강조함.
- 건축물 위주의 보수·정비뿐 아니라 서원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역사적 가치의 보존 및 관리를 지향함.
-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은 서원 경관의 입지적 특성을 1) 입지 경관, 2) 전망 경관, 3) 전저후고의 위요 경관, 4) 위계적으로 분절된 예 경관, 5) 연못 경관, 6) 안마당(중정) 경관, 7) 수목식재 경관, 8), 서원 주위 자연적 장소 경관으로 나누어 해독했음에 의의가 있음.
- 이는 향후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의 경관 관리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서원의 경관 보존관리체계의 주요한 맥락을 차지하게 됨.
- 이처럼 서원의 관리에서 경관을 건축물의 가치만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원의 관리 및 활용은 1)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2) 서원 건축물관리, 3) 고문서(서적)의 보존관리, 4) 경관 보존관리, 5) 자료의 보존관리, 6) 제한을 통한 보존, 7) 서원 보존관리대장 기록, 8) 서원 건축물 안전 점검으로 나누어 기술함.
- 경관의 보존관리는 자연 지형의 원형 보존, 서원 내 절제된 장소 조성 및 지원 시설의 배치, 전저후고의 경사지형과 개방적 조망 경관 보호, 진입 경관의 원형 유지, 대칭적 경관 조성 주의, 중정의 수목 식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음.
-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은 서원 경내와 내부에서 바라보는 조망 경관을 주요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서원의 배치 형태를 통합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각 서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과 지형을 고려한 한국 서원의 특징을 존중하는 것이 요구됨.

#### (2)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2013)

-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상황에서 서원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서원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디자인을 소개하여 담당 공무원 및 보존 전문가, 업체들이 서원 관리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책자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서원의 경관적 특성을 1) 자연에 기인한 입지경관, 2) 서원의 전저후고, 3) 전망경관, 4) 내부의 다양한 경관 요소로 기술함.
- 가이드라인에서의 경관이란 서원 경내와 담장 바깥의 근거리 주변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의 공공시설물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고자 함.
- 따라서 과업의 디자인 개발 범위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안내시설, 편의시설, 조명시설, 안전시설, 기타시설)

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의 과업인 넓은 범주와 인문, 문화경관과는 경관에 대한 접근 방식과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경관관리를 시도한 점에서 참고할 수 있음.

### (3)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2018)

- 서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단체 및 문화재 보수업자의 점검·보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문화재청훈령 지침임.
- 제2장 제8조(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경관 자료 조사의 범위로 입지, 전망, 경관요소로 나누고 있음. 1) 입지 관련 자료는 ① 연원과 이동과정, ② 입지 지형유형과 형국, 2) 전망 관련 자료는 ① 문루 강당 기문 및 관련 인물의 시문에 나타난 경관의미 해석, 3) 경관요소 관련 자료는 ①위요경관의 구성, ② 진입로 구성의 특성, ③ 축선과 대칭구조의 특성, ④ 건축물의 명칭과 의미, ⑤ 연지와 내외 수로(구거) 특성, ⑥ 안바당의 경관구성, ⑦ 수목식재 특성, ⑧ 서원 주변 장소 경관과 관련 시문임.
- 제6장 제28조(서원 경관의 보존)에서 서원 경관의 보존 관리를 위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서원 경관의 보존 관리시 유의사항으로는 2010년에 작성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음.
- 2010년에 작성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을 참고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경관 보존 조항은 시대에 따른 경관의 이해 및 해석의 변화 고려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경관의 개념을 고려하여 서원 경관의 보존 관리 방법을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표 III-7. 한국의 서원 경관 관련 관리지침

구분	정기보고	정기점검	정기조사	기초조사를 통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모니터링
시기 (최근 집행 연도)	6년 (2021년)	1년 (2022년)	3~5년 (서원별 상이)	10년 (서원별 상이)	상시
주체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지방자치단체	용역사 (연구원 등)	관리 단체	지방자치단체,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주요 내용	세계유산보존현황, 관리, 거버넌스, 시너지효과,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개발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존관리,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 연구, 재정, 관광 및 방문객, 도면, 현황사진	총괄사항, 보존사항, 관리사항	제향인물, 역사문화, 건축문화, 경관, 무형의 의례와 구비전승, 입지와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관리계획, 화재관리, 문화재 일반점검, 관광시설, 식생 동사문화재, 경관 및 문화재 점검, 지속가능한 관광
경관 관련 내용 또는 요소	공업지역 (남계), 해설 및 방문시설 (필 암), 지상 운송 기반시설 (도동, 병산), 물 기반시설 (옥산, 도산, 병산, 돈암), 주요 선형설비 (돈암)	1. 서원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 2. 서원내 주요 건축물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시설과 배면의 배수 상태 4. 서원내 시설물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 상태 6. 안내판 등 보호 및 홍보 시설 7. 낙석 및 유실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 8. 누수가 발생하고 있 는 곳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10. 지형 및 지반에 관 련된 침하 또는 붕괴 우 려 지역에 대하여 점검	옹벽·담장, 배수시 설, 주변수목, 주변건 물, 보호각·보호시설	1. 입지 : 연원과 이동 과정, 입지 지형 및 형 국 2. 전망 : 문루 강당 기 문 및 관련 인물의 시문 에 나타난 경관 의미 3. 경관 요소 : 위요경 관의 구성, 진입로 구성 의 특성, 축선과 대칭구 조의 특성, 건축물의 명 칭과 의미, 연지와 수로 (구거)특성, 안마당의 경 관 구성, 수목식재 특성, 서원 주변 장소 경관과 관련 시문	주차장 확보, 관람로, 안내표지판, 병해충, 수목,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문 화재 훼손, 소음, 관 광객으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
국내법상 근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 지침 제16조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 지침 제2장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 지침

(출처: 각 지침을 참고하여 재구성)

### 3. 선행연구 조사 분석

#### 1) 한국의 서원 선행연구

##### (1) 소수서원

- 소수서원은 입지 환경과 경관 요소 위주의 연구가 진행됨.
- 입지 환경에 대한 연구로 조인철(2019)은 백록동서원과 소수서원의 건립배경과 건립지 주변의 자연환경, 건물의 배치 등을 비교하였고, 정정태(2021)는 서원설립의 배경과 사림의 정치적 성장, 소수서원의 연혁과 건축물의 배치에 대해 연구하였음.
- 박정혜(2014)는 풍수적 환경론에 바탕을 둔 소수서원 입지의 특징을 연구하였고, 경관 요소에 대한 연구로는 강관권(2022)은 소수서원에 대한 생태적 분석을 통한 생태관광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서경원, 한동수(2020)는 양택과 음택의 배치개념과 풍수지리원리로 소수서원을 분석한 바 있음.

표 III-8. 소수서원 선행연구 분석

서원	제목	년도 / 저자	경관유형	주요내용
소수서원	소수서원(紹修書院) 입지환경(立地環境)과 풍수(風水)	2014 박정혜	경관 조사분석 (입지 환경)	풍수적 환경론에 바탕을 둔 소수서원 입지의 특징 연구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의 비교고찰: 건립배경과 자연환경의 풍수적 특성을 중심으로	2019 조인철	경관 조사분석 (입지 환경)	한국과 중국 각 서원의 시작인 백록동서원과 소수서원의 건립배경과 건립지 주변의 자연환경, 건물의 배치 등을 비교
	음택(陰宅)의 개념으로 분석한 소수서원의 배치연구	2020 서경원, 한동수	경관 해석 (경관 요소)	양택과 음택의 배치개념과 풍수지리원리로 소수서원을 분석하여 질서정연한 배치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밝힘.
	사찰에서 꽃핀 조선조 최초 사학(私學) 소수서원	2021 장정태	경관 조사분석 (입지 환경)	서원설립의 배경과 사림의 정치적 성장, 소수서원의 연혁과 건축물의 배치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의 생태와 생태관광 연구	2022 강관권	경관 보존관리 (경관 요소)	소수서원에 대한 생태적 분석을 통한 생태관광의 개선 방안 제시

##### (2) 남계서원

- 남계서원은 입지 환경과 경관 요소 위주의 연구가 진행됨.
- 노재현과 신상섭(2009)은 남계서원의 공간 및 시각구성상에 내재된 형식미와 의미 파악을 통해 서원 조영에 담긴 경관차임 원리풀이를 연구하였고, 최종희 등(2013)은 남계서원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보호구역 설정과 이에 따른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을 제안함.



표 III-9. 남계서원 선행연구 분석

서원	제목	년도 / 저자	경관유형	주요내용
남계서원	치(置)와 화(和)의 개념으로 분석한 남계서원의 경관짜임	2009 노재현, 신상섭	경관 해석 (경관 요소)	남계서원의 공간 및 시각구성상에 내재된 형식미와 의미 파악을 통해 서원 조영에 담긴 경관짜임 원리 풀이
	세계유산 등재대상 함양 남계서원의 경관보존관리방안	2013 최종희, 문영숙, 김동현	경관 보존관리 (입지 환경)	남계서원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보호구역 설정과 이에 따른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 마련

### (3) 옥산서원

- 옥산서원은 입지 환경, 경관 요소, 지역 공동체, 문화적 상징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음.
- 입지 환경에 대한 연구로 이수환(2014)은 조선시대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인 옥산서원과 그 제향자인 이언적 가문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병훈(2020)은 조선시대 옥산서원의 위상 변화에 대해 연구함.
- 경관 요소에 대해서는 옥산서원에 대한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각 건물의 영조척 분석을 통해 옥산서원의 배치 형태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였음(유인호, 2005; 유인호, 하현정, 2012).
- 지역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손병규(1999)와 이병훈(2023)은 서원재정의 경제적 기반과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토지재정의 구조와 운영을 살펴보았음.
- 이병훈(2017)은 옥산서원 소장 통문을 중심으로 영남지역 향촌사회의 동향을 개관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옥산서원이 가지는 위상을 연구하였음.
- 또한 김영나(2021)는 18세기 옥산서원의 여러 사료를 이용하여, 서원노비의 규모, 거주 지역, 나이, 혼인과 자녀 등을 연구하였음.
- 특히, 문화적 상징에 대해서는 평홍쉬와 강태호(2018)는 옥산구곡의 위치와 경관해석에 대한 연구를 하였음.

표 III-10. 옥산서원 선행연구 분석

서원	제목	년도 / 저자	경관유형	주요내용
옥 산 서 원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1999 손병규	경관 해석 (지역 공동체)	서원재정의 운영실태와 토지재원의 구조와 운영
	옥산서원의 배치형태에 관한 연구	2005 유인호	경관 조사분석 (경관 요소)	옥산서원에 대한 실측조사와 건물의 영조적 분석을 통해 옥산서원의 배치형태에 관한 특성 파악
	옥산서원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2012 유인호, 하현정	경관 조사분석 (경관 요소)	옥산서원에 대한 실측조사와 각 건물의 영조적 분석
	경주 옥산서원의 경관보존관리방안	2013 최종희, 한병권, 문영숙, 김동현	경관 보존관리 (입지 환경)	옥산서원의 유산 가치를 구명하기 위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보호구역의 설정 및 이에 따른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마련
	옥산서원과 여주이씨	2014 이수환	경관 조사분석 (입지환경)	조선시대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인 경주의 옥산서원과 그 제향자인 이언적 가문에 대해 검토
	주의집중 피로회복이론의 장으로 본 경주 옥산서원 강학 및 유식공간의 일원적 공간성	2016 탁영란, 성종상, 최종희, 김순애, 노재현	경관 보존관리 (사회적 의미)	Kaplan & Kaplan의 주의집중회복이론틀을 바탕으로, 서원의 강학 및 유식공간 구성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표적 전통 교육기관에서의 ‘공부’와 ‘쉽’, 공간에 대한 기호학적 의미체계로서의 일원적 연계성 연구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2017 이병훈	경관 해석 (지역 공동체)	옥산서원 소장 통문을 중심으로 영남지역 향촌사회의 동향의 개관 및 그 속에서 옥산서원이 가지는 위상을 연구
	경주 옥산구곡(玉山九曲)의 위치비정과 경관해석 연구 – 이정업의 「옥산구곡가」를 중심으로	2018 평홍취, 강태호	경관 해석 (문화적 상징)	옥산구곡의 위치와 경관해석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경주 옥산서원의 위상 변화	2020 이병훈	경관 조사분석 (입지 환경)	초창기 경주지역 수원(首院)으로서의 위상 정립, 17~18세기 중반의 위상 유지 노력, 18세기 후반 영남의 대표 서원으로의 위상 제고
	18세기 옥산서원 노비의 양상	2021 김영나	경관 해석 (지역 공동체)	18세기를 중심으로 옥산서원 노비의 규모, 거주 지역, 나이와 신공, 혼인과 자녀 등을 연구
	경주 옥산서원의 설립과 재정 운영	2023 이병훈	경관 해석 (지역 공동체)	옥산서원의 설립 과정, 경제적 기반과 운영 실태

## (4) 도산서원

- 도산서원은 입지 환경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퇴계와 많은 관련이 있음.
- 퇴계의 서원관, 자연관, 사상, 풍수적 안목을 분석하고, 도산서원의 입지, 배치, 건축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음(이승우, 2008; 이상해, 2001; 차장섭, 2015; 전성하, 2019).
- 김연호(2008)는 퇴계의 사유의 일면을 엿보고, 도산서당의 입지를 고찰해보며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배치를 비교하였음.
- 최주희(2020)는 대구경북지역 서원의 현황과 특징,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있어서 한국국학진흥원의 역할과 그 인근이 자리한 도산서원과의 네트워크, 서원자료의 발굴·보존과 국역서 간행과 전시, DB 구축 및 콘텐츠를 제시함.

표 III-11. 도산서원 선행연구 분석

서원	제목	년도 / 저자	경관유형	주요내용
도 산 서 원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2001 이상해	경관 해석 (입지 환경)	퇴계의 서원관에 따른 서원 건립과 입지
	도산서당(陶山書堂)의 입지(立地)와 도산서원(陶山書院)의 배치(配置)에 대한 고찰	2008 김연호	경관 해석 (입지 환경)	도산서당의 입지를 고찰해보며 퇴계의 사유의 일면을 엿보고,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의 배치와 비교
	도산서원의 공간위계와 건축문화	2008 이승우	경관 해석 (입지 환경)	퇴계의 건축 조영의식을 파악하고, 도산서당을 비롯한 3채의 건축물과 퇴계 사후의 후손들에 의해 조영된 도산서원을 비교하여 퇴계의 건축관과 조선 중기 서원건축 문화 파악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정치(政治), 사회적(社會的) 역할(役割)과 위상(位相)	2015 차장섭	경관 해석 (입지 환경)	도산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정치, 사회적 역할
	도산서원의 풍수지리적 특성 연구	2019 전성하	경관 해석 (입지 환경)	퇴계의 풍수적 안목과 자연관, 자연철학, 퇴계의 사상을 이해하고 풍수적인 관점에서 도산서원의 입지를 분석
	대구·경북 지역의 서원과 활용 방안	2020 최주희	활용	대구 경북지역 서원의 현황과 특징,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있어서 한국국학진흥원의 역할과 그 인근이 자리한 도산서원과의 네트워크, 서원자료의 발굴·보존과 국역서 간행과 전시, DB 구축 및 콘텐츠를

## (5) 필암서원

- 노재현 등(2014)은 필암서원의 입자·형국·풍수지리 등 장소성에 담긴 의미경관적 요소와 서원배치에 따른 시기·각적 공간구성에 담긴 미학성을 독해하였음.
- 조상순(1998)은 총 13권의 필암서원지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필암서원 등 실체적인 대상물에 대한 사료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음.
- 조상순과 이상해(1998)는 필암서원의 건축 변화 과정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서원건축의 공간과 배치 형식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재조명함.

표 III-12. 필암서원 선행연구 분석

서원	제목	년도 / 저자	경관유형	주요내용
필 암 서 원	필암서원연구(筆巖書院研究) -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1998 조상순	경관 해석 (사회적 의미)	총 13권의 필암서원지의 내용을 통해 문헌이 제시하는 근거를 가지고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필암서원 등 실체적인 대상물에 대한 사료적 접근을 시도
	필암서원 건축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1998 조상순, 이상해	경관 조사분석 (지역 역사)	필암서원의 건축 변화 과정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서원건축의 공간과 배치 형식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재조명
	경관적 재구성을 통한 ‘장성 필암서원’ 경관짜임의 讀解	2014 노재현, 허준, 최종희	경관 해석 (입지 환경)	장성 필암서원의 입자·형국·풍수지리 등 장소성에 담긴 의미경관적 요소와 서원배치에 따른 시기·각적 공간구성에 담긴 미학성 독해

## (6) 도동서원

- 김덕현(2017)은 도동서원 경관에 영향을 미친 성리학 사상과 제향인물인 김굉필을 연구하여 한국 서원 경관의 상징성을 해석하고자 하였음.
- 노재현과 신병철(2012)은 도동서원의 경관상을 지배하고 있는 형식미와 내용미를 7개의 경관짜임 항목을 기준으로 도동서원 조형에 담긴 중용의 미를 하였고, 최종희(2019)는 도동서원의 토지 소유권, 보호구역 지정, 보호대책의 시행 수단, 모니터링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

표 III-13. 도동서원 선행연구 분석

서원	제목	년도 / 저자	경관유형	주요내용
도동서원	중용(中庸)의 미학으로 살핀 도동서원(道東書院)의 경관짜임	2012 노재현, 신병철	경관 해석 (경관 요소)	도동서원의 경관상을 지배하고 있는 형식미와 내용미를 터잡기, 길내기, 건물농기, 시선모으기, 담두르기, 이름붙이기, 꾸미기 등 총 7개의 경관짜임 항목을 기준으로 도동서원 조형에 담긴 중용의 미를 탐구
	도동서원 경관에 재현된 성리학의 정신세계	2017 金德鉉(Kim Duk Hyun)	경관 해석 (사회적 의미)	도동서원 경관에 영향을 미친 성리학 사상과 제향인물인 김굉필을 연구하여 한국 서원 경관의 상징성을 해석
	세계유산 도동서원의 경관 보존·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019 Choi, Jong-Hee	경관 보존관리 (경관 요소)	도동서원의 토지 소유권, 보호구역 지정, 보호대책의 시행수단, 모니터링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경관보존 및 관리방안 마련 (문화적 맥락, 수월루의 전망경관, 유산에 적합한 모니터링과 체크리스트)

## (7) 병산서원

- 병산서원은 주로 경관 요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
- 이경근(2022)은 병산서원의 차경 기법이 산수화의 형상화 기법이나 산수화의 투시도법과 같이 성리학자들이 기대하던, 성리학적으로 이념화된 환영을 촉발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차경이 선사하는 '그림'에 성리학적 맥락을 부여하고, 차경이라는 '액자'를 성리학적 수양의 도구로 기술하였음.
- 최종희(2007)는 병산서원 일원의 경관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능론적 연구단계로 조영실제, 입지, 공간구성을 고찰함.
- 박현아와 윤재은(2019)은 병산서원의 시지각적인 특성을 현상학적 공간요소로 상관성을 밝히고, 병산서원에서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 특성을 연구함.

표 III-14. 병산서원 선행연구 분석

서원	제목	년도 / 저자	경관유형	주요내용
병산서원	병산서원(屏山書院)의 입지(立地)와 공간구성(空間構成)에 관(關)한 연구(研究)	2007 최종희	경관 조사분석 (경관 요소)	병산서원 일원의 경관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능론적 연구단계로 조영실제, 입지, 공간구성을 고찰
	병산서원에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 특성 연구	2019 박현아, 윤재은	경관 조사분석 (경관 요소)	병산서원의 시지각적인 특성을 현상학적 공간요소로 상관성을 밝히고, 병산서원에서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 특성 도출
	“그림 같은 풍경”의 재해석 - 병산서원 차경 설계의 수양론(修養論)적 해석	2022 이경근	경관 해석 (경관 요소)	병산서원의 차경 기법이 성리학적으로 이념화된 환영을 촉발함을 주장. 이를 바탕으로 차경이 선사하는 '그림'에 성리학적 맥락을 부여하고, 차경이라는 '액자'를 성리학적 수양의 도구로 기술

## (8) 무성서원

- 박정민(2020)은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고현내 일대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서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그리고 무성서원의 연혁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박정민, 2020). 또한, 칠광(七狂)과 십현(十賢)의 성격과 칠광도의 작성 배경, 이를 통한 1900년대 초반 전라북도 태인군 고현내의 경관을 검토하였음.
- 박성진(2020)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구비 요건과 서원의 특징 및 OUV와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방향과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음.
- 김정문(2006)은 무성서원과 관련된 유적의 모습을 원형대로 정비하고 보존하여 선인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교육 및 문화경관 창출을 제시하였고, 진성수(2019)는 무성서원원지의 「원규」 내용을 분석하여 향학의 중심지로서 무성서원의 강화활동과 특징을 살펴봄. 이를 통해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의의를 재조명하고 향후 보존 및 활용방안을 검토함.
- 추가로 경관 요소에 대한 연구로 최만봉(2004)은 무성서원의 위치와 건물배경, 기능, 시설 및 배치를 고찰하고, 최치원의 업적에 대해 연구함. 이해준(2020)은 무성서원의 창건과 역사, 유산 특성과 가치에 대해 고찰함.

표 III-15. 무성서원 선행연구 분석

서원	제목	년도 / 저자	경관유형	주요내용
무성서원	무성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2004 최만봉	경관 조사분석 (경관 요소)	무성서원의 위치와 건물배경, 기능, 시설 및 배치를 고찰
	정읍 무성서원 및 주변지역 정비 복원 기본계획	2006 김정문	경관 보존관리	무성서원과 관련된 유적의 모습을 원형대로 정비하고 보존하여 선인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교육 및 문화경관 창출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원규	2019 진성수	경관 조사분석 (사회적 의미)	무성서원의 성립 과정과 강화 활동을 검토하고, 무성서원원지(武城書院院誌)에 수록된 「원규」 내용을 분석하여 향학(鄉學)의 중심지로서 무성서원의 강화 활동과 특징을 살펴봄.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와 무성서원	2020 이해준	경관 해석 (지역 역사)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와 가치, 무성서원의 창건과 역사, 유산 특성과 가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방향과 활용방안	2020 박성진	경관 보존관리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구비 요건과 서원의 특징 및 OUV,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방향과 활용 방안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2020 박정민	경관 보존관리 (입지 환경)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고현내 일대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서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 제시
	무성서원의 역사문화 활성화 방안	2020 박정민	활용	무성서원의 연혁과 특징, 활성화 방안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 칠광도를 중심으로 -	2020 박정민	경관 해석 (지역 역사)	칠광(七狂)과 십현(十賢)의 성격과 칠광도의 작성 배경, 이를 통한 1900년대 초반 전라북도 태인군 고현내의 경관 검토

## (9) 돈암서원

- 돈암서원은 입지 환경, 경관 요소,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
- 노재현 등(2012)은 돈암서원 구지의 입지 및 경관성과 장소성, 서원 일월의 입지 및 공간구성의 변천과정과 원형경관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였고, 최종희와 문창순(2008)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연산 돈암서원 일대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고찰하였음.
- 최기훈(2022)은 풍수지리적 경험과학적 논리체계를 기반으로 돈암서원의 입지와 공간에 대해 분석하고, 이견 이전과 이후 돈암서원의 공간 내 주요 건축물의 배치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음.
- 김선의(2018)는 세계유산인 돈암서원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서원의 활용에 대해 제안한 바 있음.

표 III-16. 돈암서원 선행연구 분석

서원	제목	년도 / 저자	경관유형	주요내용
돈 암 서 원	연산(連山) 돈암서원(遯岩書院)의 입지(立地)와 공간구성(空間構成)에 관한 연구	2008 최종희, 문창순	경관 조사분석 (입지 환경)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연산 돈암서원 일 대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고찰
	연산 돈암서원(豚巖書院) 구지(舊址)의 원형경관 탐색	2012 노재현, 최종희, 신상섭, 이원호	경관 조사분석 (입지 환경)	돈암서원 구지의 입지 및 경관성과 장소성, 서원 일 월의 입지 및 공간구성의 변천과정과 원형경관 측면 에서 통합적으로 고찰
	세계유산 잠정목록 한국의 서원인 돈암서원의 보존을 위한 활용	2018 김선의	경관 보존관리	세계유산인 돈암서원이 시대적 요구(전통문화의 현대 적 계승 및 활용)에 부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지속가 능한 보존을 위한 서원의 활용에 대한 제안
	돈암서원의 입지와 공간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과 진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2022 최기훈	경관 조사분석 (경관 요소)	풍수지리적 경험과학적 논리체계를 기반으로 돈암서 원의 입지와 공간에 대해 분석하고, 이견 이전과 이 후 돈암서원의 공간 내 주요 건축물의 배치에 대해 비교분석

## (10) 서원 전반

- 이종우(2018)은 조선시대에 서원이 등장한 계기를 살펴보고,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서 학문 도야와 선현 봉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건축적 수단들을 동원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후의 서원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연구하였음.
- 권성진(2002)은 조선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교육기관 및 서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서원에 대한 건축 계획적인 일반 사항을 알아본 후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



- 이기석(2021)은 한국 전통건축을 역사적 배경과 고증, 건축구조물의 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분석하였고, 이상호(2014)는 한국 서원이 신유학의 세계관이 재현된 장소로 보고, 재현의 양상을 입지와 경관 분석을 통하여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사적 서원과 사적 비지정 서원을 포함하여 29개의 서원을 대상을 연구하였음.
- 김덕현과 이상호(2013)는 남계서원, 필암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의 입지와 내부 공간 구성, 그리고 경관적 특성이 서원의 이념적 배경인 성리학의 천인합일 사상과 어떤 본질적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함.

표 III-17. 서원의 경관 선행연구

제목	년도/ 저자	경관 유형	주요내용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조사 연구 :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2002 권성진	경관 조사분석	조선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교육기관 및 서원 정책에 대해 살펴 보고, 서원에 대한 건축 계획적인 일반 사항을 알아본 후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의 사례를 비교 분석
한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2011 김덕현	경관 해석	서원의 안대 경관을 독해하고, 서원 경관에 재현된 천인합일에 대한 해석을 추구
한국 서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	2013 김덕현, 이상호	경관 해석	도산서원·병산서원·옥산서원·도동서원 등 4개 서원의 입지와 내부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 서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 2	2013 김덕현, 이상호	경관 해석	남계서원·필암서원·돈암서원·무성서원의 입지, 내부 공간 구성, 그리고 당호의 의미 체계에 관한 연구
韓國書院의 立地와 景觀에 대한 解釋의 연구 : 樓·亭이 있는 書院을 中心으로	2014 이상호	경관 해석	한국 서원의 입지 및 경관의 특성과 그 의미를 고찰, 서원 연구의 접근 방법에 대한 고찰, 연구 대상 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입지-계경, 강경, 산경, 야경), 서원 경관의 의미를 분석하여 종합적 고찰 (입지 특성에 따라 분류, 입지 이동을 고찰하고 전망 경관의 의미를 신유학의 천인합일 담론과 관련하여 해석)
경상도의 초기 서원건축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2018 이종우	경관 조사분석	조선시대에 서원이 등장한 계기를 살펴보고,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서 학문 도야와 선현 봉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건축적 수단들을 동원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후의 서원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연구
儒學의 自然美와 조선 서원의 展望景觀 - 以美儲善과 以美啓眞의 自然美	2019 김덕현	경관 해석	서원을 유학적 관점에서 이미지선과 이미지계의 자연미를 통해 해석함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공간 분석 연구 -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1 이기석	경관 조사분석	한국 전통 건축을 역사적 배경과 고증, 건축구조물의 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분석
韓國 書院과 中國 書院의 立地·空間構成과 遊息空間에 대한 比較研究	2022 김덕현	경관 해석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과 중국의 서원을 입지와 공간구성, 그리고 유식공간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함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각 서원별로 연구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주로 서원의 입지, 서원과 제향 인물과의 관계, 서원의 배치와 건축물, 조선시대 서원의 재정과 생활, 서원과 성리학의 관계 등이 많았고, 최근에는 경관보존과 서원 활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하나의 서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이며, 2개의 서원을 대상으로 비교, 통합하여 진행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한국의 서원은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9개의 서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원 경내의 배치나 건축물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서원의 경관을 분석·해석한 연구는 부재하였음. 기존의 개별 경관 요소의 조사 분석을 탈피하여 문화경관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세계유산적 가치(OUV)의 심화가 요구됨에 따라 서원의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서원의 경관을 분석·해석하고 단순히 서원의 경내, 서원 주변의 경관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서원과 주변 경관과의 관계(입지 환경, 지역 역사, 경관 요소, 지역 공동체, 문화적 상징,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9개의 서원을 대상으로 경관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서원의 경관을 분석 및 해석한 연구가 부재하며, 개별 경관 요소의 조사 분석을 탈피하여 문화경관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세계유산적 가치(OUV) 심화가 요구됨.
- 특히, 특정 서원이 아닌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경관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짐.



## IV. 문화경관 조사 분석

---

1. 조사 분석의 방법과 틀
2. 서원별 문화경관 요소
3. 한국의 서원 문화경관 고찰



## IV. 문화경관 조사 분석

### 1. 조사 분석의 방법과 틀

#### 1) 조사 분석의 과정

##### (1) 기초자료 수집

- 1차 자료 : 고문헌, 고회화, 고지도, 현판, 기문, 옛 사진 등.
- 2차 자료 : 학술논문, 보고서, 자료집, 도서, 학위논문 등.

##### (2) 문헌 내용분석

- 접근이 가능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확인하여 문화경관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
- 접근이 가능하나 한문으로 기록되는 등 해석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에는 해설집을 참고하여 경관 관련 내용을 추출함.

##### (3) 문화경관 요소 DB화

- 문화경관 요소를 매핑(mapping)하기 위해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리.
- 문화경관에 대해 정리한 정보는 '요소명, 관련 경관 요소(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위치, 세부 내용, 출처'임.
- 문화경관 요소 DB는 현장 답사와 면담을 위한 기초 선행 조사로, 답사 후 수정 내용은 지도를 통해 반영.

##### (4) 현장 답사와 면담

-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9개소를 지역에 따라 답사하고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조사 실시.
- 서원별 주요 관계자(원장, 도감, 별유사 등)를 통해 서원 및 주변 마을의 과거 경관에 대한 조사 및 문헌 고찰

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한 현장 검증.

• 조사일시 및 대상

- 1차 조사 : 2023년 7월 4일 ~ 6일 (돈암서원, 무성서원, 필암서원, 남계서원, 도동서원)
- 2차 조사 : 2023년 8월 1일 ~ 2일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 3차 조사 : 2023년 12월 9일 ~ 11일 1, 2차 조사 후 보완 필요한 서원별로 추가 조사

(소수서원, 도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 (5) 문화경관 지도 작성

- 문화경관 요소를 매핑하고 문화경관 관련 쟁점을 시각화하였음.
- 서원의 문화경관 지도는 경관 요소별로 작성한 후 전체 지도에는 모든 요소를 함께 표현하였음.
- 입지 지도의 경우 주산, 안산, 하천 등의 주요 입지 환경 요소를 표기하여 서원이 입지할 당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도면으로 표현함.



그림 IV-1. 문화경관 요소 조사 과정

## 2) 문화경관 요소 도출

- 본 과업에서는 모호한 문화경관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필요, 적절한 요소들을 도출함. 설명 요소들은 한국의 서원을 서술하는 데 필요한 관점에 입각해서 국내 지침과 국제현장,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음.
- 먼저,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2018)은 입지, 전망, 경관 요소를 대분류로 하여 경관 자료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서원의 입지와 주변 전망 그리고 건축물의 명칭과 수목 등은 주요 경관 요소임을 알 수 있음.



- 문화유산의 진정성 개념을 확장한 주요한 국제적 문서는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1994)로 진정성을 ‘형태와 디자인, 물질과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과 기술, 위치와 환경, 정신과 느낌, 다른 외부나 내부적 요소들’을 지칭하고 있음. 그중 경관적 요소로 용도와 기능, 위치와 환경, 정신과 느낌을 적용해볼 수 있음.
- 동양의 문화유산으로서 서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정성에 관한 논의로 제시된 베트남 호이안 프로토콜을 참조하였음.
- 호이안 프로토콜은 지속가능한 관리, 아시아의 풍수, 전통 신앙, 기술 등 추상적 틀을 중요시하였으며, 나라 문서를 보완하여 ‘위치와 주변 환경, 형태와 디자인, 활용과 기능, 비물질적 특성’으로 제시하였음. 서원의 경관 관점에서는 위치와 주변 환경, 활용과 기능, 비물질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제현장과 국내 지침,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경관의 주요 요소를 확인하여 본 연구는 서원의 문화경관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기 위해 ‘입지경관, 역사경관, 물적경관, 심상경관, 사회경관’을 제안함.

### 3) 서원 경관의 분류

#### (1) 입지경관

- 문화 경관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기본적인 물리환경적 기반을 형성하는 지형, 기후, 수계, 토양 등의 자연적 요소들이 구성하는 특성.
- 이러한 환경적 요소는 해당 문화경관에 인간의 초기 정착, 건축 유형, 농업 방식 등 지역의 문화적 활동의 발생 위치와 방식에 큰 영향을 줌.
- 서원과 관련하여 주변 자연환경과의 맥락 관계, 진입 동선 체계, 마을, 농경지와의 관계, 배치 및 구조(축선과 대칭구조, 위요성), 전망 등이 포함됨.

#### (2) 역사경관

- 현재의 문화경관을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과 연속성을 의미.
- 과거의 사건, 중요 인물, 지역에서의 주요 변화 등에 의한 지역 역사는 지역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

#### (3) 물적경관

- 해당 문화경관의 시각적 매력과 특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강조.
- 지역의 독특한 디자인과 재료,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공공 예술, 조형물, 조경 등의 요소들은 지역의 문화와 연결된 문화경관의 미적 가치를 제공하며,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특색을 부각.
- 서원과 관련하여 수목, 수림, 수경 요소(연지, 수로, 샘, 우물 등), 건조물, 담장 등 포함.

#### (4) 심상경관

- 특정 지역, 공동체, 또는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 믿음, 신념, 전통, 역사 등이 기호, 이미지, 행위, 또는 물체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상징은 지역이나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외부와 구별되게 하며, 내부의 공동체에 소속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
- 지역의 예술과 문화적 활동으로 연결되어 종교 의식, 문학, 미술, 공연, 축제 등 지역의 창의성과 독특한 특성으로 드러남.
- 서원과 관련하여 팔경, 구곡, 명명, 각자 바위, 풍류, 시서화 예술 등 포함.

#### (5) 사회경관

- 문화경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과 그들의 생활 방식, 전통, 관습을 의미
- 지역 공동체의 활동과 상호작용으로 누적된 전통과 기술은 문화경관의 특성을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어왔으며, 공동체는 그 지역의 문화경관을 사용, 관리, 보존하는 주체로 역할
- 서원과 관련하여 향사, 동계, 입춘첩 행사, 향약 등 포함

### 4) 조사 분석의 참고사항

- 본 연구는 서원의 경관 자료조사를 위한 연구로, 건축물에 대한 설명, 역사, 연혁 등을 서술하지 않았으며, 건축물의 배치 및 공간 구조를 과업 내용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 서원의 문화경관 중 경내(담장 내)의 모든 구성요소를 서술하지 않았으며, VI장 1절 3항에서 서술한 문화경관 요소의 개념에 부합하는 구성요소만을 서술함.
- 서원의 문화경관 중 서원 경내 및 주변부의 수목 식재를 모두 서술하지 않았으며, 배향자나 고거목 등 문화적 의미가 있거나 상징이 되는 수목을 구성요소로 서술함. 경내 및 주변부 수목은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센터에서 2022년에 진행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건축물 및 수목 현황 조사」 연구를 참고하길 바람.
- 관리 운영 주체의 경우 경관 요소의 범위로 보지 않아 본 조사 분석에서는 배제함.
- 경관 요소를 구분하여 표로 서술하는 것은 경관 요소의 다각적 해석 요소를 구분하는 행위로 해석에 따라 다른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건축물의 이름이 명명되었을 경우 물적 경관과 심상 경관에 모두 포함될 수 있음.

표 IV-2. 서원 문화경관의 분류와 세부 항목

분류		세부 항목	
문화경관	입지경관	산수체계	산수, 계류, 폭포, 풍수
		정주요소	마을, 들(농경지)
		진입체계	홍살문, 하마비
		서원의 배치	
	역사경관	연고지, 옛터, 입향자의 묘소 등	
	물적경관	식물	식생, 단일 수목, 배경 수림대
		수경	연지, 내외수로, 샘, 우물
		경물	바위
		건축	건물
		구조물	비석, 담장
	심상경관	팔경, 구곡, 명명, 각자 바위, 풍류, 시서화 예술, 풍수형국 등	
	사회경관	향사, 동계, 입춘첩, 향약, 교류기관 등	

표 IV-3. 문화경관 요소에 따른 구체적 내용과 세부 항목

분류	형태	내용	세부 항목
입지경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경관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기본적인 물리환경적 기반을 형성하는 지형, 기후, 수계, 토양 등의 자연적 요소들이 구성하는 특성</li> <li>이러한 환경적 요소는 해당 문화경관에 인간의 초기 정착, 건축 유형, 농업 방식 등 지역의 문화적 활동의 발생 위치와 방식에 큰 영향을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자연환경과의 맥락 관계</li> <li>진입 동선 체계</li> <li>마을, 농경지</li> <li>배치 및 구조(축선과 대칭구조, 위요성), 전망</li> <li>풍수</li> </ul>
역사경관	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의 문화경관을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과 연속성을 의미</li> <li>과거의 사건, 중요 인물, 지역에서의 주요 변화 등에 의한 지역 역사는 지역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원과 이동과정</li> </ul>
물적경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문화경관의 시각적 매력과 특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강조</li> <li>지역의 독특한 디자인과 재료,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공공 예술, 조형물, 조경 등의 요소들은 지역의 문화와 연결된 문화경관의 미적 가치를 제공하며,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특색을 부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목, 수림, 수경 요소(연지, 수로, 샘, 우물 등)</li> <li>건축물, 담장 등</li> </ul>
심상경관	유형 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지역, 공동체, 또는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 믿음, 신념, 전통, 역사 등이 기호, 이미지, 행위, 또는 물체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상징은 지역이나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외부와 구별되게 하며, 내부의 공동체에 소속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li> <li>지역의 예술과 문화적 활동으로 연결되어 종교 의식, 문학, 미술, 공연, 축제 등 지역의 창의성과 독특한 특성으로 드러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팔경, 구곡, 명명, 각자 바위, 풍류, 시서화 예술, 풍수형국 등</li> </ul>
사회경관	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경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과 그들의 생활 방식, 전통, 관습을 의미</li> <li>지역 공동체의 활동과 상호작용으로 누적된 전통과 기술은 문화경관의 특성을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어왔으며, 공동체는 그 지역의 문화경관을 사용, 관리, 보존하는 주체로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사, 동계, 입춘첩 행사, 향약, 교류기관 등</li> </ul>

## 2. 서원별 문화경관 요소

### 1) 소수서원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
면적	89,975㎡
주향자	회헌 안향 (1243~1306)
소재지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번지
시대	조선 중종 38년(1543)
소유자(소유단체)	소수서원 등
관리자(관리단체)	영주시

#### (1) 입지경관

- 소수서원은 영주시 순흥면 동북쪽 영귀봉 아래, 동쪽 죽계수와 면하는 평지에 입지함. 영구입수형(靈龜入水形)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용궁에 들어가는 형국)의 형태를 가짐.
- 영귀봉(서원 서쪽 소나무 동산)을 주산으로 하고 옛날 숙수사터에 묘우를 창건하고 안문성공 안향 영정을 봉안함.
- 객진의 『단곡선생문집(丹谷先生文集)』 권1 『백운동부(白雲洞賦)』에서는 백운동서원은 뒤로는 멀리 소백산이 있고, 전면에는 학가산이 있다고 묘사되어 있음.
- 강당과 사당이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건물들도 강당 후면에 일정한 형식없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음.
- 서원 입구에는 숙수사의 당간지주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곳이 폐사지임을 알려주고 있음. 소수서원이 사당과 강당이 병렬로 배치된 이유는 원래 있었던 숙수사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서원을 조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최근 복원된 탁청지는 위치 및 규모와 형태 등에서 엄격한 고증을 거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마을에서부터 탁청지를 둘러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 제월루를 통해 서원 내부로 진입하는 경로가 주로 이용되었다고 함.
- 소수서원은 최초로 건립된 서원으로, 한국 서원의 배치 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지어졌으며 숙수사 터를 이용하여 건립하였기 때문에 다른 서원에서 발견되는 배치 축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다만, 명륜당부터 일신재 직방재의 남향의 축이 있고 문성공묘부터 과거 제월루부터 탁청지, 죽계까지의 서향 축이 확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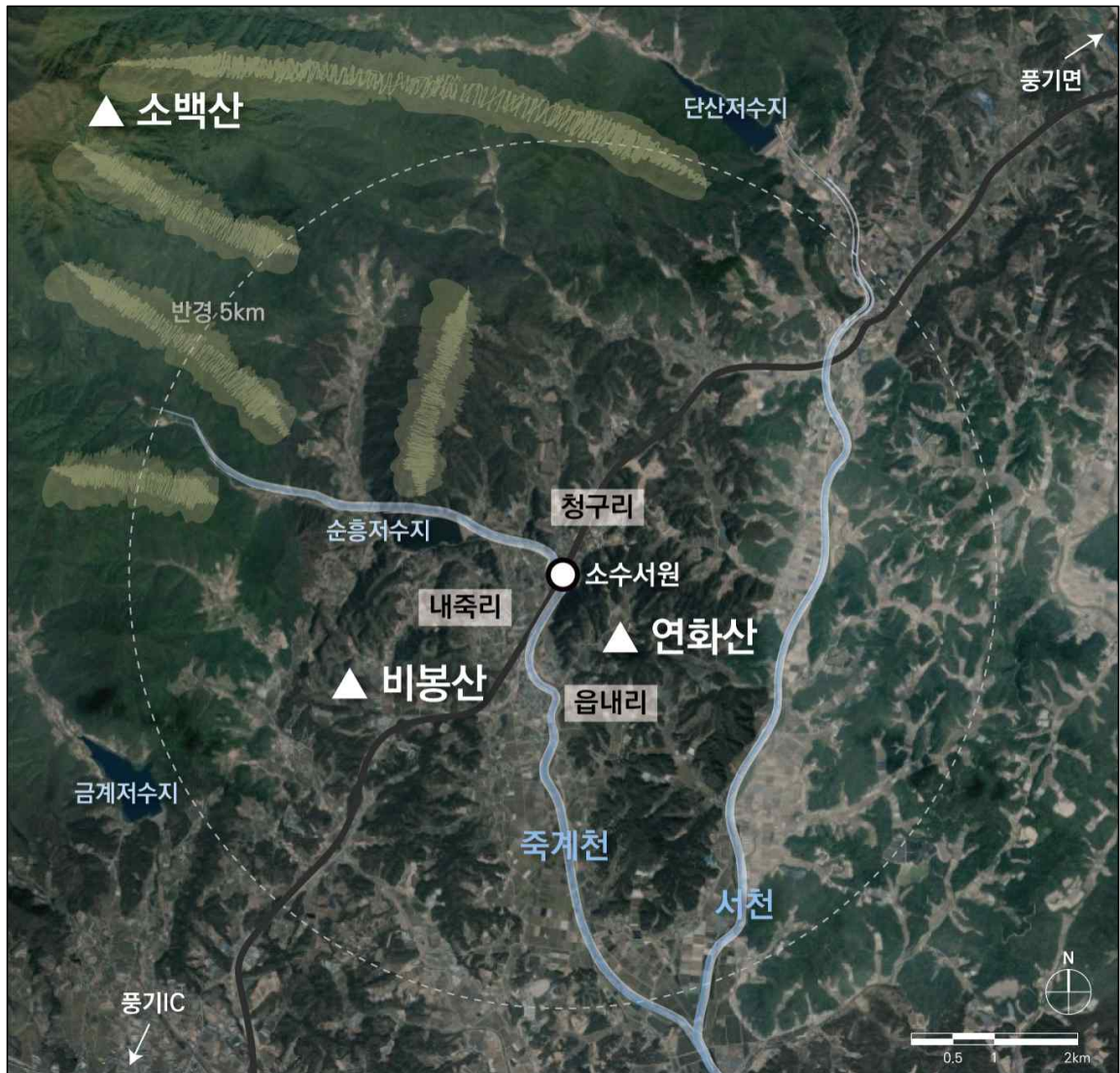


그림 IV-2. 소수서원의 입지



그림 IV-3. 소수서원의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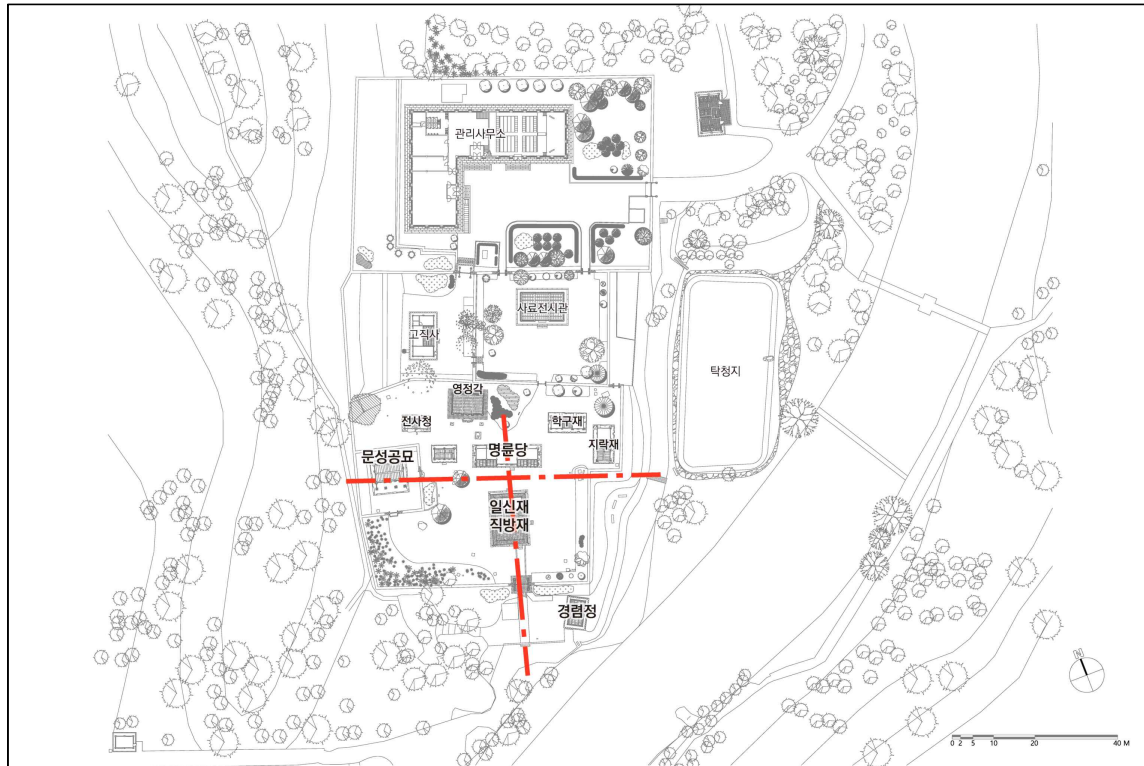


그림 IV-4. 소수서원의 배치 구조 (소수서원은 한국 서원의 배치 체계가 정립되기 이전에 지어져 축이 형성되지 않음)

## (2) 역사경관

- 중종 37년(1542) 풍기 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 주자학을 보급한 회헌 안향(1243~1306)을 모시기 위해 사당을 축조하고 다음해 강당을 건립하여 백운동서원이라고 함.
- 서원은 안향이 고향인 순흥에서 공부하던 사찰인 숙수사의 터를 활용하여 지어졌는데, 선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유교적 자세가 숨겨져 있음.
- 서원의 명칭인 백운동은 중국의 주희가 강학한 백록동 서원을 차용한 명칭임.
- 주세붕이 편찬한 『죽계지(竹溪志)』 서문에서 사묘와 서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교회는 사급한 것이고 이는 존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안향을 존봉하는 사묘를 세웠고, 겸하여 유생들의 장수를 위하여 서원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음.
- 명종 4년(1547)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 국가에 사액을 요청하여 명종 5년(1550)에 ‘소수서원’이란 편액과 사적, 토지, 노비 등을 하사받음으로써 이 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 됨. 소수의 뜻은 끊어진 유학을 잇는다는 의미임.
- 인조 11년(1633)에는 주세붕이 추가로 배향되었으며, 고종 8년(1871)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서원 가운데 하나가 됨.





그림 IV-5. 과거 숙수사지의 터임을 증명하는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출처 : 디지털영주문화대전)

### (3) 물적경관

- 서원의 입구에는 학자수로서 은행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약 500년 된 고목으로서 서원의 역사를 증명함.
- 취한대는 죽계를 끼고 소수서원과 마주 보는 곳에 위치한 대의 명칭으로, 퇴계 이황이 군수로 재임 중에 이곳에서 죽계변의 자연을 완상하며 풍류와 사색을 즐겼다고 전해짐. 현재의 정자는 근래(1986)에 조성된 것임.
- 과거에 이곳은 서원에서 공부하던 유생들이 자연과 접하여 풍류를 즐기는 유희 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경림정에서 죽계를 보면 계류와 송림, 암벽이 조화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음. 정자 안에는 유명한 시인과 묵객들의 시구가 걸려 있어 당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경관 인식의 한 단편을 살필 수 있음.
- 숙수사의 별루가 소실되자 이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제월루를 세움. 명륜당을 짓고 170여 년 뒤인 1719년 별루의 주춧돌 위에 10개의 기둥을 세워 2층의 제월루를 지었으나 소실되었다고 전해짐. 명륜당 동쪽 담장을 두른 화단 자리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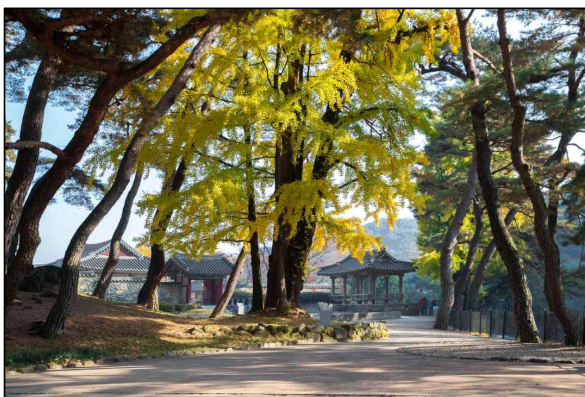


그림 IV-6. 소수서원 입구 송림과 은행나무



그림 IV-7. 제월루 추정터



그림 IV-8. 소수서원 경림정(오른쪽)과 취한대(왼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 (4) 심상경관

- 고려말에 근제 안축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죽계별곡(竹溪別曲)』은 순흥의 내력을 “천년 홍망에도 한결같은 풍류를 이어온 고장”으로 자랑하고 ‘산수가 맑고 높은 광경’을 앞세워 그곳의 경치를 찬양하고 있음.
- 주세붕은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에서 “왼쪽으로는 죽계수가 휘감아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소백산이 높이 솟아 구름과 산과 언덕과 물줄기가 실로 여산에 못지 않다. ... 구름이며, 산이며, 언덕이며, 강물 그리고 하얀 구름이 항상 골짜기에 가득하므로 감히 이곳을 이름하여 ‘백운동’이라 하였고, 감회에 젖어 배회하다가 비로소 사당 건립의 뜻을 갖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음.
- 소수서원은 죽계변의 암각을 통해 유학자들의 이상향인 주희의 백록동을 실재화시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유학자들이 심미성을 수양할 때 지표로 삼기 위한 경구를 일러놓아 교훈을 주고 있음.
- 서원 입구의 죽계변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주세붕은 그곳에 ‘경’자를 암각 했음. ‘경’이라는 글자는 성리학에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수양론의 핵심이 되는 선비들의 행동지침임. 또한, 『신재집(新齋集)』에 따르면 주세붕이 ‘경’자 위에 ‘백운동’을 암각함.
- 서원 입구부근에 세워진 경림정은 주세붕이 건립한 정자로 알려져 있음.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권2 「경상도(慶尙道)」 편에는 “경림정은 주렴계의 뜻을 경모하기 위해서 취한 이름이다.”라고 적고 있음.
- 서원 주변에는 소백산맥에서 발원한 죽계를 따라 죽계구곡이 형성되어 있음. 이 죽계구곡과 소수서원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1곡에 해당하는 백운동 취한대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순흥부시를 지낸 신팔하의 죽계구곡은 『죽계지(竹溪誌)』와 『흥주지(興州誌)』에 기록되어 있는데, 1곡을 백운동 취한대(白雲洞翠臺), 2곡을 금성반석(金成盤石), 3곡을 백자담(柏子潭), 4곡을 이화동(梨花洞), 5곡을 목욕담(沐浴潭), 6곡을 청련동에(淸蓮東崖), 7곡을 용추비폭(龍秋飛瀑), 8곡을 금당반석(金堂盤石), 9곡을 중봉합류(中



峯合流)라 기록하고 있음.

- 광풍정(光風亭)은 본래 ‘광풍대’라 불리던 곳으로 퇴계 이황이 ‘제월광풍(霽月光風)’이라는 말에서 가져와 붙인 이름임. 정자는 근래(2002)에 건축됨.



그림 IV-9. 근재선생집에 기록된 죽계 별곡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IV-10. 백운동 경자바위  
(출처 : 영주시청)



그림 IV-11. 광풍정  
(출처 : 영주시청)

## (5) 사회경관

- 서원 경내에 유림이 주도해서 만든 사립학교인 소수중학교가 1952~1964년까지 운영되었음. 이전된 이후 높았던 터가 낮아지고, 현재 관리사무소가 새롭게 지어져 위치하고 있음. 소수중학교 시절 이곳은 교장실과 교무실로 실제 사용되었음이 구술조사와 신문기사로 확인됨. 교육의 기능이 이어졌던 서원으로서 의미가 있음.
-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울 당시 정축지변(1457)으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바위에 경자를 새겼다는 유래가 이아순(1755~1831)을 통해 전해짐. 사건이 있는 후로 약 90년 뒤 서원을 지을 당시에 당시 지역사회의 어두운 역사를 감화하려 했음을 이해할 수 있음.



그림 IV-12. 현 관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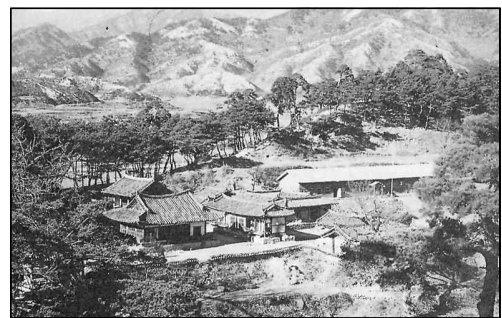


그림 IV-13. 1953년 소수서원과 소수중학교  
(출처 : 영주시민신문)

## (6) 주요 쟁점

- 과거 소수중학교와 소수서원과의 관계 재해석 : 과거 소수중학교 터는 서원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 되었고, 현재도 그런 인식이 팽배함. 하지만 소수중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억의 장소가 되고 있으며, 이것을 서원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서원 또한 교육기관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중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의 중심 장소로써 활용할 수 있음. 소수중학교와 서원과의 관계, 소수중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심층적인 발굴이 필요함.
- 선비문화축제의 진행 장소 : 선비문화축제는 매년 5월 서원 선비촌에서 직접 개최를 해왔으나, 영주시 문화관 광재단에서 주관을 하면서 영주 시내(서천둔치 일원)에서 중심이 되어 개최하게 됨. 원의 위치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관광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함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서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관처와 공간을 서원으로 되살릴 필요가 있어 보임.
- 지역대학의 프로그램 주관 참여 : 지역대학인 동양대학교에서 사마선비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원반 수업을 통해 소수서원 생원 학위증을 수여하여 조선시대 서원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음. 지역대학이 서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원 인식 향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IV-14. 소수서원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2) 남계서원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
면적	41,218㎡
주향자	일두 정여창 (1450~1504)
소재지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일원
시대	조선 명종 7년(1552)
소유자(소유단체)	남계서원 등
관리자(관리단체)	함양군

### (1) 입지경관

- 남계서원이 위치한 함양은 예로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학문과 문벌에서 손꼽히던 소위 양반 고을이었음.
- 남계서원은 구릉을 등지고 남쪽으로 약간 틀어 앉아 서향을 하고 있는데, 뒤는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음.
- 주변의 형국을 보면 연화산을 주산으로 하여 그 좌우로 뻗어나온 병산의 산줄기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으며, 멀리 백암산이 안산을 이루고 있음.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연꽃이 물에 뜬 것 같은 형상)의 형태를 지님.
- 정환필의 『일두집(一蠹集)』 『일두속집(一蠹續集)』 권3의 부록 『풍영루기(鳳鳴樓記)』에서는 두류산(頭流山)의 만 겹 봉우리와 화림천(花林川)의 아홉 굽이 흐르는 물을 풍영루에서 관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가정진(1798~1879)의 『노사집(蘆沙集)』 권21의 『풍영루중건기(鳳鳴樓重建記)』는 백암산이 보이는 안대경관을 잘 설명하고 있음.
- 서원 앞으로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계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감.
- 서원 앞 남계천 너머에는 정여창의 고향인 지곡면 개평리이며, 이곳에 정여창 고택(일두 고택)이 현존함.
- 경내 평지 부분의 강학공간과 언덕 위 제향공간의 중심축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앞산과 뒷동산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남계서원의 명성당은 다른 서원과는 달리 짝수 칸(네 칸)으로 설정되어 두 번째 칸이 풍영루로부터의 축을 형성하게 되고, 사우부터 명성당의 세 번째 칸까지 하나의 축을 형성하게 됨.
- 대청된 보인재와 양정재가 1개의 횡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앞에 2개의 연당이 다른 1개의 횡축을 형성하고 있어 특징을 지님. 경사 지형과 연못이 비교적 경직되어있는 서원의 배치 축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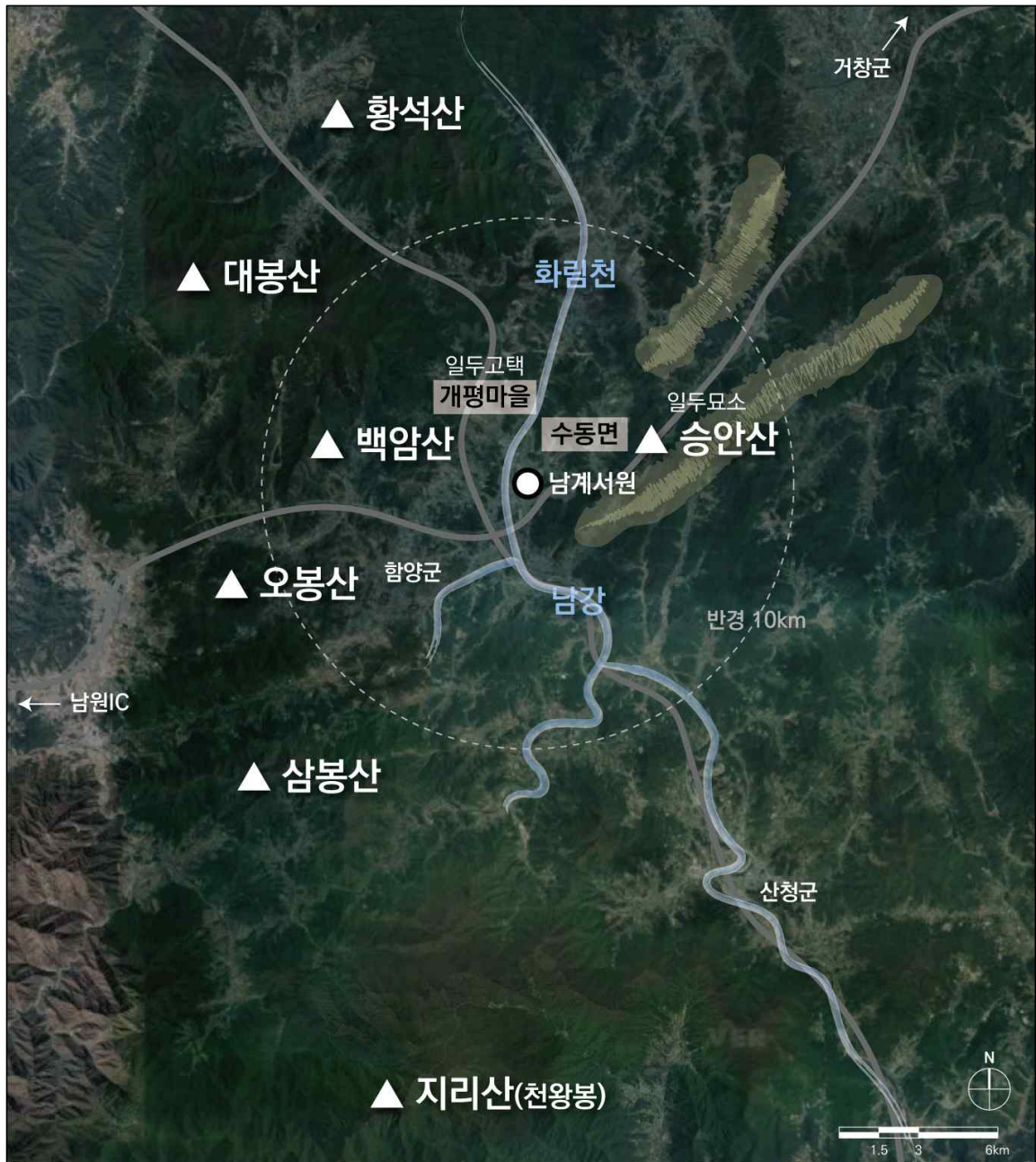


그림 IV-15. 남계서원의 입지



그림 IV-16. 남계서원의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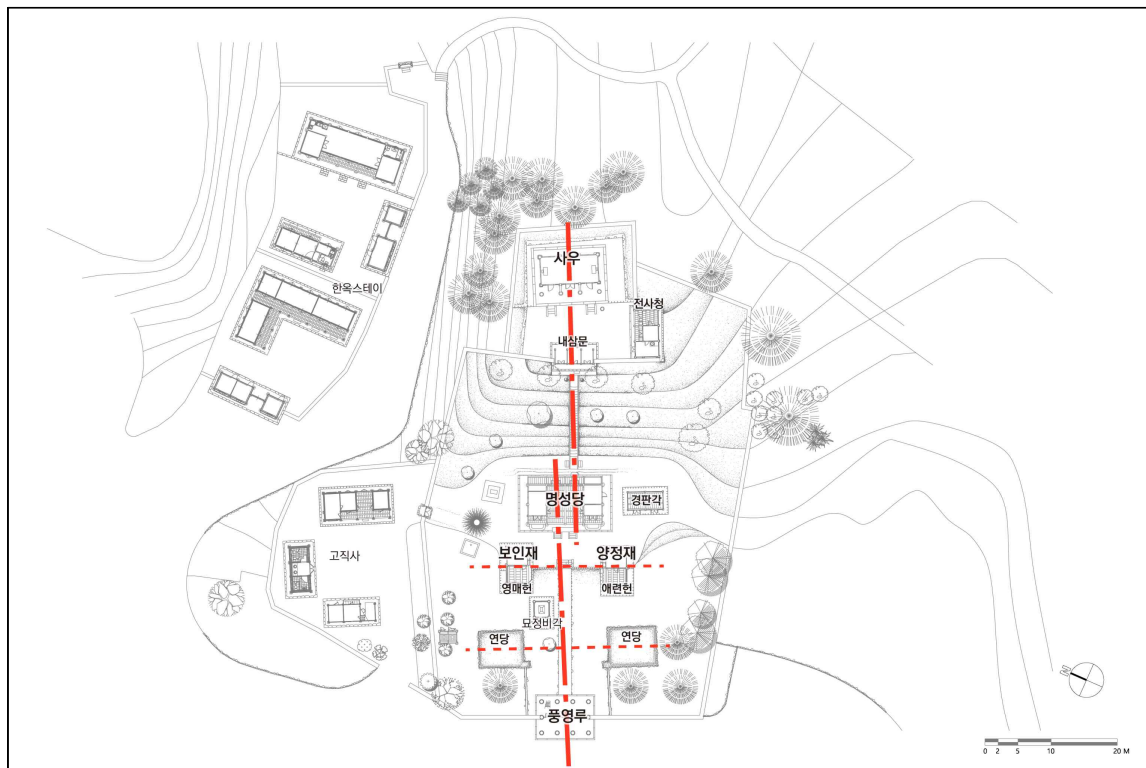


그림 IV-17. 남계서원의 배치 구조



그림 IV-18. 개평마을에 위치한 일두 고택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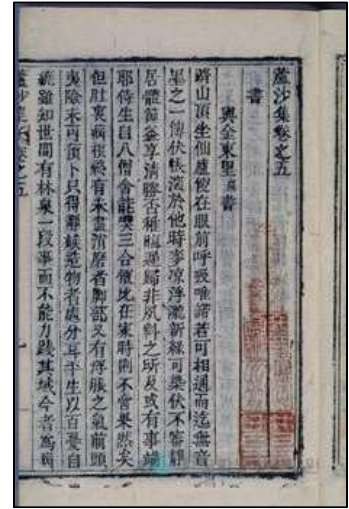


그림 IV-19. 기정진의 노사집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 역사경관

- 명종 7년(1552)에 개암 강익(1523-1567)과 동계 정은 그리고 당시의 함양군수 서구연 등에 의하여 조선조 오현(五賢)의 한 사람인 정여창(1450~150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사우, 강당, 동재, 서재, 전문을 건립하면서 창건됨.
- 그 후 명종 21년(1566)에 서원 외부의 계류 명칭을 따서, '남계'라는 명칭으로 사액됨.
- 남계서원은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뒤 선조 38년(1605)에 나촌으로 이건되었다가, 선조 43년(1612) 옛 터인 현재의 위치에 다시 이건하여 중건됨.
- 숙종 1년(1675) 동계 정은이 서서에, 숙종 15년(1689) 강익이 동서에 추가로 배향됨.

## (3) 물적경관

- 풍영루와 동, 서재 사이에는 1564년에 조성된 연당이 양쪽으로 각각 하나씩 있음. 이처럼 두 개의 연당이 한 공간에 조성된 것은 다른 서원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사례임.
- 강당 뒤로는 거의 45도에 가까운 급경사지를 화계로 조성한 후원이 있음. 화계는 석축, 계단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형처리 요소임. 남계서원의 화계는 총 5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폭은 일정치 않음.
- 현재 여기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셋째 단에 서 있으며, 내삼문 바로 앞에는 배롱나무 4주가 식재되어 있음. 배롱나무는 절개를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 서원에 많이 식재하였다고 함.
- 남계서원 또한 서원 후면의 담장 밖 언덕에 소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유생들의 변하지 않는 기상, 곧은 절개를 상징하는 경관적 요소로 간주됨.



- 예전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서원이 관리한 우물이 존재함. 관광자원화사업 시 복원한 것으로 서원 앞 공원 내에 지형이나 수계 등과의 맥락은 무시된 상태로 위치함.
- 남계서원과 청계서원 사이에 두 현인이 만난 바위라는 이현대가 존재함.
- 또한, 남계서원에서 서쪽 방향 300m에 거함대로를 지나서 남강쪽으로 나아가면 반석 위에 입석이 올라가 있는 독특한 형태의 암석 경관이 존재함. 풍화로 인해 제대로 확인이 안되고 있지만 바위에 새긴 글자도 남아 있음. 서원 주변의 경물로 과거 주민들 사이에서는 돌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인물이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음. 남계서원에 매우 가까운 위치하고 있는 암석경관으로서 옛 남강변의 풍경과 함께 당시 서원 유생들이 자주 찾았던, 대표적인 유식의 장소였던 곳으로 사료됨.
- 지역의 명소로서 대고대(大孤臺)가 존재하는데, 이는 「함양 양희 신도비(咸陽 梁喜 神道碑)」 옆에 존재함. 과거 대고대는 남계서원 지역의 유식 장소로 활용되었다고 하며, 인근 지역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 이용된 곳으로, 지역민들의 집단적인 추억이 담긴 명소였던 곳으로 언급됨.



그림 IV-20. 풍영루 뒤에 위치한 연당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그림 IV-21. 남계서원 앞 복원한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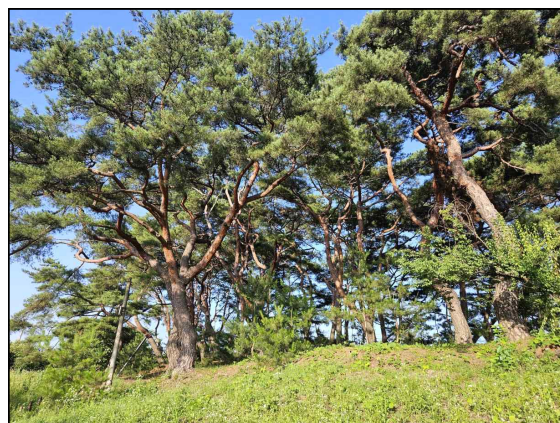


그림 IV-22. 서원 뒤편 송림



그림 IV-23. 남계서원 서쪽 300m에 위치한 반석과 입석



그림 IV-24. 지역에서 유식의 명소로 활용되었던 대고대(大孤臺)

#### (4) 심상경관

- 정여창은 중국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염계와 같이 연꽃과 매화를 사랑했다고 전해짐. 이러한 까닭으로 그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남계서원에는 다른 서원에서 보기 드물게 두 개의 연당이 거의 대칭되게 축조하고, 그 연못 속의 연을 부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정재와 보인재 끝에 각각 애련헌, 영매헌이라는 누마루를 조영함.
- 송나라 때의 성리학자 염계 주돈이(1017~1073)가 쓴 「애련설(愛蓮說)」에는 “나는 유독 연을 사랑하노니, 진흙에서 자라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니 군자가 속세에 처신하여도 악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으며, 맑은 물결에 씻겨 오염되지 않으니 그것은 품위있는 청결한 사람과 같다. 속은 비어서 통해 있고 밖은 곧으니, 마음은 도리에 통하고 품행이 깨끗하나 선비와 같다. 향기는 멀리 풍기고 빛깔은 더욱 맑으니, 군자의 덕행이 멀리까지 영향함과 다르지 않다. 물 가운데 우뚝 조출히 섰으니, 가히 멀리서 바라볼 수 있어도 가까이서 매만질 수는 없으니, 위엄이 군자와 같은 데가 있다.”라고 함.



그림 IV-25. 애련헌과 영매헌

(출처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8)



## (5) 주요 쟁점

- 소나무 반출 문제 : 과거 남계서원 뒷산에 소나무가 많아서 뒷마을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였음. 하지만 인터뷰에 의하면 소나무를 반출하여 소나무가 많이 사라졌다고 함. 또한, 서원관광자원화사업에 의해서도 소나무 식재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주변 방치 혹은 손상된 문화경관 발굴, 보전 및 그에 따른 구역 조정 문제 : 과거 서원 앞 남계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흐르던 하천으로 빼어난 바위, 모래밭, 하천숲 등이 이룬 절경이 있어 서원 유생들의 유식의 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개발시대 이전까지 인근 지역 학생들의 소풍지로 인기가 높았을 만큼 중요한 기억의 장소였으나 현재는 도로, 제방 등으로 가로막혀 있고 단절되어 잊혀진 존재로 방치되고 있음. 이에 이들 자연 경물과 경승지를 찾아 옛경관을 회복시키면서 완충구역 등에 포함해 문화경관 요소로 부각함으로써 서원 방문객들에게 체험의 깊이를 배가할 수 있음.
- 우물 복원 문제 : 서원 앞 공원에는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우물이 복원되어 있음. 하지만 해당 우물의 복원에 대한 고증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우물이 현대적인 가공 기법을 통해 서원의 고즈넉한 경관을 자칫 훼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서원의 행사 참여 감소 : 공동체 참여의 경우 주민의 노령화가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서원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를 꺼리지만, 제초나 청소 등 서원의 관리에는 시나 군에서 진행하는 환경관리 사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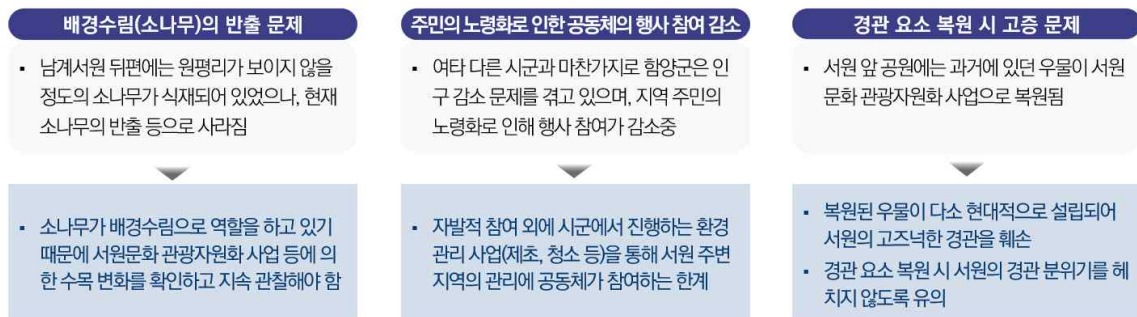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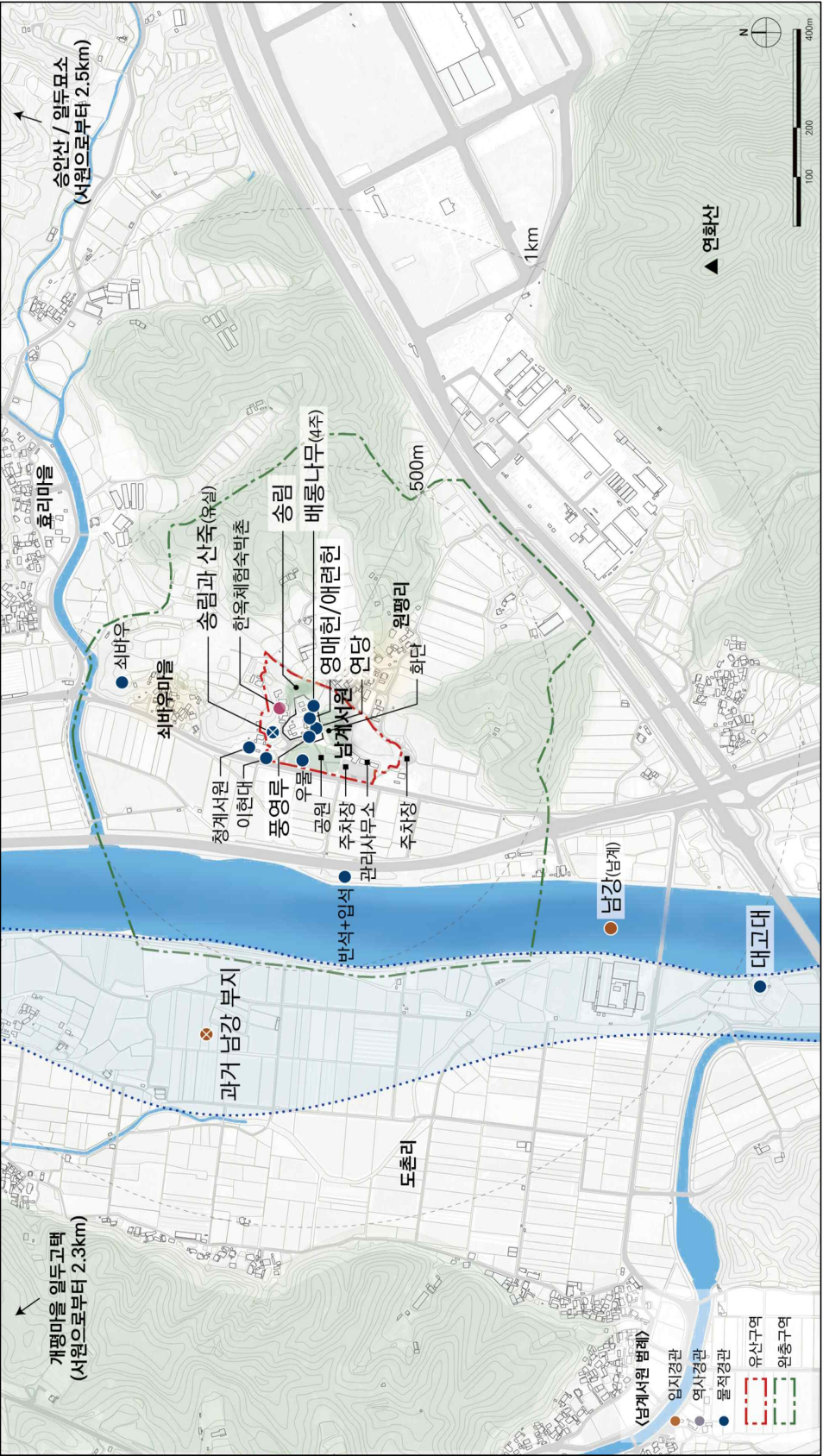


그림 IV-26. 남계서원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3) 옥산서원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
면적	95,681㎡
주향자	회재 이언적 (1491~1553)
소재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옥산리)
시대	조선 선조 5년(1572)
소유자(소유단체)	옥산서원 등
관리자(관리단체)	옥산서원

#### (1) 입지경관

- 옥산서원은 도덕산 줄기에서 뻗어내린 자옥산을 바라보는 자계 계곡기에 서향으로 입지하는데, 자계가 의미있는 안대경관으로 자각되었음을 아래 허엽(1517~1580)의 『회재집(晦齋集)』 부록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에서 알 수 있음.
- 옥산서원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화개산(어래산) 아래에 위치하는데, 자옥산을 바라보며 서향으로 배치됨.
- 현재 진입동선 체계는 유물전시관 쪽의 주차장을 거쳐 옥산천의 동편으로 진입하는 주 진입로가 있으며, 옥산천의 서편에 놓여져 있는 하마비를 지나서 외나무다리를 건너 진입하는 진입로가 존재함.
- 현재의 하마비는 위치가 옮겨진 것으로, 옛 하마비로 추정되는 위치가 존재함. 옛 하마비를 지나 외나무다리를 통해 자계천을 건너는 통행로가 본래의 진입로였을 것으로 추정됨.
- 서원의 배치는 제향과 강학, 유식 공간이 1개의 긴 종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민구재와 암수재가 대칭되어 횡축을 보여줌.
- 관에서 주도하여 서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강력한 단일축이 형성된 것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고직사 영역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음.





그림 IV-27. 옥산서원의 입지



그림 IV-28. 옥산서원의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그림 IV-29. 옥산서원의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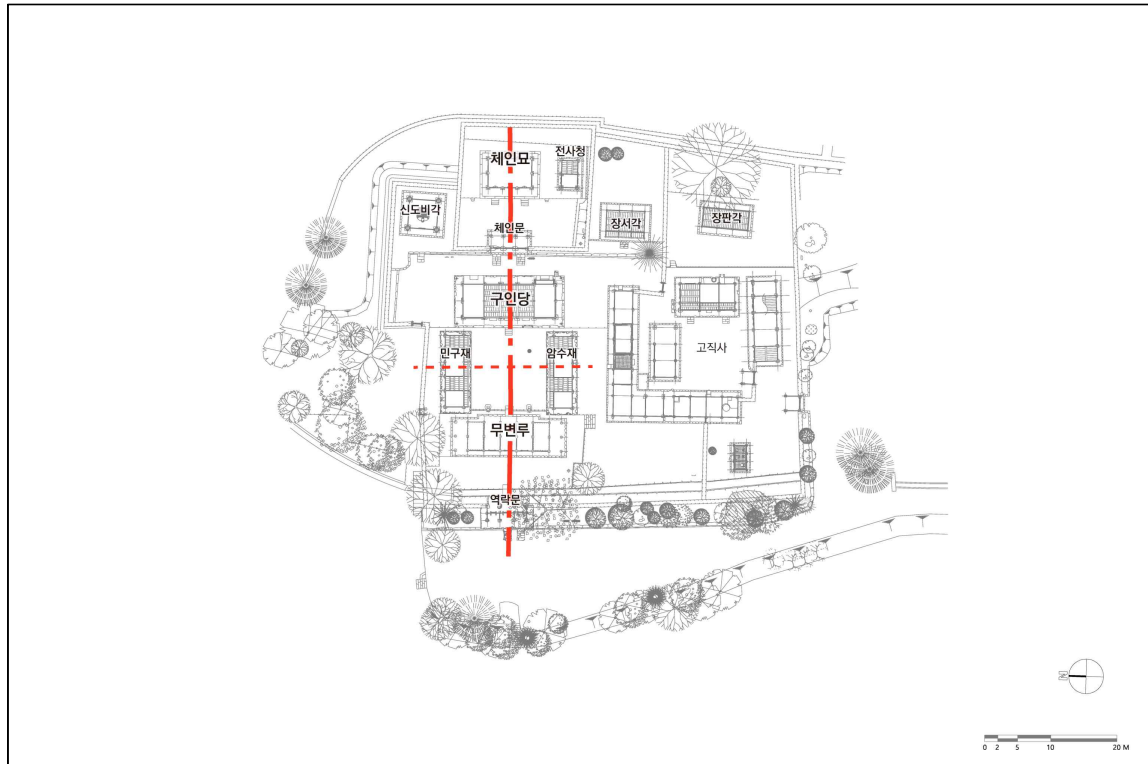


그림 IV-30. 옥산서원의 배치 구조





그림 IV-31. 현재 하마비 위치와 징검다리

## (2) 역사경관

- 옥산서원은 선조 5년(1572)에 경주 부윤 이제민과 유림의 공의로 회재 이언적을 향시하는 서원을 독락당(獨樂堂) 아래 자계 계곡변에 건립함. 1573년 경주 서악의 향현사에 있던 위패를 모셔와 같은 해 12월 ‘옥산서원’이라는 사액서원이 됨. 자옥산이 있어 ‘옥산’이라 이름함.
- 회재 이언적(1491~1553)은 사회당쟁을 계기로 옥산리에 낙향하여 중종 17년(1532) 자계변에 독락당을 축조하여 지내면서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등 수많은 문헌을 저술하는 등 성리학의 발달에 많은 업적을 남김.
- 옥산서원은 회재선생이 세상을 떠난지 20년 후인, 선조 5년(1572)에 경주 부윤인 이제민과 지방유림들이 합심하여 회재 선생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독락당에서 동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현재의 장소에 서원의 터를 정하고, 다음 해 경주의 서악 향현사에 있던 위패를 모셔와 창건한 서원임.
- 서원은 선조 7년(1574)에 ‘옥산’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임진왜란 때에 병화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훼손되지 않음.

## (3) 물적경관

- 서원 앞에 있는 수림 속으로 흐르는 계류를 자계 또는 옥계라고 함. 이 계류가에는 둘레가 2~3m 정도인 회화나무, 느티나무,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 높이 4m의 폭포가 떨어지는 용추(각자) 위에 걸린 외나무다리는 주변의 참나무숲과 더불어 경관을 형성함.
- 역락문과 무변루 사이에는 자계에서 끌어들여 남쪽으로 흐르게 한 인공수로가 있음. 수로를 관통한 물은 마을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부터 마을의 중요한 수경 요소였음.

- 무변루의 누마루에 올라서면 멀리 자옥산의 아름다운 산경이 바라다보임. 세심대와 용추의 수경 및 수림이 연출하는 경승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옥산서원에서 자계천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화재 이연적이 낙향하여 7년동안 기거한 사랑채 독락당(옥산정사)이 위치함.
- 옥산서원 남쪽 1곡 송단과 2곡 용추 사이에 위치한 송림은 과거에 정부에서 하사한 책 등의 어가를 맞이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림 IV-32. 자계 위를 지나는 외나무 다리(왼쪽)와 역락문과 무변루 사이의 수로(오른쪽)



그림 IV-33. 어가맞이 송림



#### (4) 심상경관

- 이언적은 도덕산, 무학산, 화개산, 자옥산을 명명하고, 관어대, 영귀대, 탁영대, 징심대, 세심대로 계곡에 위치한 5개의 바위를 골라 이름을 붙여 사산오대(四山五臺)로 부르며 즐김.
- 이황은 이언적의 학문에 크게 감명받고, 이언적이 명명한 사산오대 가운데 자옥산, 용추, 역귀대, 징심대, 세심대, 탁영대, 관어대 일곱 곳의 명칭을 써줌.
- 자계 옆에 있는 폭 2m, 높이 1m 정도의 자연암반에는 ‘세심대’란 각자가 뚜렷이 남아 있음. 폭포의 서쪽에는 높이가 약 2m가 되는 암벽에 이황의 자필이라 전하는 ‘용추’란 각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음
- 세심대 옆의 용추는 중용추(中龍秋)이며, 2곡의 용추(하용추(下龍秋))는 송단과 옥산서원 사이에 위치함(평홍쉬 & 강태호, 2018).
- 이언적은 중종 30년(1535)에 독락당 인근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을 창작함.
- 옥산구곡이 설정된 이후로 이정업, 이정기, 이아순 등이 옥산구곡을 찾았으며, 옥산구곡에 관한 시문을 창작하면서 문화활동에 영향을 미침.
- 1823년 이아순의 건의로 옥산구곡이 처음 설정될 때 이정업이 동행하였는데, 그 당시 용추곡(2곡)에서 용추의 위치는 송단 위쪽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함.



그림 IV-34. 세심대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그림 IV-35. 옥산구곡 1곡의 ‘송림’



그림 IV-36. 옥산구곡 2곡의 ‘용추’

## (5) 사회경관

- 부윤 이제민이 서원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혜(定惠)와 두덕(斗德) 2개의 사원을 종속시켰으며, 정혜사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에 서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 제공함.
- 정혜사는 이언적이 어릴 때부터 독서처로 삼았던 곳으로 이언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기에 옥산서원의 창건과 동시에 서원에 종속됨. 특히, 정혜사는 서원의 책을 출판하고 목판을 보관하는 등 서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이를 통해 옥산서원은 장서의 기능을 잘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됨.
- 정혜사는 사원의 폐허를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두고 있었는데, 당시 서원 사림의 비호를 바탕으로 사원의 지도급 승려들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서원 사림들 또한 사원의 운영을 서원에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난다.
- 박계현(1524~1580)의 『관원선생문집(灌園先生文集)』, 1권 「자계 열여섯노래(紫溪十六詠)」을 살펴보면 정혜사의 가람이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한 시를 통해 자계 근처의 중요한 요소로 정혜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옥산서원은 신라문화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재에서 서예, 차 문화 수업 등을 개설함.
- 또한 옥산서원 앞 세심대가 위치한 곳의 계곡은 시민들의 피서철 휴식처로 자리매김하여, 서원 주변의 자연경관을 찾아 즐기는 관광객들이 다수 존재함.



그림 IV-37.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출처 : 문화재청)



그림 IV-38. 관원선생문집(灌園先生文集)  
(출처 :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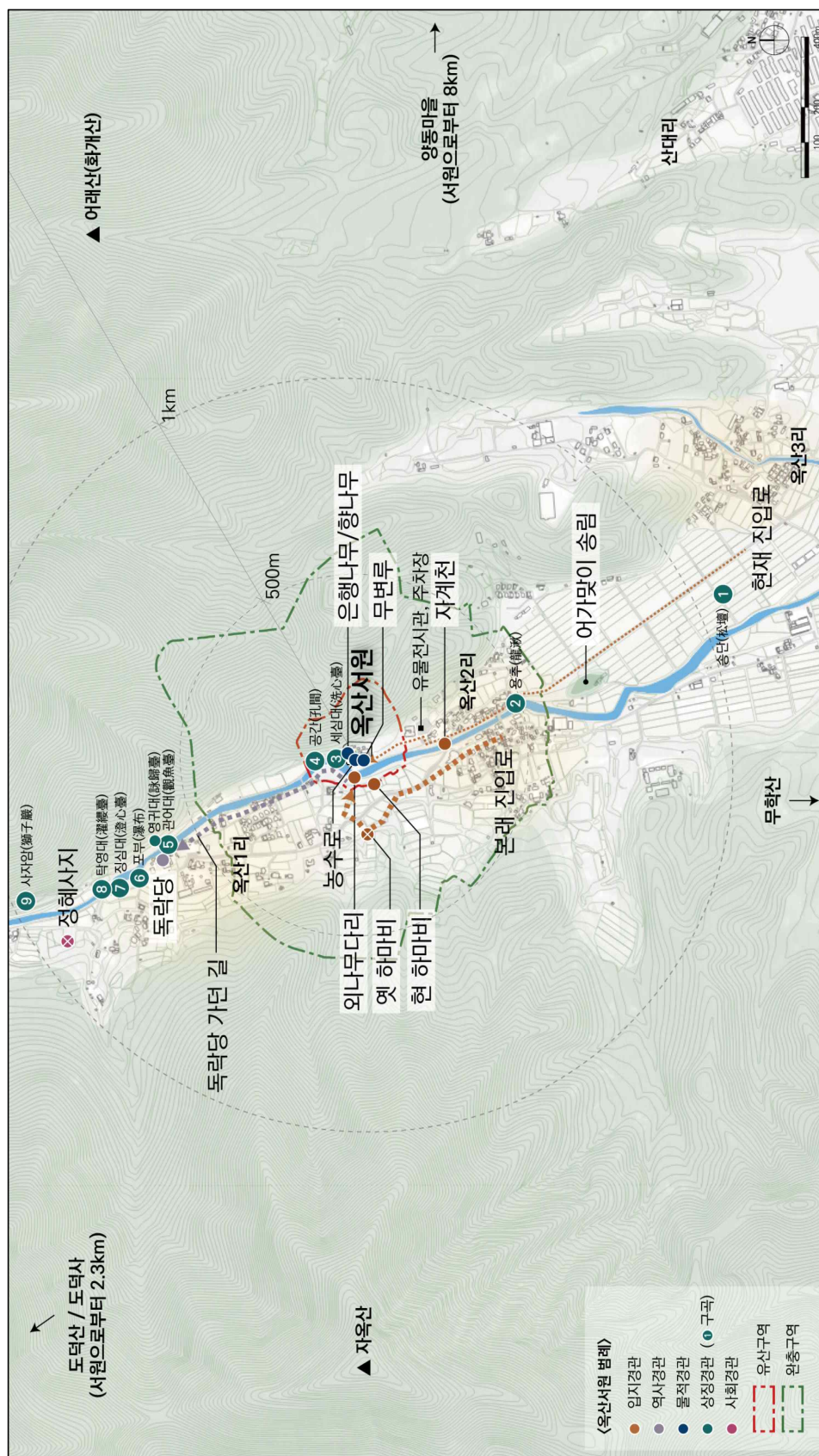
## (6) 주요 쟁점

- 개발로 인한 자계천의 변경 및 홍수 문제 : 도원교(옥산교)에서 옥산서원 방향 다음 다리까지 약 100m구간 하천을 점유하며 도로를 확장 사용 중으로 홍수 시 범람위험이 있음.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 문제는 추후 서원의 경관과 서원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홍수시의 범람 등의 실질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추후 면밀한 환경적, 경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는 서원 경관 전문가와 수문, 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해야 함.
- 하마비의 이전, 주차장 신설 등으로 인한 진입로 변경 문제 : 옥산서원은 서원 기준 남동쪽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계류의 동쪽 따라 정문으로 올라가는 진입 동선을 지니고 있지만, 과거에는 계류의 서쪽에 위치한 하마비로부터 계류의 외나무다리를 건너 진입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현재는 서원 진출입 동선체계상에 심각한 변형이 초래되어 있는 상황임. 그에 더해 현재 하마비의 위치도 옮겨진 것으로 이전 하마비의 위치를 찾아 복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적어도 과거 하마비 터(유지)를 찾아서 표시해주고 옛 진입로를 통해 진입체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심대 수변 관광객과 서원의 유식 기능 연계 : 여름철 세심대 계곡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으로 인해 서원의 분위기와 정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물놀이 관광객들을 서원 이용 및 해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발전 수용함으로써 서원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과거 유식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홍보할 수도 있을 것임.



그림 IV-39. 옥산서원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4) 도산서원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
면적	506,355㎡
주향자	퇴계 이황 (1501~1570)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토계리)
시대	조선 선조 8년(1575)
소유자(소유단체)	도산서원 등
관리자(관리단체)	안동시

## (1) 입지경관

- 도산서원은 영지산을 조산으로 하고 도산을 주산으로 하여 왼쪽은 청량산에서 흘러나온 동취병이, 오른쪽에는 영지산에서 흘러나온 서취병이 감싸고, 남으로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조그마한 골짜기에 입지하고 있음.
- 이곳의 지형 지세는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나 그 골짜기가 넓거나 형세가 뛰어나고 차우침이 없이 높이 솟아,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사방으로 둘러앉은 것 같은 형세임.
- 퇴계는 “도산 아래 자리잡고 쉴 곳을 얻은 것은 만년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적고 있음.
- 현재의 진입로는 1977년 건설된 안동댐 탓으로 수위가 높아져 기존의 진입보다 높은 위치에서 낙동강을 조망하면서 서원으로 진입하게 됨. 현재의 길은 성역화 사업으로 새로 닦은 길임.
- 본래의 진입로는 좌측에 천광운영대, 우측에 천연대를 끼고 사면을 따라 올라오게 됨. 과거에는 도산서원 앞의 낙동강으로부터 사면으로 되어 있었으며, 담장이 현재보다 낮게 조성되었으나 성역화 사업으로 담장이 높아지고, 안동댐의 건설로 사면이 사라짐.
- 안동댐 건설 이전에는 사사단의 나루터에서 도강(여름철)을 하기도 하였으며, 썰다리를 건너 진입하기도 함.
- 도산서당의 축과 도산서원의 축이 따로 존재함. 어느 축도 엄격한 정형성은 유지하지 않지만, 동서재를 통해 횡축을 유지함. 또한 동, 서광명실도 횡축을 지니고 있어 부차적인 횡축이 존재함.





그림 IV-40. 도산서원의 입지



그림 IV-41. 도산서원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그림 IV-42. 도산서원의 배치 구조



그림 IV-43. 낙동강변으로 보이는 옛길, 섯다리의 흔적과 서원 앞에서 시사단과 섬촌, 의인을 왕래하던 배도 보이는 경관의 모습. 위쪽 길이 끊어지는 구비를 돌면 계남, 하계를 거쳐 상계의 퇴계종택에 이릅니다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



그림 IV-44. 석간대 앞 섯다리  
(출처 : 국가기록원, 도산서원관리사무소 2021)





그림 IV-45. 1933년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원 앞이 경사진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보다 담장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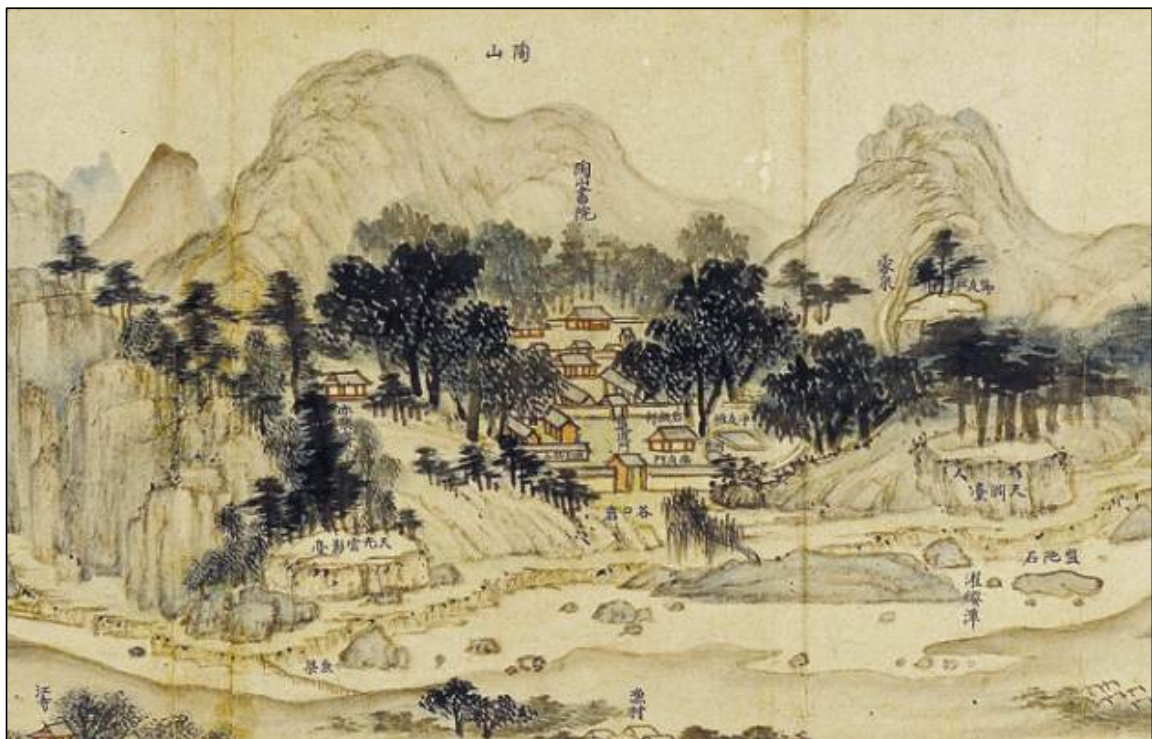


그림 IV-46. 이정의 도산서원도 중 일부  
(출처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2) 역사경관

- 조선 성리학의 근본을 완성한 대학자 퇴계 이황(1501~1570)이 그의 나이 50세 때인 명종 12년(1557)에 낙향하여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원임. 도산서원은 퇴계가 태어난 은혜 지역의 만년 강학터에 지어짐.
- 퇴계는 기존에 지었던 계상서당이 좁아 제자들을 받을 수 없게 되어, 1560년에 도산에 터를 보고 도산서당을 짓게 됨. 도산서당을 지은 이듬해 가을에는 농운정사를 건립하여 한편으로는 스스로 공부하는 곳으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강의실로 삼음.
- 퇴계는 제자들과 10여 년을 생활하였고, 1570년 퇴계의 서거 후 제자들은 기존의 건물에 상덕사, 진도문, 동재, 서재, 동광명실, 서광명실, 전사청, 장판각 등을 증축하여 서원의 면모를 갖춘 뒤 이듬해 나라에 요청하여 ‘도산서원’이란 편액을 하사받음.
- 도산서원은 창건 이후 이른바 ‘퇴계학파’의 중심적인 서원으로 영남 유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함.



그림 IV-47. 도산서당(1561)에서 농운정사의 확장과 더불어 현재의 도산서원(1575)으로 확장되는 과정(단, 역락서재는 1561년 완공됨)





그림 IV-48. 복원된 계상서당과 한서당

### (3) 물적경관

- 도산서원 앞에는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과거시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시사단이 있음. 과거 시사단 주변에는 남쪽으로 사면과 모래밭이 존재했고,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 현재도 갈수기에는 서원으로부터 시사단으로 이어지는 잠수교가 드러나 도보와 차량으로 지나다닐 수 있음.
- 퇴계는 한서암, 계상서당, 도산서당에서 모두 연당을 만들었는데, 도산서당에서는 정방형의 정우당을 조영함.
- 고봉의 「도산전도(陶山全圖)」, 겸재 정선의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 등을 통해 석교와, 곡구암, 풍류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재 올바른 위치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음.
- 도산잡영(陶山雜咏)의 간류(澗柳)에는 ‘산골 물가의 수양버들(澗邊垂柳 / 간변수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는 자연히 풍류스런 나무로다(自是風流樹 / 자시풍류수)’라는 기록이 있어 도산서원 주변에 버드나무가 풍류수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현재 도산서원의 앞뜰에 있는 버드나무가 도산잡영의 풍류수 일부 혹은 그 잔존수로 추정됨.



그림 IV-49. 시사단으로 통하는 잠수교  
(출처 : 경북in뉴스)



그림 IV-50. 1970년대 초반 사진에서 나타나는 송림과 숲  
(출처 : 도산서원 이동구 전 별유사 제공)



그림 IV-51. 고봉의 도산전도에 그려진 풍류수와 석교, 나룻배의 위치  
(출처 : 도산서원 이동구 전 별유사 제공)





그림 IV-52. 정우당

그림 IV-53. 풍류수로 추정되는 나무  
(출처 : 대한금융신문 2021)

#### (4) 심상경관

- 천광운영대는 주자의 「관서유감(觀書有感)」이라는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어울려 오가네(天光雲影共徘徊 / 청광운영공배회)라는 대목을 가져와서 강이 내려다 보이는 누대를 천광운영대라고 명명함.
- 천연대는 시경(詩經)에서 나오는 술개는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뿔다(鳶飛戾天 魚躍于淵 / 연비려천 어약우연)라는 시를 빌려 명명함.
- 퇴계가 도산서원의 어귀를 곡구암(谷口巖)이라 명명하였지만 안동댐 건설로 인해 유실되었음.
- 정선은 이황이 생전에 머물렀던 도산서당을 비추어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를 그렸고 해당 그림은 현재 한국의 천 원권에 인쇄되어 국가적 상징이 되고 있음.
- 안동댐으로 인하여 1975년에 현재의 석간대 아래에 위치한 선착장에 있던 석간대의 위치가 옮겨짐.
- 애일당은 이현보(李賢輔)가 94세의 아버지 이흠과 92세의 숙부, 82세의 외숙부 김집을 중심으로 구로회(九老會)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즐겁게 소일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짓고, 당호를 애일당이라고 하였음. 8칸 집으로 이언적, 이황, 이현보 등의 시문 편역이 걸려 있기도 함.
- 애일당은 원래 도산면 분천리 산11-1번지에 있었으나 안동댐 건설에 의한 수몰로 분천리 산11-17번지로 이전되었다가, 2004~2005년 '농암종택 복원사업'이 도산면 가송리에서 추진됨에 따라 애일당이 가송리의 농암종택 내부로 이전하였음.
- 도산구곡의 경우 후대에 지어졌는데, 후계 이이순(1754~1832)의 문집 「후계집(後溪集)」에서 찾을 수 있음. '내가 보건대 청량에서 운암까지 45리 사이에 명승지가 많은데 도산이 그 가운데 자리해 상하를 관할하며 한 동천을 만든다. 시험 삼아 그 굽이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무이구곡의 예를 따라 나누면 운암(雲巖)이 제1곡이 되고, 비암(鼻巖)이 제2곡이 되고, 월천(月川)이 제3곡이 되고, 분천(汾川)이 제4곡이 되고, 탁영담이 제5곡에 있으니 이곳은 도산서당이 있는 곳이다. 제6곡은 천사(川砂)이고, 제7곡은 단사(丹砂)이고, 제8곡은

고산(孤山)이고, 제9곡은 청량(淸凉)이니 굽이굽이 모두 선생의 제품(題品)과 음상(吟賞)이 미친 곳이다.’



그림 IV-54. 천 원권과 계상정거도  
(출처 : 경북일보)



그림 IV-55.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  
(출처 : 리움미술관)



그림 IV-56. 강세황의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IV-57. 1973년 사진의 곡구암  
(출처 : 도산서원 이동구 전 별유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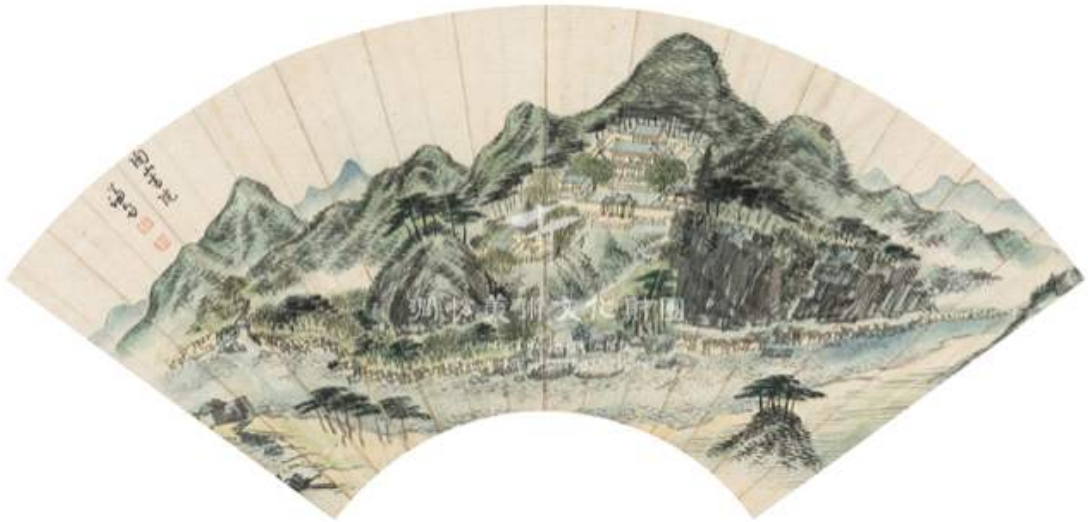


그림 IV-58. 겸재 정선의 도산서원도  
(출처 : 간송미술문화재단)



그림 IV-59. 천광운영대, 천연대, 석간대  
(출처 : 도산서원관리사무소 2021)



## (5) 사회경관

- 도산서원은 낙동강이 범람할 때 귀가하지 못하는 의촌리 주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주민센터 역할을 하였음.
- 1970년대에 도산서원과 낙동강 사이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신작로가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안동댐 건설로 유실 됨.
- 현재 서원의 북북동쪽(도보 30분)에 위치한 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산서원 내에서도 2015년에 조직된 ‘참공부모임’을 통해 퇴계의 정신을 참답게 공부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함. 추가로 도산서원 일기강독회도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시사단 뒤 의촌리에서 청보리밭을 가꾸고 있어 서원 경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



그림 IV-60. 안동청보리밭 축제

(출처 : 경북매일신문)

## (6) 주요 쟁점

- 안동댐으로 인한 주변 경관 요소 유실 : 도산서원의 가장 큰 변화는 안동댐으로 인한 낙동강의 수위 변화임. 이것으로 인해 변화가 생긴 것은 1) 진입로, 2) 곡구암, 3) 탁영담, 4) 석교, 5) 천연대, 6) 석간대, 7) 시사단 사면과 수림대 등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안동댐의 건립은 도산서원의 경관 요소에 비해 다른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경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음을 학습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사례를 통해 경관 자원 조사의 중요성과 서원과 연관된 무형적, 정신적 자원들도 함께 보존관리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서원 과거 풍경의 복원 논의 : 예전 진입로는 낙동강변 신작로를 따라서 가다가 계곡부 올라가는 진입 체계를 가졌음. 하지만 이것이 댐 건설 때문에 훼손되고, 현재 주차장을 따라 곧바로 서원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천연 대와 천광운영대의 의미가 퇴색되어 서원의 점층적인 진입체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임. 따라서 예전의 낙동강변을 활용하여 과거 진입체계와 석교, 곡구암 등의 의미를 되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현 진입로는 퇴로로써 활용 가능). 시사단 주변은 과거 해송림과 모래밭이 절경을 이루는 곳으로 지역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명소임. 그러나 현재는 단순 사면 위주로만 남겨져 있어 풍경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우며 과거 7,000여 명이 모여 시험을 치른 장소라는 맥락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사단 사면을 대폭 완화하고 주변의 송림과 모래언덕 등을 적극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형 경관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과거 도산서원에서는 배를 건조하기도 하였으며, 나룻배를 통해 섬촌마을과 서원을 드나들었음. 특히 홍수 등으로 인해 강을 건널 수 없으면 도산서원은 미처 귀가하지 못하던 학생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주던 곳이기도 함. 이것은 중요한 공동체 요소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룻배가 그같은 지역 내 공동체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철저한 고증을 통해 나룻배를 복원하여 서원과 사우단 지역을 연결해 주면서 낙동강에서 서원을 바라보는 옛 경관구도까지 회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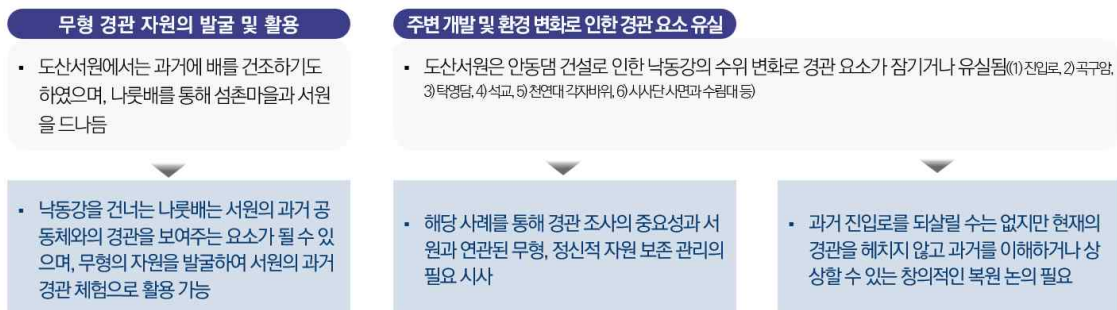


그림 IV-61. 도산서원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5) 필암서원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
면적	52,666.8㎡
주향자	하서 김인후 (1510~1560)
소재지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번지
시대	조선 현종 3년(1662)
소유자(소유단체)	필암서원
관리자(관리단체)	장성군

## (1) 입지경관

- 필암서원은 평지에 건립된 서원으로, 서원 뒤쪽은 아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앞쪽은 넓은 들판과 계류가 흐르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국에 입지되어 있음.
- 대지는 남북으로 긴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서원 밖에는 홍살문과 하마석 그리고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음.
- 필암서원은 경사지가 아닌 산기슭 아래 평탄한 곳에 건립된 서원인데도 누 아래로 출입하게 되어 있음. 이는 증산에서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원래 경사지인 증산에 있던 누문 형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으로 보임.
- 증산의 필암서원이 계류의 홍수로 인해 읍긴 내력을 통해 과거 문필천의 계류가 현재와 달랐음을 알 수 있음. 증산 필암서원 앞으로 계류가 흘렀을 것으로 추정됨.
- 명료한 단일의 종축과 동서제의 횡축이 존재함. 들판, 홍살문, 확연루, 청절당, 우동사, 뒷산으로 연결됨.
- 은행나무는 축에서 비껴져 식재되어 있어 진입 공간의 유연성을 보여주며, 확연루의 느낌을 살리고 시선을 확보하게 됨.
- 필암서원의 입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히는 것은 문필천임. 문필천은 하서묘소와 생가가 있는 맥동마을 그리고 난산의 통곡대로부터 서원까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정신적인 통로와 맥의 역할을 하게됨. 이는 서원의 주향자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입지 공간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IV-62. 필암서원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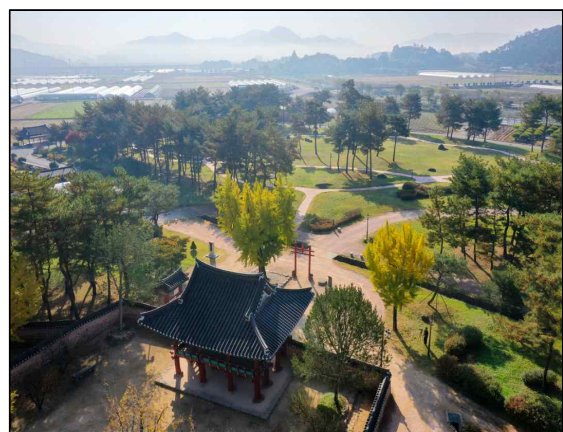


그림 IV-63. 필암서원의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그림 IV-64. 필암서원의 배치 구조

## (2) 역사경관

-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의 도학을 추모하기 위해 하서 사후 30년(선조 23년, 1590)에 변성온 등이 창건한 서원으로 호남 지방에 현존하는 서원 가운데에서 가장 유서 깊고 규모가 큰 대표적인 서원임.
- 이 서원은 처음에 장성읍에서 서쪽으로 십 리 떨어진 기산리에 창건되었다가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으로 효종 9년(1658)에 황룡 증산 마을의 경사진 대지로 이관하였음.
- 그 후 현종 13년(1672) 3월 증산에 홍수가 나자 안전한 곳을 찾아 현재의 위치인 추산으로 다시 이관하게 됨. 송시열이 쓴 「서원이건봉안문(書院移建奉安文)」에는 “이전 전의 서원에서는 제사지낼 곳이 비좁고 경사져 있었다”고 적혀 있음.
- 연재 송병선(1836~1905)이 고종 9년(1872)에 쓴 필암서원 「묘정비문(廟庭碑文)」에 의하면, 필암서원이 창건된 기산 동구의 바위가 깎은 듯이 서 있는 것이 마치 붓같은 형상을 했으므로 붓바위, 즉 ‘필암’으로 사액했다고 함.



그림 IV-65. 필암서원의 이동 과정

(출처 : 이상호, 2014)

### (3) 물적경관

- 서원의 문루인 확연루 앞에는 학자수인 큰 은행나무 2주가 대칭으로 서 있고, 한 그루는 보호수로 지정됨.
- 누문의 이름을 ‘확연루’라고 한 연유는 영조 36년(1760)에 초천 김시찬이 쓴 『확연루기(廓然樓記)』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음. “정자의 말씀에 군자의 학을 확연하여 크게 공정하고, 하서 선생은 가슴이 맑고 깨끗하여 확연히 크게 공정하므로, 이에 우암이 특별히 ‘확연’이란 두 글자를 발휘했다.”는 것임.
- 필암서원에서 연못은 중요한 경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산 필암서원에서 서원을 구성하는 요소로 추정된다고 함. 현재의 위치에서도 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송명흠의 『필암서원확연루중건상량문(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은 “우물은 조출코 골목은 좁으니 안정(顔亭)의 풍류는 변하지 않고”라는 내용을 통해 우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음.
- 문필천 들판 언저리에는 김인후의 생가이면서 강학을 한 백화정과 인종의 승허를 슬퍼하며 통곡했다고 전해지는 김인후 난산비(난산 통곡대)가 있고, 김인후의 묘소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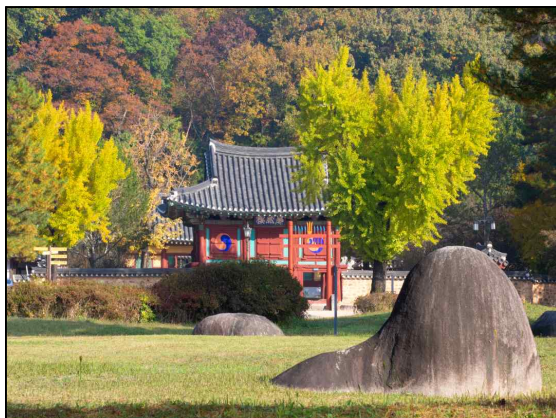


그림 IV-66. 필암서원 앞의 은행나무와 확연루 앞에 펼친 들판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그림 IV-67. 하서 묘소  
(출처 : 중부일보)



그림 IV-68. 하서 난산비  
(출처 : 문화재청)



그림 IV-69. 필암 바위



그림 IV-70. 백화정에서 바라보는 경관

#### (4) 사회경관

- 1970년대 초까지 필암서원의 춘향제와 추향제, 백중에는 정읍농악대가 와서 문필천에서 확연루 앞까지 길가를 진행함. 길가는 확연루 앞 은행나무에서 절정에 달했다고 함.
- 문필천의 웃머리에는 김인후의 생가이면서 강학을 한 백화정과 난산 통곡대, 김인후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문필천부터 확연루로의 길가는 김인후의 가르침을 연결하는 의례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IV-71. 6.25 직후의 정읍농악단  
(출처 : 새전북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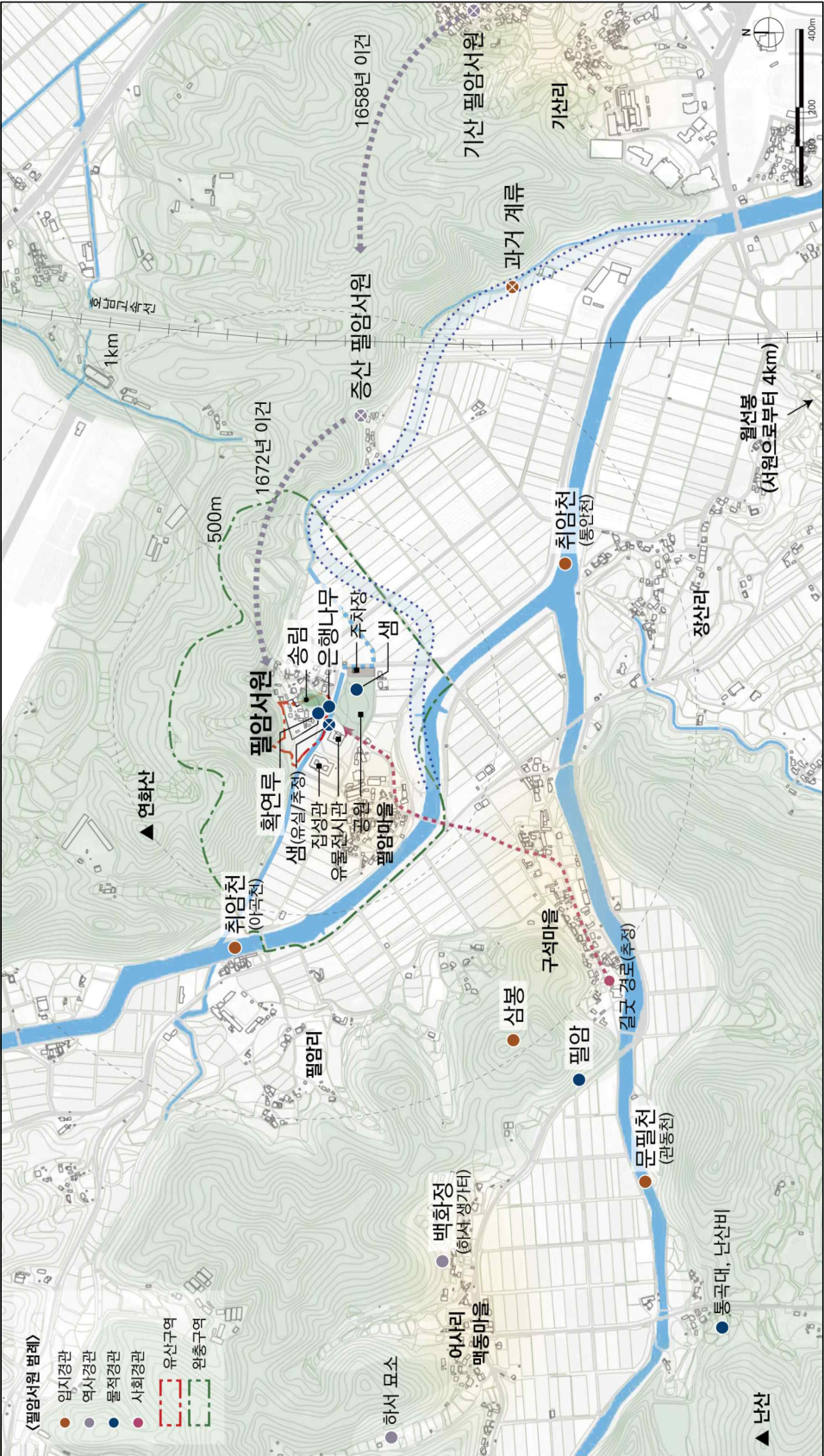
## (5) 주요 쟁점

- 문필천 보존 관리 : 문필천과 자계천은 필암서원에서 중요한 경관 요소임. 특히 문필천의 경우 백화정과 김인후 묘 등 필암서원의 정신적 역할을 하는 장소로부터의 연결성을 갖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과거 증산 필암서원의 경우 홍수로 인해 현재로 이진 되었지만, 지금은 그 계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이처럼 서원의 이동 과정에서도 계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태계와 함께 관리해야 함.
- 공동체와의 지속가능한 관계 유지 : 필암서원은 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한 몇 가지 긍정적인 검토점이 존재함. 화합을 위해 마을 이장을 제관에 위촉하고 있으며, 마을의 노인회장 또한 제관에 위촉하고 있음. 마을 소멸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으며, 서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적인 관심이 요구됨.
- 관광 인프라 개발로 인한 경관 이질화 : 서원 전면부 기념관과 평생교육관, 공원 등의 조성으로 인한 경관 이질화가 발생함. 특히 확연루 앞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대형목을 식재하고 기념관 등을 건립한 것은 확연루 본래 개념을 훼손시킬 여지가 크므로 역사적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IV-72. 필암서원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6) 도동서원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
면적	26,766㎡
주향자	한훤당 김굉필 (1454~1504)
소재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시대	1605년
소유자(소유단체)	도동서원 등
관리자(관리단체)	달성군

### (1) 입지경관

- 서원은 대나산의 한 줄기가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끝자락 북쪽 기슭에 북향하여 입지하고 있음. 앞에는 강 건너 고령 땅의 개진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서원의 뒤로는 산의 능선이 동쪽으로부터 뻗어와 남쪽과 서쪽까지 3면을 에워싸고 있으며, 전면인 북방만이 트여 낙동강과 접하게 됨.
- 이러한 특별한 지형에 맞추어 건립된 까닭에 도동서원은 전체적으로 북향하고 있음.
- 도동서원은 김굉필의 묘소 인근에 터를 잡았는데 김굉필의 외손인 한강 정구가 서원의 입지와 배치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도동서원을 주로 출입하는 방향은 현풍읍지와 김굉필의 연고지인 솔레촌과 가까운 동쪽의 길임. 도동서원의 동쪽인 현풍에서 출발하였을 때 강변의 평탄한 길로 이어지다가 서원 바로 옆에 경사가 급한 다람재를 넘어야 함.
- 낙동강 건너편에서는 뱃길을 이용해 서원으로 건너다닌 것으로 추정되며, 서원이 소유한 배도 있었다고 함. 『석담집(石潭集)』에 의하면, 1617년 이윤우가 도동서원에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거슬러 방문하는 기록이 있음.
- 과거 낙동강 남쪽 강변에는 도동나루가 존재했고, 북쪽 강변에는 개진나루가 있어, 배를 이용할 수 있었음.
- 도동서원은 경사진 지형과 지세를 잘 이용하여 중심축선상에 수월루, 환주문, 중정당, 내삼문, 사당을 배치하고, 오른쪽으로 고직사, 전사청 등의 부속공간을 배치하여 가장 규범적이고 전형적인 서원의 배치 형식을 보임.
- 서원에서 보았을 때 낙동강 건너 보이는 고립된 작은 산은 개구리처럼 보인다고 하여 개구리 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산줄기가 모여드는 모습을 개구리를 쫓는 뱀의 형상이라고 하여 장사추와형(長蛇追蛙形)이라고 함. 또는 다섯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쟁취하려는 오룡쟁주형(五龍爭珠形)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제향, 강학, 유식의 1개 종축이 형성되어 있으며 좌우대칭이 엄격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줌. 이 축은 전면의 은행교목까지 이어짐. 동서재가 대칭으로 횡축을 구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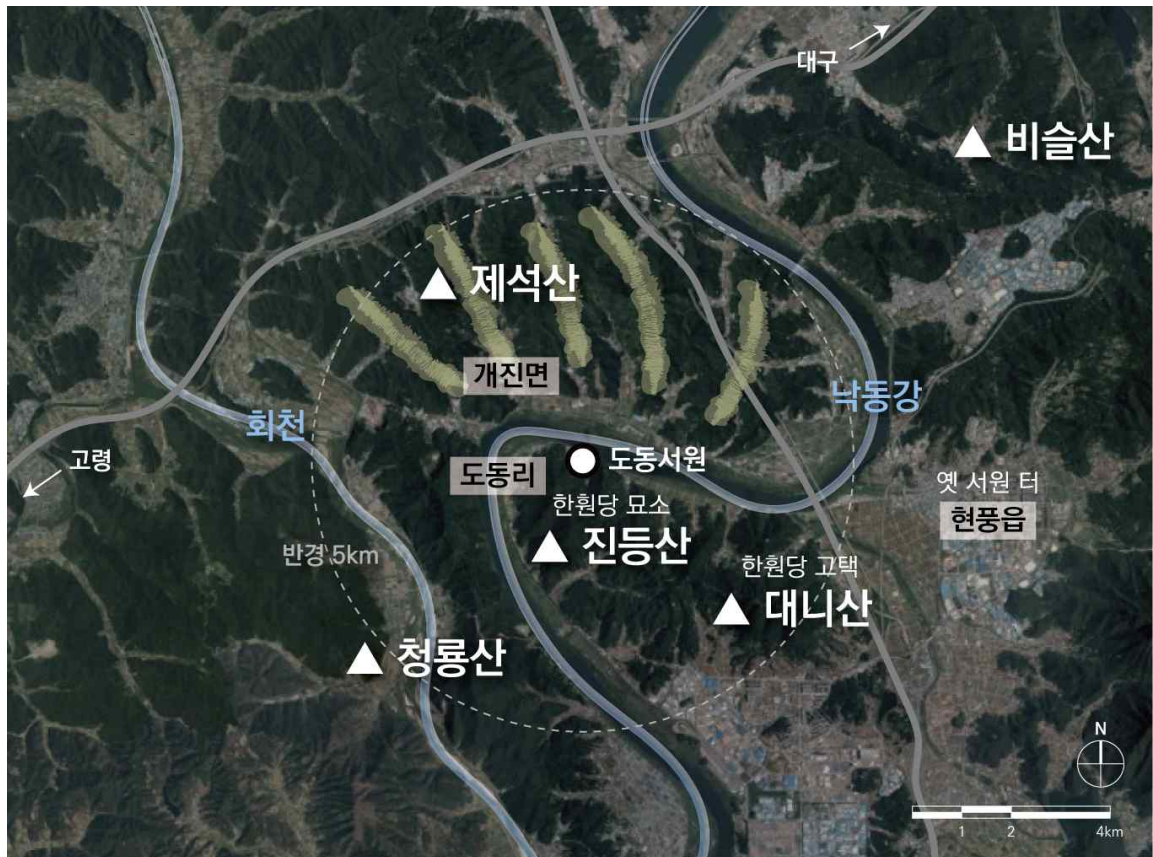


그림 IV-73. 도동서원의 입지



그림 IV-74. 도동서원의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그림 IV-75. 다람재에서 바라보는 경관



그림 IV-76. 도동나루와 건너편 개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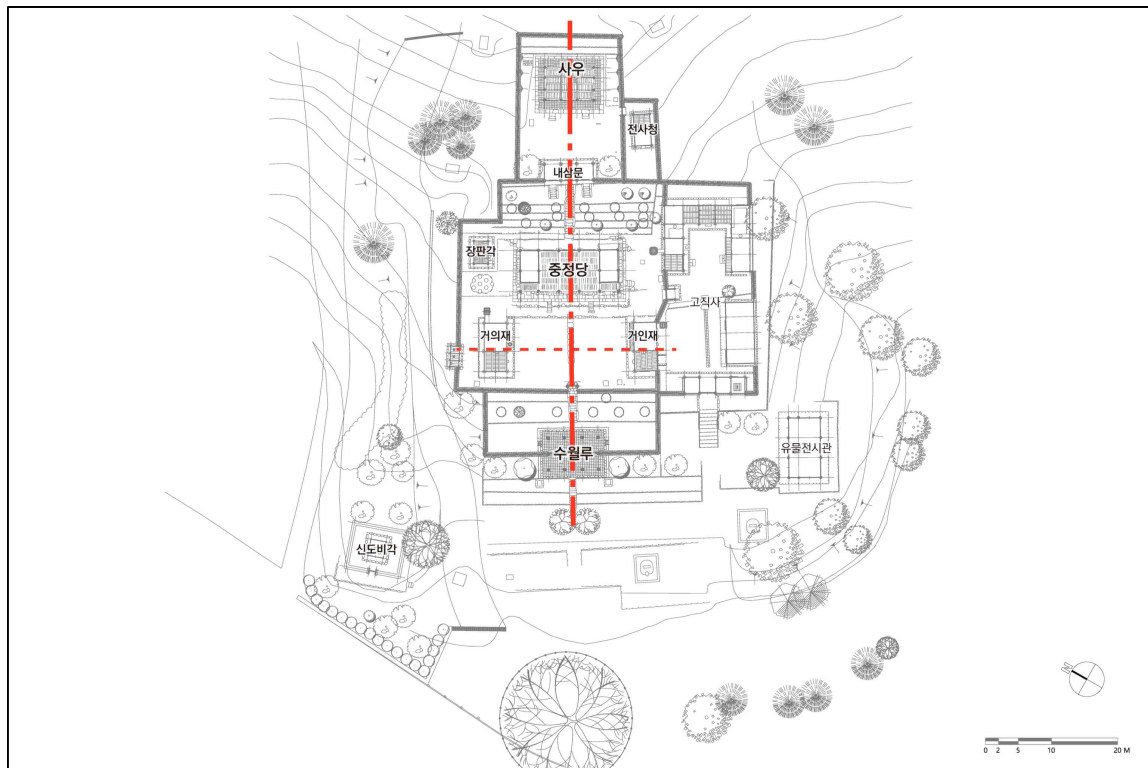


그림 IV-77. 도동서원의 배치 구조

## (2) 역사경관

- 도동서원은 선조 1년(1568)에 현재의 서원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져 위치하는 현풍 동쪽 비슬산 기슭 쌍계동에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의 도학과 덕행을 지표로 삼아 유생들이 수학, 연찬하고 그를 제향하기 위해 건립됨.
- 그 후 선조 6년(1573)에 쌍계서원으로 사액되었으며,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자 선조 38년(1605)에 현



제의 장소로 이간하여 보로동 서원으로 중창됨.

- 쌍계동의 ‘쌍계’란 북서쪽 초곡리에서 발원해 흐르는 시내와 남쪽의 현풍천이 만난다는 뜻이고, 보로동은 마을의 이름임.
- 1607년에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라는 의미에서 ‘도동서원’으로 다시 사액되었으며, 광해군 2년(1610)에 위판을 봉안했고, 동네 이름도 도동으로 바꿈. 현재의 위치는 김굉필 묘소의 아래임.
- 『한강선생문집(寒岡先生文集)』의 권11 「도동서원봉안한환당김선생문(道東書院奉安寒宣堂金先生文)」을 살펴보면, 대니산이 높고 낙동강이 넘실대는데 옮긴 자리가 은거지와 가까움을 밝히고 있음.
- 숙종 4년(1678)에는 김굉필의 외종손인 한강 정구(1543~1620)가 추가 배향됨. 이때의 배치형식은 수월루만 제외하고는 현재의 모습과 동이했을 것으로 추정됨.
- 수월루는 1855년 인근의 선비들이 환주문 앞에서 창건한 누각임. 누각을 창건한 이유는 “서원의 제도를 갖추려면 누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서원을 출입하기에는 가파르고 답답하다.”라는 공간적인 이유에서 비롯됨.
- 수월루는 고종 25년(1888)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73년에 복원됨.
- 김굉필 선생과 연관된 건물로 사망 이후 후손들이 독서당을 세웠는데, 그곳에 샘이 있어 정수암(淨水庵)이라고 함. 현재는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대니산 기도처로 사용 중임.



그림 IV-78. 쌍계서원(옛 도동서원) 추정터  
(출처 : 푸른신문)



그림 IV-79. 한강문집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IV-80. 정수암(왼쪽)과 한환당 고택(오른쪽)의 모습  
(출처 : 디지털달성문화대전)

### (3) 물적경관

- 서원 앞에 ‘김평필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큰 은행나무가 한 그루 식재되어 있음. 수령이 400~500년 된 것으로 보이는 이 고거목은 도동서원의 장구한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음.
- 서원 입구에 세워진 수월루는 19세기에 창건된 누문이며, 현재의 건물은 1970년대에 중건된 것임. 수월루는 철저하게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건립된 건물로, 창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수월루에서 바라다보이는 주변의 경관이 명확히 드러나 있음.
- 강력한 단일축 좌우 경사지를 따라 다양한 높낮이의 석축이 조성되어 공간에 정연한 질서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물과 꽃 등 형상의 세부적인 돌장식이 곳곳에서 배치되어 있어 경관의 아름다움을 주고 있음. 또한, 사암으로 된 강당의 기단석들은 조각보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움을 가져다줌.



그림 IV-81. 도동서원 앞 은행나무



그림 82. 용 문양 석조각



그림 83. 자라 문양 석조각





그림 84. 다람쥐 문양 석조각



그림 85. 거북이 문양 석조각

#### (4) 심상경관

- 강이나 계곡 가에 입지한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도동서원 주변 낙동강에도 9곡이 설정되어 있음. 박이곤(1730-1783)의 『지촌집(芝村集)』에 「낙강도가경차무이구곡(洛江棹歌敬次武夷九曲)」이 기록되어 있음.
- 당시 우곡의 부래에서 개진 건너 상산까지 9곡을 명명하였는데, 1곡이 부래(浮來), 2곡이 대장산(大丈山), 3곡이 개경포(開經浦), 4곡이 제석암(帝釋巖), 5곡이 금산(金山), 6곡이 백석만(百石灣), 7곡이 옥서탄(玉嶼灘), 8곡이 현풍수곽(玄風水郭), 9곡이 상산(商山)임.
- 도동서원 사당의 내부 양 측면에는 「강심월일주(江心月一舟)」, 「설로장송(雪路長松)」이라는 그림의 벽화가 걸려 있으나 연대와 작자가 미상임. 사당 창건 당시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IV-86. 도동서원 강당 왼쪽에 위치한 강심월일주



그림 IV-87. 도동서원 강당 오른쪽에 위치한 설로장송



그림 IV-88. 도동서원 주변에 위치한 낙동도가경차무이구곡  
(출처 : 이상호 2014)

## (5) 사회경관

- 대구과학대학 평생교육원이 예절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의무교육) 진행되는데 대구 교육청에서 서원 활용화 사업의 일환임.
- 과거 서원 앞의 도동나루에서 개진나루까지 이동하는 것이 마을과 서원의 관계를 가까이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함.



그림 IV-89. 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절 강의



## (6) 주요 쟁점

- 유산구역 내 개발로 인한 변화 논의 필요 : 도동 서원 옆에 3개의 동네 카페가 들어서 있고, 낙동가람 수변역 사누림길(도동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형 숙박들이 건립 중임. 이런 사업을 개발 관점으로 보아야 할 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로 보아야 할 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해당 건립 시설물에 대한 경관은 현재 문화유산 활용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지만, 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에 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주변 경관 시설물 관리 문제 : 도동서원의 경우 화장실을 군에서 시설관리를 진행함. 문제는 군에서 시설관리를 진행할 경우 주말에 근무 인력의 휴무로 인해 시설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임. 서원의 경우 주말 관람객이 많지만, 화장실 등 시설관리가 되지 않아 경관 시설물의 불편 요소로 작용함.

## 유산구역 내 개발로 인한 변화 논의 필요

- 도동 서원 옆에 3개의 동네 카페가 들어서 있고, 낙동가람 수변역 사누림길(도동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형 숙박들이 건립 중임

- 해당 카페와 숙박촌을 문화재구역에서 개발 관점으로 보아야 할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로 보아야 할지 고민 필요
- 건립 시설물에 대한 경관은 현재 <문화유산 활용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지만, 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에 관한 검토 지속 필요

## 시설물 관리 문제 (화장실 등)

- 도동서원의 경우 화장실 관리를 군에서 진행

- 주말에 근무 인력의 휴무로 인한 시설관리 불가
- 서원은 주말 관람객이 다수를 차지해, 서원 관계자들의 염려 사항



그림 IV-90. 도동서원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7) 병산서원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
면적	27,251㎡
주향자	서애 류성룡 (1542~1607)
소재지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번지
시대	조선 선조 5년(1572)
소유자(소유단체)	병산서원 등
관리자(관리단체)	안동시

## (1) 입지경관

- 낙동강 건너편의 병산은 일월 산계로 서원은 두 큰 지맥이 만나는 곳에 입지함.
- 학가산 일대가 뿌리에 해당된다면 풍천면 일대의 줄기부를 지나 화산에서 꽃을 피우고 꽃의 수술에 해당되는 정월이 바로 서원이 되는 것임.
- 서원 동쪽의 너들 대벽은 서쪽의 산세에 비해 높고 강렬함. 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데, 이것은 입수한 물의 동쪽의 강한 산세가 떠미는 형국을 이룸.
- 하회마을에서 낙동강을 따라 병산서원까지 빠르게 접근했던 옛길이 있음.
- 강학과 유식 공간이 1개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 사당은 중심축에서 동쪽으로 어긋나 있는데 뒤늦게 건립되면서 만들어진 결과임. 동서재가 횡축을 유지하고 있음.
- 낙동강, 복례문, 만대루, 입교당, 존덕사, 병산의 자연과 건축물의 입지 축이 자연스럽게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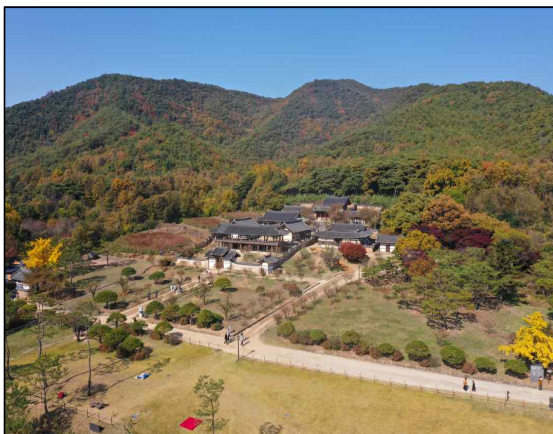


그림 IV-91. 병산서원의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그림 IV-92. 병산서원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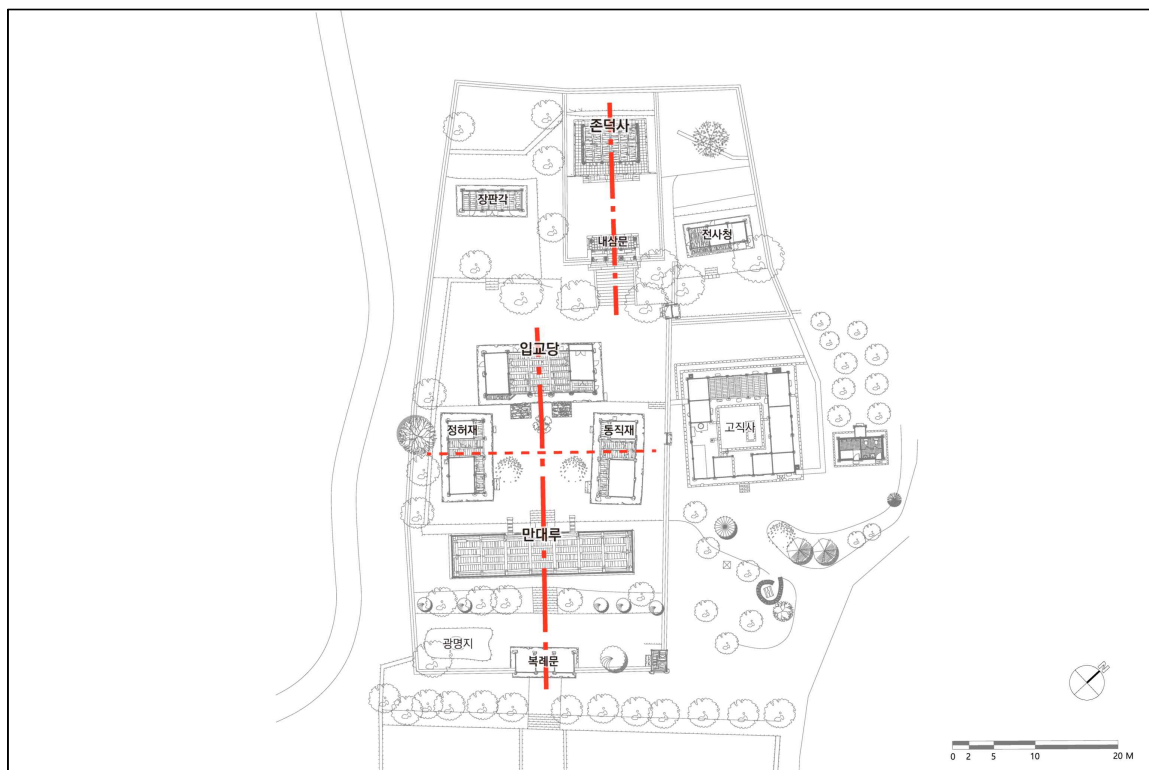


그림 IV-93. 병산서원의 배치 구조



## (2) 역사경관

- 병산서원은 고려 중기부터 있던 풍산 유씨의 교육기관인 풍악서당을 모체로 하여 건립됨. 특히, 서애의 고향인 하회에 위치하고 있음.
- 서당은 본래 풍산읍에 있었는데, 서당 건립 후 200년이 지나면서 유림들이 서당을 옮길 곳을 물색하던 중, 서애 선생께서 병산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권하게 되었고 유림들이 선생의 뜻에 따라 선조 5년(1572년)에 서당을 병산으로 옮겨옴.
- 그러나 광해군 5년(1613)에 우복 정경세 등의 제자들과 후손 그리고 풍산일대의 연관가문들이 연합하여 서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자 존덕사를 건립(1614)하면서 향사의 기능을 갖춘 서원의 모습을 갖게 됨. 이때 존덕사를 건립하면서 병산서원으로 개칭하게 됨.
- 그 후 1629년에 서애의 아들인 수암 유진이 추가로 배향됨.

## (3) 물적경관

- 만대루와 복례문 사이에 조성된 진입공간 서쪽으로 물길을 끌어들이어 축조한 작은 연당이 광명지임.
- 이 연못은 동서 약 8m, 남북 약 3.65m의 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연당 속에는 직경 1m 정도 되는 원형의 작은 섬이 조성되어 있음. 못의 서쪽에는 광명지라고 새긴 큰 돌 하나가 박혀 있음.
- 방지원도의 주변에는 오래된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섬에는 작은 소나무가 있었으나 고사되어 추후 식재 예정임.
- 만대루는 서원과 자연과의 매개체로서 외부경관을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때에 따라 연회의 객석으로 이용되었던 유생들의 풍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음.
- 만대루에서 낙동강으로의 조망선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과거에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지만 사라져서 최근에 소나무를 다시 심어 과거의 풍치를 복원하고 있음.



그림 IV-94. 만대루(왼쪽)와 광명지(오른쪽)  
(출처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8)



그림 IV-95. 서원 앞의 낙동강 조망선의 소나무 식재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 (4) 심상경관

- 남옹 류건춘이 하회마을 물돌이동 주변에 구곡을 설정함. 그가 지은 「하회구곡시(河回九曲詩)」는 『남옹유고(楠翁遺稿)』에 실려서 전해지고 있음.
- 하회구곡은 제1곡 병산, 제2곡 남포, 제3곡 수림, 제4곡 검암정, 제5곡 만송, 제6곡 옥연, 제7곡 도포, 제8곡 화천, 제9곡 병암으로 구성됨.



그림 IV-96. 하회구곡

(출처 : 이상호 2014)



## (5) 사회경관

- 1947년 병산교육재단이 병산중학교와 병산상업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이념이 이어진 사례임. 병산중학교와 병산상업고등학교는 풍산중학교, 풍산고등학교로 변경되게 됨.



그림 IV-97. 풍산중학교와 풍산고등학교

(출처 : 두산백과)

## (6) 주요 쟁점

- 진입로 문제 : 병산서원의 경우 진입로가 서원의 역사적 장소성을 저해시키고 있음. 매점 및 부속건물 등이 잘 정비 및 관리되고 있지 않아 장소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담장이나 생활타리를 통한 경관 정비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선유줄불놀이와 나룻배 : 선유줄불놀이는 역사적으로 음력 7월 16일에 진행하였음. 2023년에도 6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하였는데 안동시의 중요한 문화축제가 되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선유줄불놀이의 가장 큰 목적은 배를 타면서 노는 선유이기 때문에 과거에 선인들이 진행했던 선유에 대한 고증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음. 이는 하나의 문화경관 요소로서 서원에 무형의 진정성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1960년대까지 10월 말경에 설치되었던 썰다리를 서원의 문화경관 요소로 활용하여 주기적인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IV-98. 병산서원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8) 무성서원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
면적	8,015㎡
주향자	최치원 (857~?)
소재지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번지
시대	조선 숙종 22년(1696)
소유자(소유단체)	무성서원
관리자(관리단체)	정읍시

## (1) 입지경관

- 무성서원이 위치하는 곳은 조선시대의 남전으로, 호남의 삼대양택(담양, 구례, 정읍)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곳임.
- 남전은 정극인이 이곳에서 향약을 실시함으로써 유래된 명칭임. 도학자가 아닌 선정을 베푼 지방관을 제향하고, 입지도 옛 마을 한가운데 있음. 서원은 마을 안의 낮은 구릉을 등지고 평지에 입지하고 있음.
- 배산은 성황산인데, 성황산이란 군현에서 제사하는 산이고, 읍치의 진산(鎭山)을 의미함.
- 이러한 입지 특성은 상대적으로 서원 경관의 외부 지향적 개방성을 협소하게 하며,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에 비하여 건물 규모가 작고 간략함.
- 풍수지리학상으로 배산임수의 지형을 이루고 있음. 또한, 좌청룡, 우백호로 감싸고 있으며 혈의 위치에 놓여 있는 명당임.
- 제향과 강학 공간이 하나의 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동서재가 존재하지 않음. 마을과 가깝기 때문에 동서재를 마을의 시설을 빌려서 썼을 것으로 추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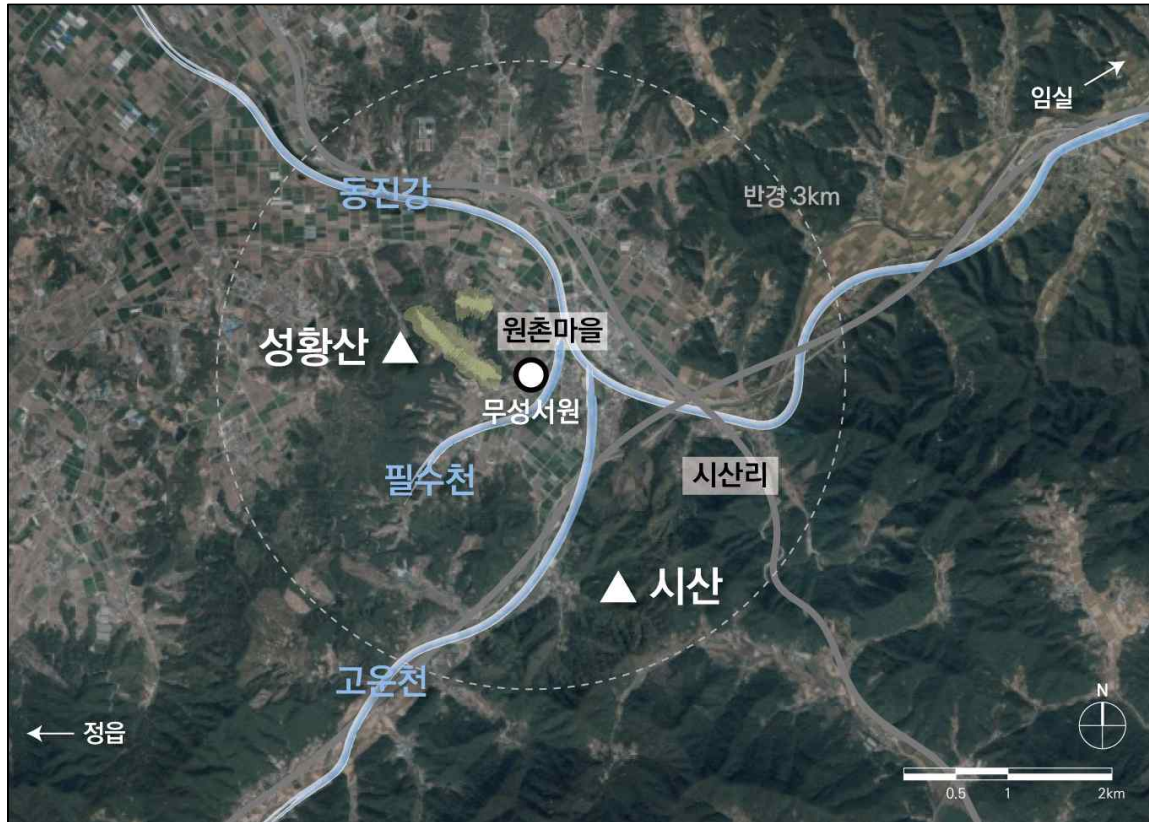


그림 IV-99. 무성서원의 입지



그림 IV-100. 무성서원의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그림 IV-101. 무성서원의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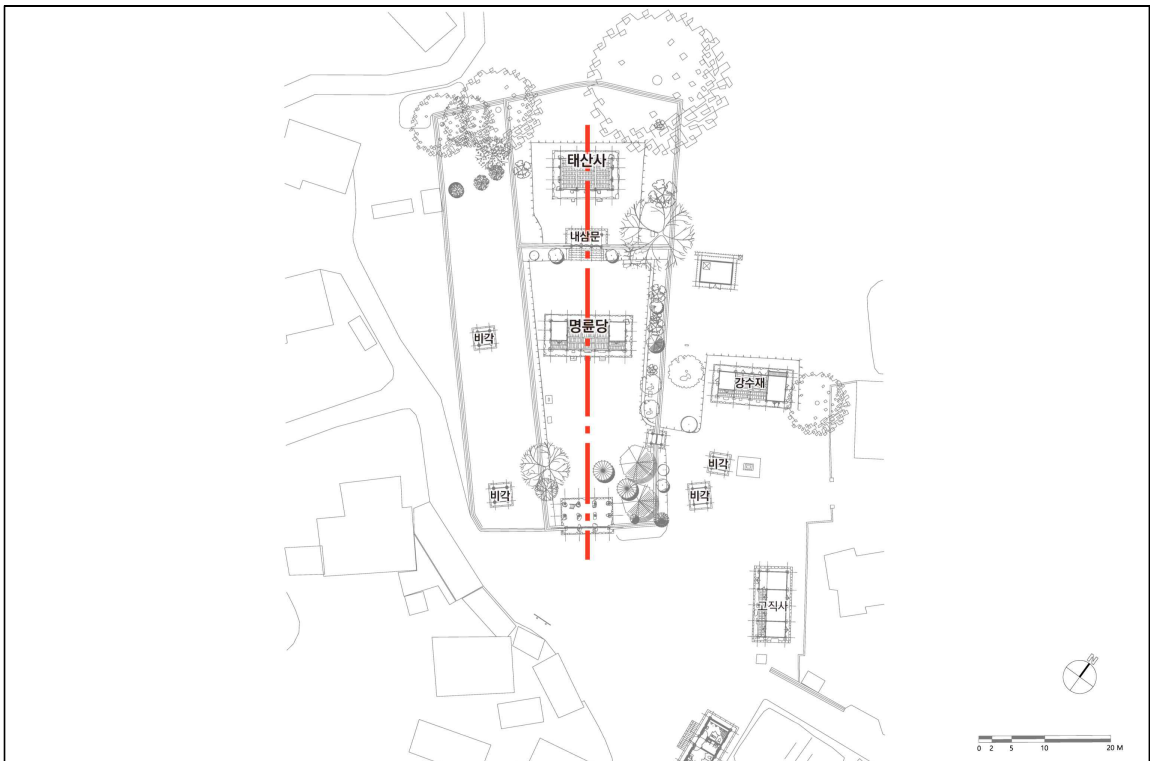


그림 IV-102. 무성서원의 배치 구조



## (2) 역사경관

- 무성서원은 고려시대에 고운 최치원(857~?)을 기리기 위한 사당인 태산사에 기원을 두고 있음.
- 고려시대에 최치원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한 생사당을 유상대 위에 건립하였고, 성종 14년(1483) 향인들이 생사당을 불우현 정극인(1401~1481)이 세운 향학당이 있던 현재의 자리로 이관하고 태산사로 개칭함.
- 증종 39년(1544)에 태인 현감이던 영천 신잠(1491~1554)이 강원도로 떠날 때 신잠을 위한 생사당(살아있는 인물을 위한 사당)을 짓고 배향하다가 최치원의 태산사와 이것을 병합하여 태산서원을 건립함.
- 그 후 광해군 7년(1615) 정극인, 놀암 송세립, 목재 정언충, 성재 김약목, 명천 김관을 추가로 배향하였으며, 숙종 22년(1696)에 ‘무성’이라는 사액을 받고 서원으로 개칭됨.
- 즉, 무성서원은 두 개의 사원에서 시작하여 확대된 서원이며, 강학을 위주로 하는 일반 서원과 다른 공간 구성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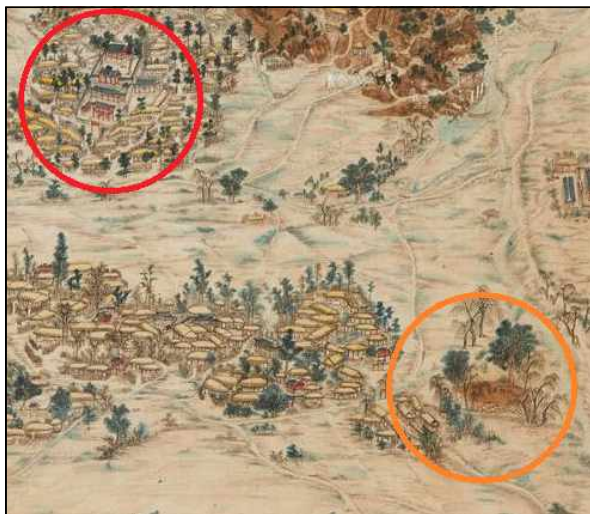


그림 IV-103. 채용신 칠광도의 무성서원(빨강)과 유상대터 위치(주황)  
(출처 : 정읍시립박물관)



그림 IV-104. 고운 최선생 유상대 유적지비와 유상대터의 석물  
(출처 : 정수환 외 2019)

## (3) 물적경관

- 서원 전면의 하천에 위치하는 유상대는 고운이 태안현감으로 재임시 반석 같은 바위가 있고 그 밑으로 물이 굽이쳐 도는 계류상에 대를 조성하여 곡수연(유상곡수)을 벌이며, 음풍영월하던 장소로 후세에 감운정이 건립.
- 광해의 폭정이 극도에 이르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돌아와 뜻있는 선비 7인이 결사회적하며 세월을 보낸 송정이라는 정자가 있음. 정자 위치는 원래 동진강 계류에 가까웠으나, 동진강의 직선화로 본래 경관이 사라짐.
- 후세인 1898년에 후송정을 세웠으나 이것을 1985년에 다시 증건하였음.
- 최치원은 유상대에서 유상곡수를 즐기면서 풍류를 만끽하였음. 현재는 유상대 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물이 남아있으며, 조지겸이 찬술 『고운 최선생 유상대 유적지비(崔先生 流觴台 遺蹟之碑)』가 세워져 있음. 현재 남아 있는 석물은 1970년 새로 만들어진 것임.





그림 IV-105. 감운정



그림 IV-106. 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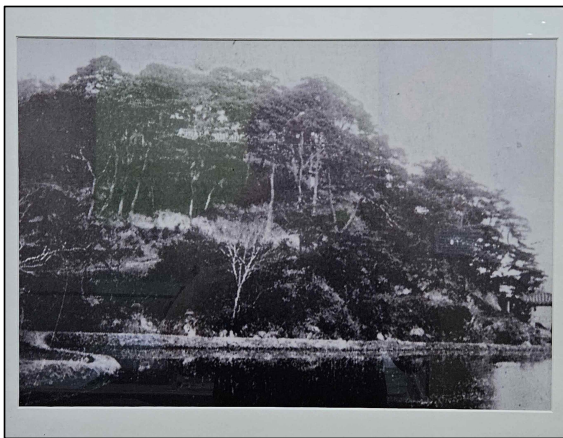


그림 IV-107. 후송정의 옛모습과 현재의 모습

#### (4) 심상경관

- 어진 화가로 유명한 석지 채용신은 1910년 당시의 무성서원과 그 일대를 세밀하게 표현한 「칠광도(七狂圖)」를 그림. 해당 그림을 통해 무성서원의 과거 입지와 민가와와의 관계 등을 추측할 수 있음.
- 채용신의 「송정십현도(松亭十賢圖)」는 1910년대 동진강이 송정의 앞을 흘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
- 무성서원의 문루 이름인 ‘현가(絃歌)’란 『논어(論語)』에 등장하는 ‘현가지성(絃歌之聲)’을 의미함. 이는 유교적 교육의 목적이 좋은 정치를 베푸는 현인을 양성하는 데 있으며, 백성을 다스림에는 읍(邑)이 크던 작든 간에 예악(禮樂)으로 해야 한다는 공자의 경세적 교화사상을 함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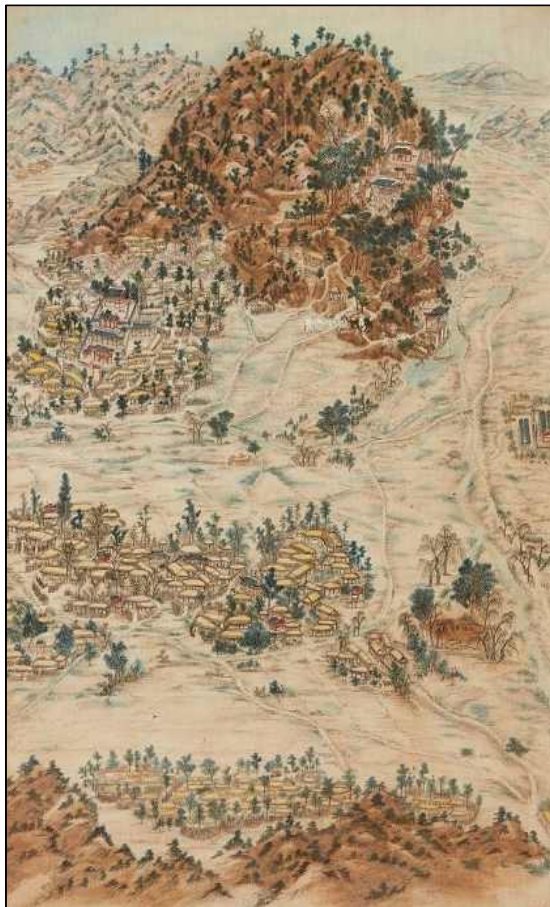


그림 IV-108. 채용신의 칠광도(七狂圖)와 송정십현도(松亭十賢圖)  
(출처 : 정읍시립박물관)



그림 IV-109. 문루 현가루(絃歌樓) 현판  
(출처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

## (5) 사회경관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주도 향약인 교현동 향약은 향음주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성서원이 중심 장소로 활용되었음.
- 『태인고현동향약(泰仁古縣洞鄉約)』은 정극인의 ‘향음서’를 비롯하여 400년간 시행한 향약 자료집임. 29책의 필사본으로 199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고 현재 동각(洞閣)에 보관되었음.
- 무성서원의 남동쪽 500m 부근에 위치한 동각은 ‘마을 사람이 모이는 집’이란 의미로서 향약이 논의되고 기록이 이뤄짐. 18세기에 건립된 남학당이 동각으로 불리면서 동각은 향약의 전당이 됨.



그림 IV-110. 태인 고현동 향약(泰仁古縣洞鄉約)과 원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IV-111. 교현동(현 시산리) 동각(洞閣)  
(출처 : 두산백과)



그림 IV-112. 향사를 지내는 관계자와 마을 주민  
(출처 : 무성서원)

## (6) 주요 쟁점

- 동진강과 필수의 하천 선형 변경 : 송정과 후송정의 위치는 동진강의 계류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줌. 과거 사진과 그림을 통해 동진강의 과거 계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송정과 후송정의 옛 정취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것은 서원의 중요한 경관 조망점이며 자원이 될 수 있음.
- 공동체와의 관계가 강한 서원 : 무성서원의 경우 공동체와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홍보와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음. 다른 영남권 서원에 비해 서원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며, 송사, 전통혼례, 상례, 향음주례와 같은 행사를 함께 주관하는 것이 특징임.

#### 동진강과 필수천의 선형 변경

- 송정과 후송정의 위치는 동진강의 계류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경관 요소

#### 향음 주례, 전통 혼례 등 서원 주도의 공동체 행사

- 무성서원은 지역공동체에 서원의 개방도가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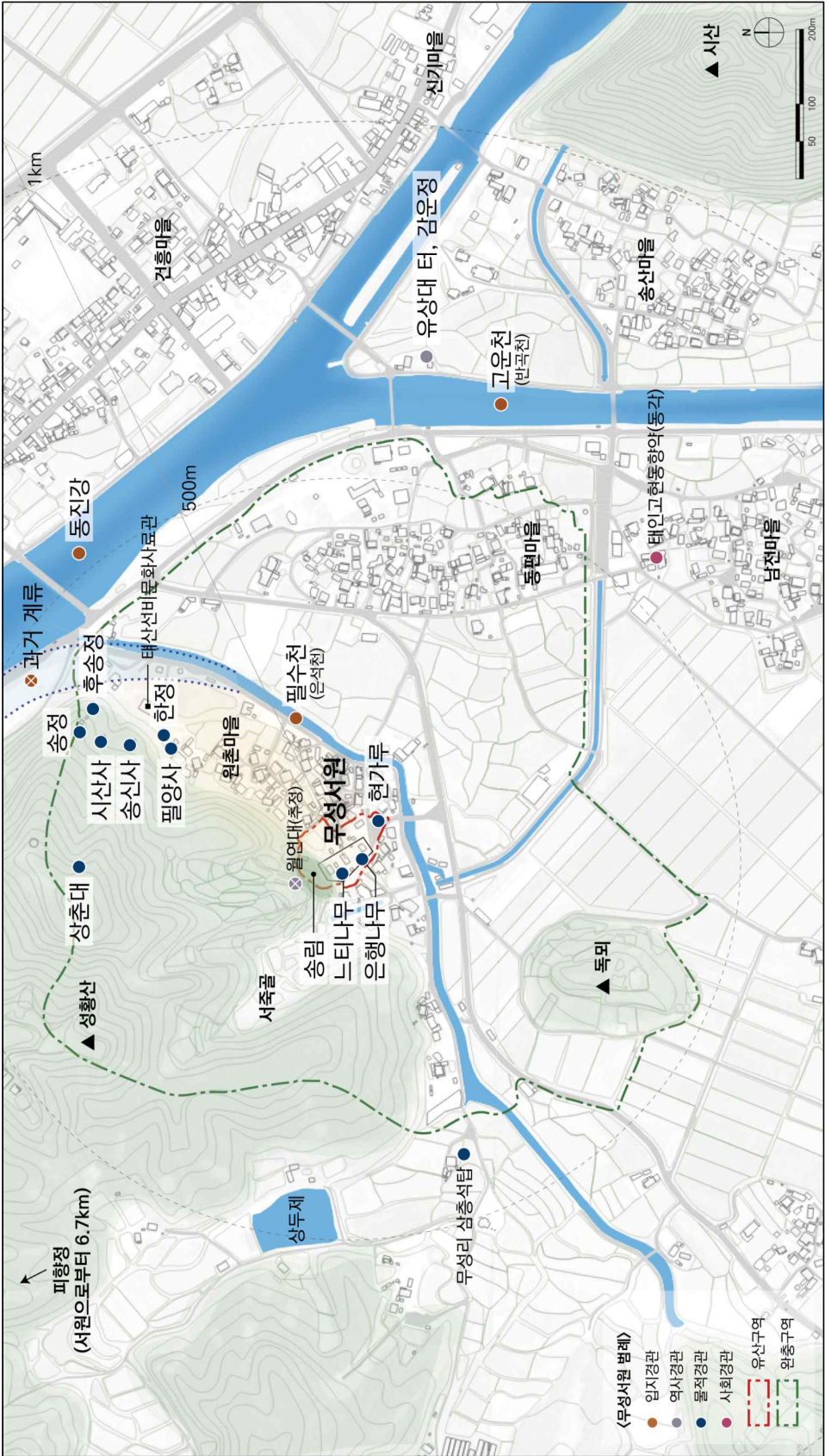
- 송정과 후송정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되며, 서원의 중요한 경관 조망점이자 자원이 될 수 있음
- 과거 사진과 그림을 통한 지속적인 과거 경관의 해석 및 발굴 요망

- 송사, 전통혼례, 상여, 향음주례와 같은 행사를 함께 주관



그림 IV-113. 무성서원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9) 돈암서원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
면적	64,699㎡
주향자	사계 김장생 (1548~1631)
소재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외 5필지
시대	조선 인조 12년(1634)
소유자(소유단체)	돈암서원
관리자(관리단체)	돈암서원

### (1) 입지경관

- 돈암서원은 고정산 줄기가 배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곳을 호계(虎溪)의 언덕이라고 불렀다고 함. 북서쪽을 등지고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완만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음.
- 『돈암서원이건묘장비(遷藏書院移建廟庭碑)』에는 이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건 전의 서원이 자연환경의 변화(시냇물의 흐름이 바뀌고)와 시간에 의한 건축물의 쇠락(담장이 무너지는 것)이 형세의 문제라고 하며, 지금의 입지를 선택한 이유로 호계의 터에 김장생 선생이 자주 오고 갔음을 시사함.
- 과거 돈암서원의 경우 김장생의 둘째 아들인 김집이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의 부록인 『몽안문(奉安文)』에서 “황령 아래, 청계 위에, 양현이 함께 계시는 곳, 백대를 두고 받드오리다”라고 서술된 것을 보면 사계천(청계)이 돈암서원의 입지로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김장생의 호인 사계가 해당 사계천에서 유래했다고 함.
- 또한 정엽이 김장생의 부탁으로 선조 36년(1603)에 지은 『양성당기(養性堂記)』는 양성당 주변의 경관과 함께 양성당을 건립하게 된 사연이 잘 드러나 있음.
- 돈암서원의 뒷길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서원을 방문하였다고 함.
- 서원의 배치 구조는 제향과 강학 공간이 하나의 종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의재와 거경재가 횡축을 가지고 있음.





그림 IV-114. 돈암서원의 입지



그림 IV-115. 돈암서원의 전경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년 지역의 전문 사진작가 등을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 및 배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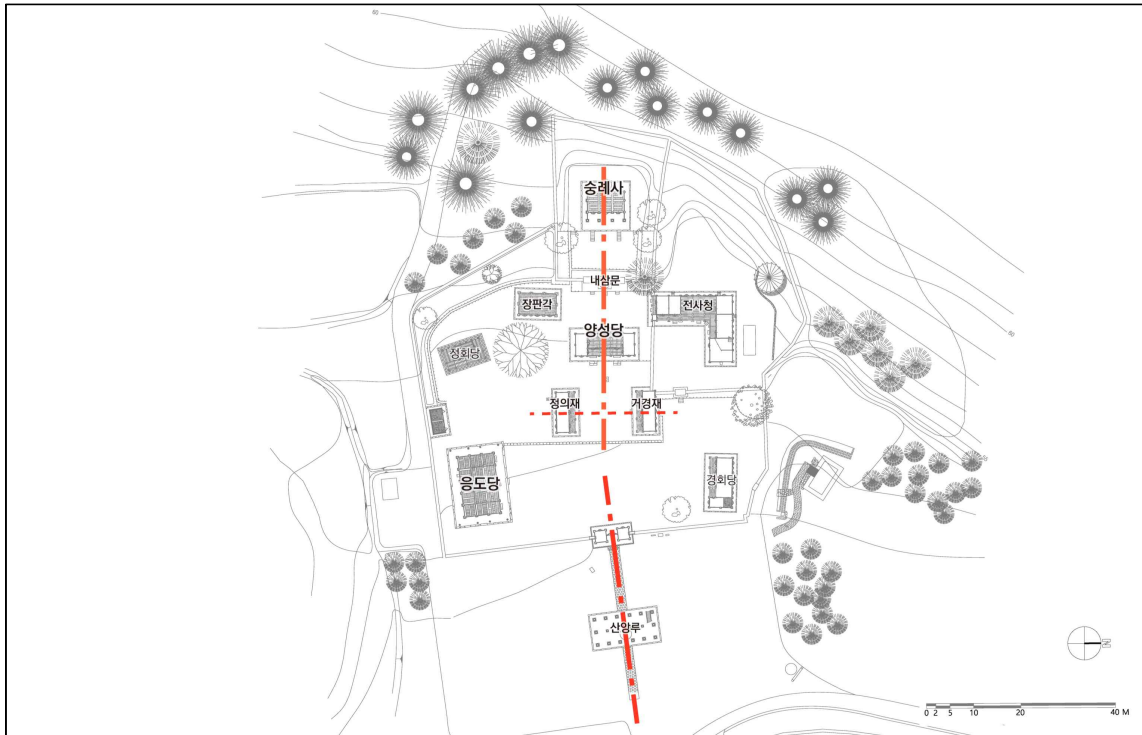


그림 IV-116. 돈암서원의 배치 구조



그림 IV-117. 양성당기

(출처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

## (2) 역사경관

- 돈암서원은 인조 12년(1634) 제읍사람들이 사계 김장생(1548~163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그의 학문을 잇기 위해 건립한 서원임.
- 사계가 양성당을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에 스승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주도하여 세운 서원임. 사계가 살던 과거 양성당이 있던 곳은 조선 초기에 최창강의 이한정(雅閑亭)이 있던 곳임. 이 터에 양성당을 짓게 됨.



- 이 서원은 원래 현재의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연산면 하임리에 창건되었으나, 지대가 낮아 홍수로 서원에 물이 들어오자 고종 17년(1880) 이곳으로 이건하게 됨.
- 서원이 처음 입지한 숲말 산기슭의 큰 바위를 돈암이라고 불렀는데, 이 바위의 이름이 사액서원의 이름이 됨.



그림 IV-118. 과거 돈암서원의 입지  
(출처 : 이상호 2014)

### (3) 물적경관

- 정회당과 응도당 사이에는 연지가 방형으로 축조되어 있어 서원 내의 주요한 수경관 요소가 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음.
- 장판각 옆에 있는 향나무와 사당인 유경사 내삼문 안쪽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는 서원 내부의 경관 요소임.
- 돈암서원의 경우에는 사당 전면의 담장은 회벽 사이에 전돌을 박아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문양을 새긴 고급스러운 꽃담으로, 장식성을 지님.
- 산양루 앞쪽으로 샘이 있었으나 주차장 건립을 위해 메우게 됨. 현재 이 자리는 주변의 흙보다 습하여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돈암서원 산양루 앞 공터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음.



그림 IV-119. 향나무(왼쪽)와 소나무(오른쪽)



그림 IV-120. 사당 전면의 담장



그림 IV-121. 과거 샘 위치



그림 IV-122. 돈암서원 주변 코스모스길 (출처 : 아이뉴스 24)



#### (4) 심상경관

- 돈암서원이 원래 있던 연산면 하임리 숲말 산기슭에는 큰 바위가 있어 ‘돈암’이라고 불렀는데, 서원은 이 명칭을 따라 ‘돈암’으로 사액을 받게 됨.
- ‘돈암’이라는 말은 그 명칭이 주역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는데, “역왈 가둔지의 인선구의(易曰 嘉遯之義 人鮮久矣)”라는 구절에서, 그 가운데에서 가둔이라는 것은 명철보신적 은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임.



그림 IV-123. 돈암(遯巖) 각자 바위  
(출처 : 이상호 2014)

#### (5) 사회경관

- 연산백중놀이에 참여하는 마을의 깃발을 과거 서원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는 인터뷰를 통해 돈암서원이 마을의 중요한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교류한 의미가 있음. 과거 깃발에는 서원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고 함.
- 연산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향사에 참여하며 서원과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가 지속됨.



그림 IV-124. 연산백중놀이에 참가한 마을의 깃발  
(출처 : 논산문화관광)



그림 IV-125. 연산초등학교  
(출처 : 디지털논산문화대전)

## (6) 주요 쟁점

- 뒷산 해송의 잔디밭 문제 : 서원 뒷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해송과 잡목이 우거진 상태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잡목이 없는 잔디 언덕으로 학생들의 소풍 대상지가 되기도 하였음.
- 김장생과 현재 서원 입지와의 관계 : 돈암서원의 경우 한 번 이진된 연유로 과거 선정된 입지의 풍수적 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나, 돈암서원이건묘정비에 따라 현재의 입지도 김장생 선생이 자주 오고간 ‘호계의 터’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김장생 선생이 호계의 터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원 요소를 발굴하는 작업이 요구됨.
- 서원 뒷길 : 과거 서원 뒷길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다녔다는 길은 살펴볼 만한 내용임. 해당 길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돈암서원 둘레길과 과거 뒷길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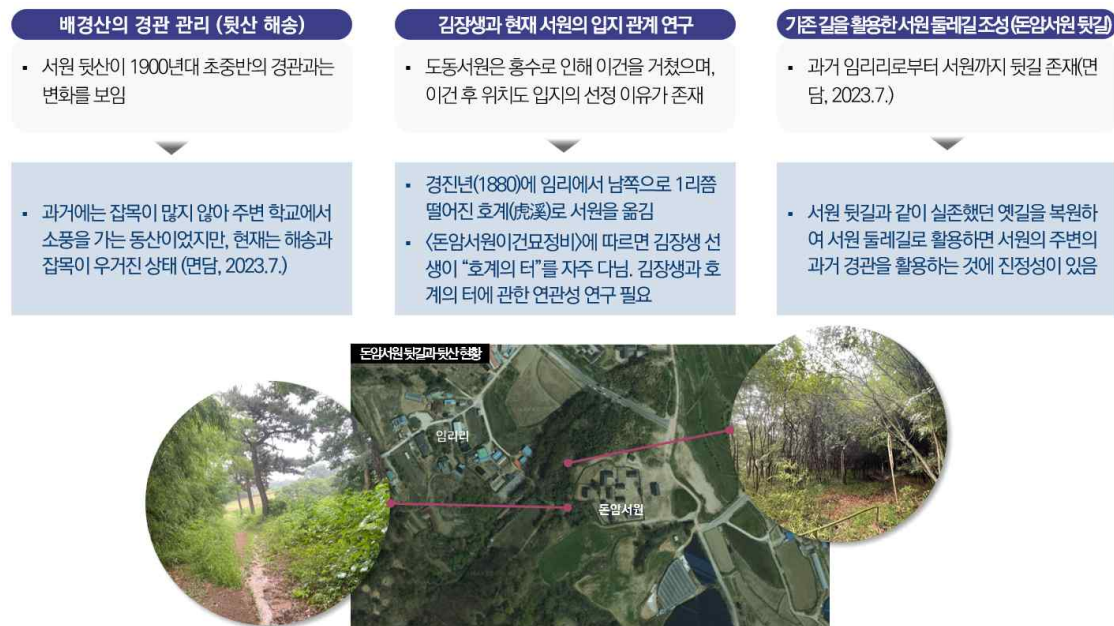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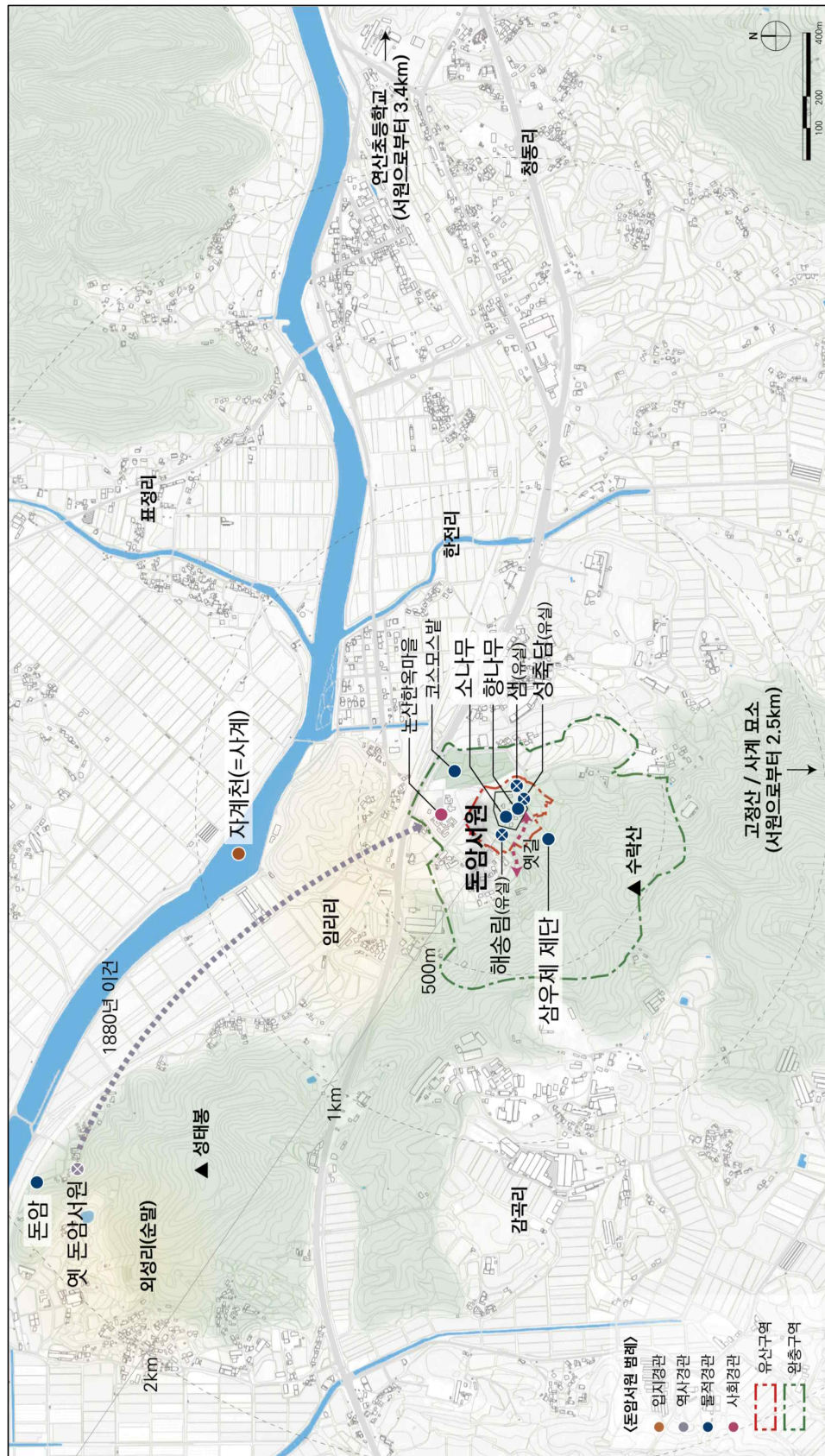


그림 IV-126. 돈암서원 문화경관의 주요 쟁점





### 3. 한국의 서원 문화경관 고찰

#### 1) 입지경관

- 서원의 입지는 풍수지리상 뒷산과 앞산, 하천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결정됨. 특히 서원이 입지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주향자와의 과거 연고지가 중요하게 고려됨.
- 역사 유적지에서 진입체계의 변화는 서원뿐만 아니라 원림, 사적 등의 문화유산에서 종종 발생하는 현상임. 주변 환경의 변화 및 개발(댐, 도로 건설, 주차장 건립 등)로 인한 진입로 변경 및 그로 인한 공간체험 과정 및 위계의 변질 문제는 서원의 본질적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으며 진정성 훼손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와 개발에 따른 서원 진입체계의 변화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2) 역사경관

- 서원 역사의 관점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서원의 이건으로, 9개의 서원 중 4개의 서원(남계, 필암, 도동, 돈암)이 이건의 역사가 있음. 이건의 주된 이유로 정유재란 때의 소실이 있으며, 홍수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하천 등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서원은 하천 주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서원이 홍수 시 침수지역이 되어 그 자리를 옮기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 홍수로 인한 서원의 입지 변화는 지역의 과거 계류 변화를 함께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3) 물적경관

- 물적 경관 요소 중 문화경관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건축물은 서원 입구의 문루임. 문루는 중요한 유식 공간으로 서원의 경관 조망점(view point)에 해당함. 문루는 중국의 서원과 대비하여 주변 환경과의 적극적인 관계 속 유식의 기능을 강조하는 한국 서원만의 특징이며, 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중시됨.
- 서원 경외에는 문루를 대응되거나 대신하는 기능을 띤 정자가 자연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조망점에 배치되었고, 서원의 유식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음.
- 서원에는 학자수로 심어진 노거수가 다수 존재하며, 서원 주변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등이 많이 식재되어 있어 양호한 송림 군락 등이 형성된 곳이 많음.
- 마을에는 과거에 표지석 등의 형태로 마을이나 지역의 명칭을 각자한 바위들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지역의 특징적 이름을 차용하여 서원의 이름이 정해지기도 함.

#### 4) 심상경관

- 각자 바위, 구곡, 건축물의 명명은 모두 사물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형성됨. 자연은 본래의 것 그대로 존재하지만 명명을 통해 의미와 특질을 갖게 되며, 이는 자연을 인간이 소유하는 방법이며 즐기는 태도임.
- 산지에 입지한 영남지방 서원에서는 계곡, 바위, 절벽 및 구곡을 명명하여 그 경치를 향유한 경우가 많음.
- 평야 지대에 입지한 서원은 상대적으로 하천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계류로부터의 길긔, 하천 주변의 정자 설치 등이 나타남.

#### 5) 사회경관

- 서원은 다양한 형태로 주변 공동체와 교류하였으며, 교류의 대상도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남.
- 서원의 본래 기능인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중고등학교로 정신이 계승되거나 학교의 부속건물로 함께 사용되기도 함. 서원이라는 교육 기관의 역사적 계승은 중요한 요소이나, 중국 등 해외 사례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대학의 형태로 전환되지는 않았음. 중국의 악록서원은 창시지 후난대학(湖南大學)에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976년부터 시작된 악록서원의 역사를 계승한 데 의의가 있음.
- 사액 받은 서원 소유의 농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역 주민이 경작할 수 있게 한 것이 다수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됨(도동, 도산, 병산 등).
- 백중놀이, 향약 등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서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기도 하였고,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임시 거처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공동체의 안전과 정신적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함.

표 IV-4.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문화경관 요소 분석

서원	문화경관							
	입지경관				역사경관			사회경관
	산수체계	정주요소	진입체계	배치	연고지	옛터	입향자	공동체
소수	영귀봉, 비봉산, 연화산, 소백산, 학기산, 죽계, 영구입수형, 영구포난형	옛 원단촌	옛길(탁청지를 둘러 제월루를 통해 진입)	-	-	숙수사	-	구 소수중학교
남계	대봉산, 황석산, 오봉산, 삼봉산, 지리산, 백암산, 송안산, 남강, 연화부수형	개평마을, 원평리, 쇠바우 마을	홍살문	제향, 강학, 각 1개 종축, 연당과 동서재, 각 1개 횡축	일두 고택, 일두 묘소	-	청계서원	-
옥산	도덕산, 무학산, 화개산, 자옥산, 운주산, 자계	양동마을, 옥산1리, 옥산2리, 옥산3리	하미비, 와나무다리	제향, 강학, 유식 1개 종축	독락당, 계정, 사자암	-	-	정혜사, 도덕사
도산	간지산, 청량산, 영지산, 낙동강, 안동호, 화심형, 서취봉, 동취봉	토계, 의촌리, 섬촌마을	옛길(사사단나루터, 살다리, 애일당 쪽 신작로)	서당, 서원 각 1개 종축, 제향 1개 종축, 동서재, 동서광명실 각 1개 횡축	퇴계태실, 퇴계종택, 퇴계종택, 애일당	계상서당	-	낙동강 범람 시 숙소로 사용
필암	증산, 삼봉, 월선봉, 난산, 문필천, 취암천, 황룡강, 단봉합서형	맥동마을, 구석마을, 증산부락, 기산리	하미석, 홍살문	제향, 강학, 유식의 1개 종축, 동서재 1개 횡축	백화정	기산 필암서원 (1658년 이전), 증산 필암서원 (1672년 이전)	하서 묘소	갈곳(정음농악대)
도동	제석산, 건등산, 대니산, 다람재, 개구리산, 낙동강, 영구입수형, 정사추외형, 오통쟁주형	개포리, 오사리, 도동리	옛길(다람재 통과), 도강(도동나루와 개진나루)	제향, 강학, 유식 1개 종축, 동서재 1개 횡축	정수암, 한원당 고택	쌍계서원 터 (1604년 이전)	한원당 묘소	옛 개진나루, 도동나루
병산	화산, 병산, 수운산, 낙동강, 밀개형	하회마을	옛길(낙동강 북편의 길을 따라 하회마을로 연결되는 길)	제향 1개 종축, 강학, 유식 1개 종축, 동서재 1개 횡축	충효당	-	-	옛 병산중학교, 옛 병산고등학교, 풍산중학교, 풍산고등학교
무성	성황산, 사산, 독포, 동진강, 필수천	원촌마을	홍살문	제향, 강학, 유식 1개 종축	감운정, 유상대터, 피향정	-	-	태인고현동향약
돈암	고정산, 수락산, 성태봉, 개룡산, 대둔산, 자계천(사계), 연산천	외성리(순말), 입리, 고정리	옛길(돈암서원 뒷길을 통해 마을로 이동), 하미비, 홍살문	제향, 강학 1개 종축, 동서재 1개 횡축	-	외성리 부근 돈암서원(1880년 이전)	사계 묘소	백중놀이 깃발 제작, 연산초등학교



서원	문화경관							
	물적경관				심상경관			
	식물	수경	건축	구조물	구곡	명명	각자	문학
소수	송림, 은행나무, 대나무	탁청지	취한정, 광풍정, 금성대, 군산단, 문성공묘, 전사청, 신문, 명륜당, 일신재, 직방재, 학구재, 지락재, 장서각, 경림정	숙수사 당간지주	백운동 취한대, 금성반석, 백자담, 이화동, 목욕담, 청련동에, 용추비폭, 금당반석, 중봉합류	취한대, 광풍대	백운동 경자 바위	죽계별곡(안축)
남계	송림, 연꽃매화	연당, 우물	사우, 전사청, 내삼문, 명상당, 양장재, 보인재, 장판각, 풍영루, 영매헌, 애련헌, 고직사, 묘정비각	남계서원 묘정비	-	대고대, 이현대	-	-
옥산	송림, 회화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참나무림	수로(역락문, 무변루 사이)	채인묘, 전사청, 채인문, 구인당, 만구재, 암수재, 경각, 문집판각, 무변루, 역락문, 고직사, 신도비각, 양진재, 해입재, 독락당	신도비	송단, 용추, 세심대, 공간, 관어대, 포부, 탁영대, 정심대, 사자암	관어대, 영귀대, 탁영대, 정심대, 세심대, 용추	세심, 용추	옥산십사영(노수신), 옥산삼육영(박계현)
도산	풍류수, 절우사, 송림, 연꽃	정우당	상덕사, 전사청, 내삼문, 전교당, 박약재, 홍의재, 동광명실, 서광명실, 장판각, 도산서당, 농운정사, 역락서재, 상고직사, 하고직사, 옥진각	석교, 시사단	운암, 비암, 월천, 분천, 탁영담, 천사, 단사, 고산, 청량	천광운영대, 천연대, 곡구암, 탁영담, 반타석, 석간대	천연대	도산전묘(고봉), 도산서원묘(정선), 계양정가도(정선), 도산서원묘(이징), 도산서원묘(강세형), 도산잡영
필암	은행나무, 어사리(배나무)	샘, 방당(멸실)	우동사, 전사청, 내삼문, 창절당, 진덕재, 승의재, 경장각, 장판각, 화연루, 고직사, 한장사	김인후 난산비	-	-	필암	-
도동	은행나무(김광필나무)	-	사우, 전사청, 내삼문, 중정당, 가인재, 거의재, 장판각, 수월루, 고직사, 신도비각, 유물전시관	-	부래, 대장산, 개경포, 제석암, 금산, 백석만, 옥서탄, 현풍수곽, 상산	-	-	강심월일주(미상), 설로장송(미상)
병산	배롱나무, 매화나무	광명지	존덕사, 전사청, 내삼문, 입교당, 동직재, 정허재, 장판각, 만대루, 복례문, 고직사, 재래식 화장실	-	병산, 남포, 수림, 겸암정, 만송, 옥연, 도포, 화천, 병암	-	-	하화구곡시(류건준)
무성	송림, 느티나무, 은행나무	-	내삼문, 명륜당, 강수재, 한가루, 고직사, 태인고, 현동향약동각, 송정, 후송정, 상춘대, 시산사, 송신사, 팔양사, 한정, 상춘대, 태산사	현감 서호순 불망비, 진사 최영대, 영세불망비, 전감역, 정문술 중수의조비, 공작비문, 병오창의, 기적비	-	-	-	칠광도(채용신), 송정, 십현도(채용신)
돈암	소나무, 향나무, 해송	샘	송례사, 전사청, 내삼문, 응도당, 양양당, 거경재, 정의재, 장판각, 정화당, 입덕문, 산양루, 경화당, 성축담, 삼우재, 제단	돈암서원이건비, 연산현돈암서원비, 기, 꽃담	-	-	돈암	-



## V. 문화경관으로서 서원의 가치 분석

---

1. 개관
2. 성리학적 관점에서 서원의 가치
3. 세계유산 문화경관 관점에서 서원의 가치





## V. 문화경관으로서 서원의 가치 분석

### 1. 개관

#### 1) 서원 건립자 혹은 배향자의 이념과 사상에서 읽는 가치

- 서원의 건립자나 배향자의 이념이나 사상에서 경관적 가치를 고찰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경관에 대한 태도나 자연관 등에 담긴 가치나 의미를 살피는 일임.
- 이 부분은 대체로 그들이 중요시했던 신념이나 이상 등과 연결 지어 고찰 가능한 관점으로서 성리학적 가치 혹은 그에 입각한 자연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음.
- 서원의 건립 배경이나 목적 등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이 같은 가치는 서원 자체의 이름이나 주요 건물 혹은 주변 경물에 부여된 이름에서도 확인 가능함.
- 건립자 혹은 배향자의 이념이나 사상은 대체로 성리학적 가치와 닿아 있으면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것들로서 주로 무형적 가치(intangible value)에 해당함.
- 최근 세계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에서 이 무형적 가치가 점차 중시되고 있고, 특히 문화경관의 내재적 속성을 이루는 주요 원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원 경관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 2) 서원 입지로 보는 가치

- 서원의 입지에 따른 경관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할 경우 대략 두 가지 다른 입지 유형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하나는 산수간 자연이 빼어난 곳에 입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산수보다는 마을과 가까이 혹은 그 안에 입지하는 경우임.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 중에서 전자의 경우로 소수, 옥산, 도산, 병산, 도동 등을 들 수 있다면, 후자는 무성, 필암, 돈암, 남계 등이 해당함. 경관의 구성요소 관점에서 보자면 전자는 산이나 하천(강) 등과 관련되어 비교적 자연성이 강한 경관이고, 후자는 마을과 농경지 등 문화적 성격이 강조되는 경관임.
- 전자에 속한 서원들은 산과 물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요 건물이나 전체 공간구조가 결정된다면, 후자의 경우

에는 인접 민가나 마을, 그리고 농경지 등과의 관계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 하지만 후자의 경우일지라도 서원 앞뒤로 위치하고 있는 산과 물(하천)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가 많음.

- 결국 산과 하천은 한국의 서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의미소로서 경관적 특질을 이루는 주요 인자가 됨.

### 3) 서원 건축물 중심의 경관 가치

- 한국의 서원은 강학과 제향, 그리고 유식이라는 3가지 중요한 기능을 근간으로 함. 이 중에서 강학과 제향은 서원 건물들의 구성과 배치에 중요하게 작용함. 즉, 서원 공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강학과 제향이라는 두 기능을 위한 건물들로 이루어짐.
- 공간 구조상 강학을 위한 건물들은 서원의 중심 영역에 위치하며, 제향을 위한 건물들은 서원 뒤 측에 배치되어 서원 공간구조의 기본 틀을 형성함. 전체 공간은 홍살문, 누각 등의 진입부 영역과 강당 및 동서재 중심의 강학 영역, 그리고 사묘 영역에 이르기까지 각기 기능과 성격이 다른 건물과 구조물로 구성되며, 대체로 주위를 담장으로 둘러 경역을 구분함. 그렇게 담으로 구획된 경역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과 대체로 일치함.
- 홍살문, 담장 등 구조물과 건물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배치는 해당 서원의 공간적 질서와 경관을 특징짓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당과 강당, 동서재 등의 건축적 특징과 배치가 제향적 공간으로서 예와 공경심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으며, 강학의 장으로서 면학적 분위기를 어떻게 잘 유지,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음.
- 서원의 경관적 특징과 가치는 그에 더해 그곳의 지형, 경사, 기타 주변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게 됨. 한국의 서원은 전저후고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으며, 이는 제향 영역에 대한 존중이 결부되어 있으며, 뒷산을 배경으로 하고 서원 앞에 펼쳐진 강과 하천, 원경의 산들을 전망하는 원리가 담겨 있음.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서원에서 나타나지 않은 ‘루’ 형태의 건물이 한국의 서원에서는 진입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남.

## 2. 성리학적 관점에서 서원의 가치

### 1) 서원의 입지로 읽는 성리학적 가치

- 성리학적 가치의 중요한 덕목중 강학과 교육이 존재함. 주세붕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살펴보면 소수서원이 당시 안향이 공부하던 사찰(숙수사)의 터에 건립하면서 안향의 강학적 덕목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주향자의 인품과 학덕을 존송하여 서원의 입지가 결정되기도 함. 예를 들어, 남계 서원의 경우 일두 정영창의 연고지 근처에 입지하였고, 옥산서원의 경우 회재 이언적의 별서 근처인 세심대 위에 조성되었음을 허엽의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의 고향인 맥동 근처에 조성되었으며, 도동서원은 한훤당 김굉필의 묘지 아래이면서 그가 거주하였던 마을인 솔레촌 근처에 형성됨.
- 주향자의 흔적을 살려 정신과 뜻을 받은 경우에는 도산서원이 존재하는데, 퇴계이황이 운영한 도산서당을 포함하여 확장한 바가 있음.
- 예외적으로 무성서원의 경우, 최치원의 제향 사당인 태산사와 관련된 곳에 입지하였는데, 성리학적 가치보다 훌륭한 선정을 남긴 관리를 기리는 것에 의의가 있음.

### 2) 대상의 명칭에서 읽어내는 성리학적 가치

- 서원의 이름을 통해 한국의 서원에 투영된 성리학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음.
- 소수서원의 경우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담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음. 그리고 도동서원은 도가 동쪽(조선)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함.
- 무성서원은 공자의 제자인 ‘자유’가 다스리던 읍의 이름인데, 현실 참여를 통한 경세(세상을 다스림)를 추구한 것에 성리학적 질서가 녹아 있음. 돈암서원은 돈(澗)을 둔(澗)자로 읽어 은둔하여 학문과 후진을 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
- 서원의 이름 외에도 서원의 건축물 이름에도 성리학적 가치가 담겨져 있음.
- 소수서원의 겸령정(景濂亭)은 숙수루 터(사찰 누각터에 건립이 되었고 누로서 기능을 지닌 계정(溪亭)으로 활용)에 건립이 되었는데, 엄계 주돈이를 존송함이 담겨있음. 이는 공경하는 자세가 산수와 소통하게 됨.
- 남계서원의 명서당(明誠堂)은 참된 본성을 밝히는 이름이며, 거경재(居敬齋)는 인(仁)을 실현하기 위해 경(敬)에 머무르며, 집의재(集義齋)는 오랜 시간 동안 의(義)를 쌓는다는 뜻을 가짐. 보인재(輔仁齋)는 벗과 함께 인을 보한다는 것에 성리학적 가치를 읽을 수 있음.
- 옥산서원은 무변루(無邊樓)에서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무궁무진하며 부족함도 남음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다는 의미를 엿볼 수 있는데 이는 노수신이 무변루의 이름을 주돈이의 ‘풍월무변(風月無邊)’에서 따온 것임.
- 필암서원의 확연루(廓然樓)는 학문과 마음이 확 트여서 공정하고 의리에 맞음을 의미하며 김시찬의 『확연루기(廓然樓記)』를 통해 알 수 있음. 진덕재(進德齋)는 내면으로 덕을 쌓는다는 뜻이며, 숭의재(崇義齋)는 밖으로 의

를 실천한다는 의미임.

- 도동서원의 수월루(水月樓)는 차가운 강에 비치는 달(寒水照月, 수월루 상량문)이라는 뜻이며, 공평 무사한 도학자의 정신세계를 이룸. 중정당(中正堂)은 주돈이의 ‘중정인의(中正仁義, 중도와 정도에 맞고 어질고 의로움)’에서 차용하였으며 성인의 언행을 취한다는 것을 중요시함. 거인재(居仁齋)는 인의 머무는 것이며, 거의재(居仁齋)는 의를 따르는 것임.
- 돈암서원의 산양루(山仰樓)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무궁무진함을 이르며, 양성당(養性堂)은 본성을 길러야 함을 의미함. 거경재(居敬齋)는 인(仁)을 실현하기 위해 경(敬)에 머무르는 것인데, 받들어 모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르며, 정의재(精義齋)는 경전의 뜻을 자세히 궁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마지막으로 숭례사(崇禮祠)는 예를 숭상한다는 의미임.
- 산수 자연이나 경물의 이름 혹은 각자로 읽는 성리학적 가치는 소수서원의 ‘경’자 바위에서 나타나는데, ‘경’으로써 마음을 기르고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인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사악한 기운을 막는 것임.
- 도동서원의 대니산(戴尼山)은 공자를 받드는 산임.
- 도산서원의 천연대(天淵臺),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는 자연의 활발한 운행을 보면서 본성을 지키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정우당(淨友堂)과 절우사(節友社)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선비로서의 마음가짐을 말함.

### 3) 공간구성 및 배치 구조로 읽는 가치

- 먼저, 한국의 서원은 공간 구성에서 예의 공경심을 표상하는 방식을 투영함으로써 전형성을 보여줌.
- 저저후고(前低後高)의 지형 위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전형적으로 가지게 됨.
- 단일축에 의한 좌우 균형배치와 약간 꺾어진 축(사묘)이 경향적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절제와 단순화 속 정숙감을 부각시키며, 경내 조경의 절제하고 마당을 비움으로써 서원 건축의 면모를 보여줌.
- 다음으로, 제향, 강학, 유식의 공간적 배분으로 서원의 공간 구성을 구획하고 있으며, 유식공간의 경우 한국의 서원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임.
- 진입부의 루를 중심으로 주위 산수와 어울리는 유식 공간 배치를 지니며, 중앙에 강당과 동서재 중심의 강학 공간을 배치하고 있음.
- 맨 뒤에는 구분된 영역으로 사당 공간을 두었고, 이상의 제영역을 담장으로 위요하여 주변과 구분하게 됨.
- 마지막으로, 일상 삶 속 배움과 실천 공유의 장으로서 서원의 가치를 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한국의 서원은 지형에 맞춘 건물과 공간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간적 척도(human-scale)를 준수하고 있음. 극도로 단순화된 동선 구조로 공간구성의 미를 더함.



## 4) 성리학적 가치 이외에 다른 특징을 지닌 무성서원

- 무성서원은 정묘호란 때 김관이 의병을 위한 군량을 모금한 장소임. 또한 최익현이 항일의병을 진행하기도 함.
- 무성서원의 뒷산은 성황산인데, 성황산은 지방 관아에서 제사 지내던 산임. 이는 현실참여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원의 면모를 보여줌.
- 또한, 고현동 향약 등을 통한 주민 공동체 강화 등 향촌사회의 구심점으로 활동하였음.

표 V-2. 성리학적 가치 유형에 따른 서원 건축물의 의미 분류

성리학적 가치	서원	건축물명	내용
강학의 궁극 목표 혹은 지향 가치의 표상	옥산서원	무변루	부족함도 남음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음
	남계서원	명성당	참된 본성을 밝힘
	필암서원	청절당	(김인후의) 청렴결백한 절개
		확연루	학문과 마음이 확 트여서 공정하고 의리에 맞음(김시찬 <확연루기>)
		진덕재, 숭의재	내면으로는 덕을 기르고, 밖으로는 의를 높임
	도동서원	수월루	공평무사한 도학자의 정신세계
	돈암서원	산양루	멀리 높은 산을 보는 행위를 성인의 높은 덕행을 본받는 것에 비유
		양성당	본성을 기름
강학과 수양의 방법 표상	남계서원	거경재, 집의재, 보인재	인을 실현하기 위한 공부의 방법
	돈암서원	거경재, 정의재	인을 실현하기 위한 공부의 방법
	무성서원	현가루	반드시 예약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공자 사상
유식의 장	소수서원	취한대, 광풍정	자연을 기꺼이 즐김
	남계서원	애련헌, 영매헌	연꽃과 매화를 완상하는 마루 선비의 품격과 덕목을 기름
		풍영루	자연을 기꺼이 즐김
	도산서원	정우당, 절우사, 천연대, 천광운영대, 탁영담	자연을 기꺼이 즐김

### 3. 세계유산 문화경관 관점에서 서원의 가치

#### 1)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의 문화경관적 가치

##### (1) 조선시대 성리학적 세계관의 구현

- 인간의 규율과 질서의 강화와 제향 공간을 넘어 주변 자연과의 유형과 무형의 관계로 유교적 이상향을 지향한 특유의 가치를 구현함.
- 유가적 은둔사상, 자연과 인간의 합일 등 성리학적 원리에 따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건축과 조경을 보여 줌.
- 지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중심지로 기능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정체성 구축에 기여함.

##### (2) 자연과 인간 공존의 장

-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풍수지리에 의한 입지 결정과 유식적 차원에서 산수와 서원 공간의 독특한 관조 방식을 설정함.
- 지역 사회와 교류를 통한 지역 지식 기반의 전통 농업, 입지 선정 등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이 문화와 생물다양성 보존으로 연계됨.
- 자연과의 복합적 관계 및 조화를 통해 인간 심성 세우고자 한 서원의 문화경관은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인간생태학적 해법을 제시함.

#### 2) 서원의 문화경관 가치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기준 확대 가능성

##### (1) 기존 ‘한국의 서원’ 등재 기준

- 기존의 등재 기준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의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와 유교 건축의 전형으로 서원 경내, 특히 건축적 관점에 집중함.
  - 기준 (iii) :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 (2) 문화경관 관점 고려를 통한 가치 확장

- 성리학적 세계관이 투영된 주변 산수, 정원, 누정 등 서원 경내의 경관의 시각작형태적 가치를 중시했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고려하는 문화경관적 관점에서의 조명은 기존의 등재 기준보다 서원이 가진 가치를 확장할 수 있음.

- 기준 (iii) : 조정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 (iv) 인류 역사의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축기술경관.
-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의 장으로, 서원의 입지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지역사회와의 공존 가치 역시 문화경관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유산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음.
- (v)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 + (vi) 사건, 전통, 사상,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연관.
- 문화경관 관점으로 그 가치를 조망하였을 때,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적 이상향의 실현이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경관임.

표 V-3.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유형과 등재 기준

문화경관 유형분류			등재기준						사례
			i	ii	iii	iv	v	vi	
1	설계, 조성한 경관		v	v		v			아란후에스문화경관(스페인)
2	유기적으로	지속		v	v	v	v		암보히망가왕실언덕(마다가스카르)
	진화한 경관	화석		v	v	v	v		블래나번산업경관(영국)
3	연상적 경관							v	통가리로국립공원(뉴질랜드)

### 3) 서원 문화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 확보

#### (1) 진정성(authenticity) 측면

- 한국 서원의 문화경관이 가진 유산의 진정성은 조선 시대의 유교 철학, 교육, 사회적 실천이 경관으로 실현되는 데 있음.
- 조선 시대의 유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고유의 건축과 조경 기법,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지와 토지 이용을 보이며,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과 지식 전승의 장으로 여전히 작동하며 과거의 경관 가치가 오늘까지 전달되고 있음.
- 서원의 문화경관은 서원이 지니는 정신적 가치와 연결되어, 서원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태도가 기록된 역사적 문서, 예술 활동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다수의 서원들이 오늘까지 교육 및 학문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는 등 살아 있는 유산으로 경관 속 지역 사회 특유의 행태와 관계를 증명하고 있음.

## (2) 완전성(integrity) 측면

- 서원은 건축물, 교육 시설, 경내·외의 정원과 누정, 주변 민가, 자연경관까지 포함된 종합적 문화경관을 형성. 장소 지향적인 문화경관의 물리적 완전성은 서원의 원형과 그것이 위치한 지리적 환경, 요소 간 가시성 등이 관리, 보존되어야 함.
- 서원은 주변의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경관적 완전성을 이룸. 이는 서원의 배치, 구조, 그리고 조경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아름다움은 물론, 경관의 구성요소 간의 보이지 않는 인지를 통한 상징과 관계까지 다루는 포괄적 접근이 바탕이 되어야 함.
- 서원 문화경관의 유산적 가치는 그 지속성에 기반함으로,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유교의 가르침, 사상, 예술, 문화적 실천들이 서원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며,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공유되고 전승되어야 함.



## VI. 결론 및 제언

---

1. 한국의 서원 경관의 보전 및 관리
2. 한국의 서원 경관의 활용방안
3. 한국의 서원 경관 관련 제언



## VI. 결론 및 제언

### 1. 한국의 서원 경관의 보전 및 관리

#### 1) 진정성과 완전성의 보전 및 관리

##### (1) 진정성의 보전 및 관리

- 한국의 서원은 강학과 유식, 제향의 3가지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성리학적 기반 질서의 건축물 군임. 용도와 기능은 진정성의 중요한 요소로 유식, 즉 교류와 자연경관의 향유는 서원의 주요한 진정성임을 확인함.
- 특히, 중국의 서원은 다소 내부지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자연환경이 수려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원에 비해 유식의 기능이 부각되지 않았고, 이는 한국의 서원이 가질 수 있는 특징과 차별성으로 강조
- 경관은 좁은 의미에서 서원을 조망점(view point)으로 두고 점에서 보이는 시야를 지칭할 수도 있고 과거에 많은 서원 경관에 대한 해석이 유식의 대표 공간인 문루에서 바라보는 조망경관을 지칭하였음.
- 하지만,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에서 서원의 경관을 이해할 때는 넓은 의미로 서원과 관련된 경관 요소를 포함하여 비록 서원에서 보이지 않지만 서원의 배향자, 건립자, 조력자, 역사나 주변 마을 공동체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소 및 자연 경관을 모두 망라함.
- 따라서 조망경관으로서의 근경(近景)뿐만 아니라 원경(遠景),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정신적, 상징적 경관을 문화경관의 범주로 포함하여 함께 연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은 과거에 식재된 수목이나 고거목, 학자수 등에 관한 관리에 그치고 있는 현재 서원 경관의 관리를 배경산, 안산, 조산 등 풍수지리에 입각한 주변 산지형 및 서원 앞을 흐르는 계류에 관한 변형 관리가 함께 진행되었을 때 서원 (문화)경관의 진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2) 완전성의 보전 및 관리

- 서원의 경관으로 정문과 하마비, 계곡이나 도로와 같은 인접 환경에 대한 온전함은 완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임. 본 보고서에서 서원의 현안과 쟁점으로 소개된 하마비의 이동 및 본래 진입로의 문제, 댐 건설로

인한 지형 변화 등은 서원 경관의 완전성을 감소시키는 저해 요소임.

- 이러한 진입로의 변화, 도로나 주차장 등 인접 환경의 문제는 현재 서원을 주변으로 한 문화재 보존지역(500m)와 유산구역(Property zone) 및 완충구역(Buffer zone)의 설정 문제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비록 완충구역을 통해 서원의 완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변 경관, 특히 원경과 서원과 관련이 있는 정신적 연결 공간까지 함께 보존되거나 관리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본 연구에서 확인된 문화경관 요소들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함께 관리되고 있는지 후속 연구에서 살펴봐야 하며,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재고찰과 함께 문화경관 요소의 통합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 각 서원별 문화적 가치 자원 심층 조사 및 발굴

- 서원의 경관은 물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서원별 문화적 가치 자원 및 조사 발굴이 요구됨.
- 본 조사 연구는 9개 서원의 통합적 자원 조사가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에 의의가 있지만, 각 서원별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의 문화경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시대가 변화에 따라 주변 공동체가 서원과 함께한 문화적 기억들이 변화되고, 사라지기도 함.
- 한편, 지방 인구의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에 위치한 9개의 서원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인구의 감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서원의 경우 시내와 떨어진 입지 탓에 노령 인구가 많아 해당 문제는 더 심층적으로 관리해야 함.
- 서원의 과거 함께했던 공동체의 활동이나 주변의 개발로 변화된 옛길, 물길 등을 복원하지는 못하더라도, 해당 역사에 대한 기록을 주민들의 심층 면담 및 구술 조사를 통해 서원 경관의 변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3) 경관의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 및 경관 매뉴얼의 필요성

-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9개 서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중요함.
- 유네스코는 한국의 서원을 등재할 때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권고하기도 하여, 현재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9개의 서원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보다 바람직하기로는 서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 주민, 지역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체계하에서 통합적인 보존관리가 요망됨. 이에 대상과 내용에 따라 국가, 지자체, 주민 등 다양한 주체별로 보존관리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의 마련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3장에서 분석된 것처럼 2010년에 작성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과 2018년의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이 서원의 경관관리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고서에 경관의 내용으로 다룬 원경과 심상경관 및 사회경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의 경우 세계유산 관점에서의 경관 요소를 확인하여 관리에 필요한 법제도 검토와 함께 보다 발전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요구됨.



## 2. 한국의 서원 경관의 활용방안

### 1) 경관 요소를 활용한 안내 체계 정비

- 본 연구는 서원의 경관 자료를 조사하여 서원별 요소를 파악함에 의의가 있음. 이러한 서원별 경관 요소는 서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 확인됨.
- 따라서 서원의 주변 안내판 및 진입로의 방향 입간판에서 방문객이 서원의 경관 요소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의 종압안내도는 건축물 중심의 배치와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원의 경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원경에 속하는 서원과 관련된 산수 및 주향자와 연관된 문화유산을 종합한 안내도를 책자 등으로 제작하여 관광객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원 내 문화관광해설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 유산을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은 서원의 문화적 진정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 예를 들어, 이화동 마을박물관 안내지도처럼 경관 요소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통합안내판을 제작할 수 있음.



그림 VI-1. 도산서원 종합안내판



그림 VI-2. 이화동 마을박물관 안내지도

### 2) 문화경관 지도를 활용한 해설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서원을 중심으로 선비문화축제와 각 도시별 시티투어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음.
- 하지만 시티투어의 경우 서원을 중심 관광 요소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 함께 하여 전반적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것에 국한됨.
- 시티투어가 아니더라도 9개 서원과 연관된 문화자원 요소를 활용한 서원 문화경관(또는 문화관광, 문화자원) 투어 등 해설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도산서원의 경우, 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과 연관된 퇴계태실, 퇴계종택, 계상서당, 퇴계묘소 등을 결합한 관광 루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동댐의 건설로 인해 수몰된 경관 자원을 살펴볼 수도 있음. 그리고 본래의 진입로에 대한 관찰과 함께, 퇴계 선생을 생각하며 선조들이 걸었던 예던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도 가능함.



그림 VI-3. 안동 시티투어  
 (출처 : 안동시티투어 홈페이지)

**기획코스(인삼축제기간 10/7 ~ 10/15) 별도 운행**  
 영주 버스터미널 출발(09:50) ~ 영주역 출발(10:10) ~ 부석사(10:50-12:50) ~ 중식(12:50-13:30) ~ 소수서원(13:30-15:00) ~ 인삼축제장(15:20-17:30) ~ 영주버스터미널(17:50) ~ 영주역(18:00)

시정	내용	비고
09:50	영주 종합터미널	
10:10	영주역	
10:50-12:50	부석사	화엄종찰 부석사
12:50-13:30	중식	부석사 시설지구
13:30-15:00	소수서원, 선비촌	최초의 사액서원
15:20-17:30	풍기인삼축제장	
17:50	영주 종합터미널	
18:00	영주역	

그림 VI-4. 영주 시티투어  
 (출처 : 영주시티투어 홈페이지)

### 3) 주변 탐방로 및 진입로 복원을 통한 서원의 과거 경관 향유 가능성 증대

- 경관 자료 조사 결과 서원으로 진입하는 옛길(진입로)의 변형 문제가 주차장 등 개발의 건립으로 서원마다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과거 선조들이 서원에 출입하기 위해 다녔던 진입로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입로의 복원 가능성을 향우 과제로 도모할 수 있음.
- 서원은 배치와 공간구성, 그리고 경관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풍치를 즐기면서 서원으로 접근하는 공간구성 및 그에 따른 진입체계는 서원 진정성의 하나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요소임.
- 진입로에 대한 복원을 통해 과거 경관에 향유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서원의 경관자원 요소로 관광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사료됨.
- 단순히 인도를 통한 진입로뿐만 아니라 마을로부터의 뱃길, 도강 등에 대한 강, 하천을 통한 진입방식도 신중하게 검토, 발굴하여 체험형 문화관광 상품으로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원은 예로부터 입지의 중요성으로 인해 하천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임. 이는 하천과의 입지 관계로 흥수로 인한 이견 역사가 있는 서원 등을 통해 확인됨.
- 그 외에도 서원 전면이나 가까운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관리사무소, 전시관, 공원 등으로 조성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소수, 옥산, 남계, 도동, 필암, 병산 등등), 그것들이 서원 경관이나 진입체계 등을 훼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역시 서원 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하에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에서 매우 유념하여야 할 부분인 것으로 사료됨.



그림 VI-5. 도산서원으로 진입하던 옛길(빨간, 보라, 주황색)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



그림 VI-6. 도산서원으로 진입하던 옛길 (빨간색, 파란색, 녹색)  
(출처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



### 3. 한국의 서원 경관 관련 제언

#### 1) 서원 담장의 높이 고증 문제

- 답사 인터뷰 결과 소수서원, 도산서원, 남계서원 등 다수 서원의 경우 성역화 사업 및 보수 공사로 인해 담장의 높이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각 서원마다 과거 담장 추측 높이와 현재와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30~60c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서원은 서원 앞 계류, 들뜬 강, 전망을 중요시 여기는데 담장의 높이가 높게 수리되면서 서원에 존재하는 마루에서 앞의 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함.
- 남계서원은 영매헌, 애련헌에서 앞 들뜬 강과 산이 확연히 보였다는 증언이 있으며, 도산서원은 성역화로 인하여 담장의 높이가 높게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음. 소수서원의 경우 탁청지를 통해 사면으로 올라오는 서원의 옛길에서 담장이 낮았으나 현재 그것보다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을 구술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음.
- 서원에서 전망은 중요한 유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장 높이에 대한 고증 연구를 진행하여 담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서원 경관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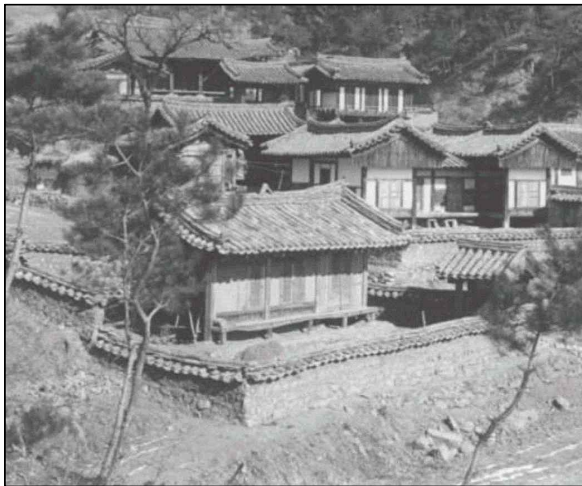


그림 IV-7. 1933년 도산서원 전경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그림 IV-8. 1972년 도산서원 전경  
(출처 : 이동구 전 별유사)

#### 2) 서원 주변 한옥숙박촌 등 개발의 경관 훼손 문제

- 현재 소수서원, 남계서원, 도동서원 등 다수 서원의 주변에 한옥숙박촌 등 개발이 진행됨.
- 한옥숙박촌 뿐만 아니라 주차장, 유물전시관, 교육관의 개발은 서원의 완충구역 내, 그리고 그 밖에 위치할지라도 주변 경관과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서원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음.
- 도동서원의 경우 낙동기암 수변역사누림길사업으로 인해 다람재에서 본 경관이 서원보다 더 강조되는 한옥자구



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남계서원 또한 완충구역 내에 한옥체험숙박촌이 서원 구역과 맞닿아 형성되므로 서원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무너뜨림.

- 따라서 해당 한옥숙박촌이 서원과 구별지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향후 개발 시 서원과 원경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그림 IV-9. 남계서원과 북동쪽에 인접해 있는 한옥숙박촌



그림 IV-10. 도동서원과 북서쪽에 인접해 있는 한옥숙박촌



## 부록

---

1.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고
2. 국내 및 국외 답사
3. 참고문헌





## 1.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고

### 1)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2023. 05. 17.)

- 일시 : 2023. 5. 17.(수) 10:00 ~ 14:00
- 장소 : 서울대학교 82동(환경대학원) 205호
- 안건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경관 자료조사 연구 착수보고회
- 참가자 : 자문위원 3인(김덕현, 박경립, 박성진), 서울대학교 4인(성종상, 김도훈, 김보람, 여해린),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인(박진재, 박새은)



그림 부록-1.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표 부록-2.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자문위원	내용
자문위원 1	<p>그간 서원 연구는 경관의 비중이 큰 데 반해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과 중국의 서원 입지를 비교하면 전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입지가 강함 -&gt; 한국 서원의 진정성/고유성</li> <li>- 특히 서원 내부에서 밖을 보는 경관 (서양과 다른 한국적인 경관 읽기 방식)</li> <li>- 성리학적 관점(인본주의) 및 가치관을 통해 경관을 볼 필요가 있고, 문루 기문에서 잘 드러남</li> <li>- 장서 보관과 인재 양성이 대부분 중국 서원의 기원인데 반해, 무이정사는 산속에서의 학문 공부와 제자 양성을 목표로 하여 한국 서원의 목적과 일치함</li> <li>- 무성서원 : 읍치 내에 위치한 서원으로, 뒤편의 '성황산*'이 있어 서원-&gt;서원촌 형성의 순서인지, 마을 내에 서원에 들어온 것인지 전후 관계 해석이 필요함</li> </ul>
자문위원 2	<p>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장 과제로 할 것과 중장기로 갈 것을 분류해야 할 것 9개 서원이 있는 지역의 문화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서원(지역)의 독자성, 다양성을 세심하게 살필 것 (1. 서원의 원래 가치를 찾는 과정, 2. 확연히 알고 있는 경관상의 문제점 등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과정, 3. 개발압력 등 다가오는 것을 막을 방법 고민)</p>
자문위원 3	<p>분야별 OUV 강화 작업 중 (서원학회와 기문, 현판, 당호 등 관련 보고서 작성) 현재 부족한 부분은 근·원경 경관 + 유식, 교류 측면 이번 연구에서 문화경관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서원에 적용하여 보호·관리 지침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관적 의미를 (방문객 등에게) 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필요</p>

## 2)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2023. 08. 28.)

- 일시 : 2023. 8. 28.(월) 10:30 ~ 14:30
- 장소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183 논현빌딩 802호
- 안건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경관 자료조사 연구 중간보고회
- 참가자 : 자문위원 3인(김덕현, 김학수, 박성진), 서울대학교 5인(성종상, 정해준, 김서린, 김보람, 박준용),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3인(박진재, 신종일, 박새은)



그림 부록-2.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표 부록-3.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자문위원	내용
자문위원 1	<p>서원 관련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센터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것</p> <p>서원 진입로의 경우, 당위성, 현실성, 가능성 측면을 생각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보면 좋음 문화경관의 개념을 문화적 관점에서 본 풍경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음 무이정사가 우리나라 조선 16세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려 유네스코 지침을 최소한으로 하고, 우리나라 서원 경관의 정체성을 제시하면 좋음 서원 중수기를 살펴보면 좋음</p>
자문위원 2	<p>고문헌의 경우 문헌에 대한 전문가가 연구 진행을 해야 함 산을 중심으로 문화권을 넘버링 해보는 것도 고려 서원 및 기문에 대한 개입자를 살펴볼 것 (제1, 제2 개입자) 인간 중심의 연구 및 사고를 고려할 것</p>
자문위원 3	<p>과제에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함 원경과 서원과의 관계를 서술 결론 부분에서 진정성 완전성을 체크하면 서원의 복원 목표가 분명해짐 이슈의 발굴이 필요함 (이슈화, 논점, 복원의 계기) 진입로 관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 결과가 나오면 공유</p>

### 3)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2023. 11. 06.)

- 일시 : 2023. 11. 6.(월) 10:00 ~ 14:00
- 장소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183 논현빌딩 802호
- 안건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경관 자료조사 연구 최종보고회
- 참가자 : 자문위원 3인(김덕현, 박성진, 이상해), 서울대학교 4인(성종상, 김보람, 여해린, 박준용),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3인(박진재, 신종일, 박새은)



그림 부록-3.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표 부록-4.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자문위원	내용
자문위원 1	<p>‘경관’과 ‘문화경관’의 단어 사용 혼돈 입지 환경, 지역 역사 등 일반적 용어를 ‘역사유산경관’ 등 경관 관련 용어로 변경 문화적 상징에 각자, 명명 등의 방식이 아닌 성리학적, 전통적 건축·풍수, (제향 인물 등의) 정신세계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 (기존 방식으로 가고, 풍수는 입지에서 문화적 상징으로 옮길 것) 서원 일반 &gt; 한국의 서원 일반 &gt; 개별 서원 순서로 특성 서술 필요</p>
자문위원 2	<p>서원의 경관 요소를 재분류 하여 위계를 맞추는 것이 요구됨 예를 들어 최상위에 경관이라는 분류를 두고, 문화경관, 문학경관, 건축경관 등 하위 위계가 서로 맞아야 함 성리학적 질서에 관한 경관도 다를 필요가 있음 거시적으로는 영남학, 기호학등 서원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경향도 포함될 수 있음.</p>
자문위원 3	<p>경관을 어느 포인트에서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정 당호가 경관에서 고려되었는지를 확인 경관 내지 문화경관의 정의가 재고려될 필요가 있음</p>

## 2. 국내 및 국외 답사

### 1) 국내 답사 1차 (2023. 07. 04.(화) ~ 2023. 07. 06.(목))

- 답사지 : 논산 돈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함양 남계서원, 달성 도동서원
- 참가 연구진 : 성종상, 정해준, 김서린, 이제이, 김보람, 여해린, 박준용
- 돈암서원 참여자 : 임순중 유사, 백승례 실무, 한태일 팀장, 김경미 주무관, 박새은 PM
- 무성서원 참여자 : 안성렬 유사
- 필암서원 참여자 : 김진산 부도유사, 김성수 도유사, 김상배 도유사
- 남계서원 참여자 : 이창구 원장
- 도동서원 참여자 : 김돈희 유사, 김명동 유사

### 2) 국내 답사 2차 (2023. 08. 01.(화) ~ 2023. 08. 02.(수))

- 답사지 :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 참가 연구진 : 성종상, 정해준, 김보람, 여해린, 박준용
- 소수서원 참여자 : 류준희 도감, 안용진 도감, 김일훈 소장, 윤정숙 학예연구사
- 도산서원 참여자 : 이동구 전별유사, 이동채 별유사, 이태윤 별유사
- 병산서원 참여자 : 류한욱 별유사, 류시역 유사
- 옥산서원 참여자 : 이원균 재무, 이지성 선생, 이정현 선생, 이지현 선생

### 3) 국내 답사 3차 (2023. 12. 09.(토) ~ 2023. 12. 11.(월))

- 답사지 :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 참가 연구진 : 성종상, 정해준, 김서린, 김보람 / 현장 자문위원 : 김덕현 국립경상대학교 명예교수
- 소수서원 참여자 : 류준희 도감
- 도산서원 참여자 : 이동구 전별유사, 권오추 별유사
- 도동서원 참여자 : 김명동 별유사
- 남계서원 참여자 : 정문상 제레이사, 여순상 총무이사
- 필암서원 참여자 : 김성수 전도유사, 박래호 선생, 김재선 선생
- 무성서원 참여자 : 안성렬 별유사, 정승준 재무별유사, 김호상 감사



표 부록-5. 서원별 방문일과 장소 및 사진

방문일	장소	사진
2023년 7월 4일(화)	돈암서원 전사청	
2023년 7월 4일(화)	무성서원 명륜당	
2023년 7월 5일(수)	필암서원 청절당	
2023년 7월 5일(수)	남계서원 관리사무소	
2023년 7월 6일(목)	도동서원 중정당	

표 부록-6. 서원별 방문일과 장소 및 사진





방문일	장소	사진
2023년 8월 1일(화)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2023년 8월 1일(화)	도산서원 박약재	
2023년 8월 2일(수)	병산서원 정허재	
2023년 8월 2일(수)	옥산서원 구인당	

표 부록-7. 서원별 방문일과 장소 및 사진

방문일	장소	사진
2023년 12월 9일(토)	소수서원	
2023년 12월 9일(토)	도산서원	
2023년 12월 10일(일)	도동서원	
2023년 12월 10일(일)	남계서원	
2023년 12월 11일(월)	필암서원	
2023년 12월 11일(월)	무성서원	



#### 4) 국외 답사 1차 (2023. 07. 16.(일) ~ 2023. 07. 20.(목))

- 답사지 : 베트남 하노이, 닌빈, 후에, 호이안
- 참가 연구진 : 성종상(책임연구원), 정해준(연구원), 김보람(연구보조원), 여해린(보조원)

표 부록-8. 서원별 방문일과 장소 및 사진

방문일	답사지	사진
2023년 7월 16일(일)	탕롱황성 하노이 문묘	 
2023년 7월 17일(월)	짱안 경관단지	
2023년 7월 18일(화)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2023년 7월 19일(수)	호이안 고대 도시	



## 5) 국외 답사 2차 (2023. 08. 18.(금) ~ 2023. 08. 23.(수))

- 답사지 : 중국 창사시 악록서원, 구강시 백록동서원, 상라오시 아호서원, 우이산시 무이정사, 항저우시 만송서원
- 참가 연구진 : 성종상(책임연구원), 김서린(연구원), 김보람(연구보조원), 여해린(보조원)

표 부록-9. 서원별 방문일과 장소 및 사진

방문일	답사지	사진
2023년 8월 18일(금)	창사시 악록서원	
2023년 8월 19일(토)	구강시 백록동서원	
2023년 8월 20일(일)	상라오시 아호서원	
2023년 8월 21일(월)	우이산시 무이정사	
2023년 8월 22일(화)	항저우시 만송서원	

### 3. 참고문헌

#### [해외 자료]

- 보고서

Australia ICOMOS (1999) The Burra Charter: The Australia ICOMOS Charter for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Burra: Australia ICOMOS.

Brown, J., Nora M. & Michael B. (2005) The Protected Landscape Approach: Linking Nature, Culture and Community. Gland: IUCN.

Council of Europe (2000) The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Florence: Council of Europe.

Fowler, P. J. (2003)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1992–2002. ed. by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Vol. 6, World Heritage Papers.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ICOMOS (1964) The Venice Charter: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Venice: ICOMOS

ICOMOS (1981) The Florence Charter: Historic Gardens and Landscapes. Florence: ICOMOS.

ICOMOS, Charter on the Built Vernacular Heritage (Mexico: ICOMOS, 1999).

ICOMOS (1994)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Nara: UNESCO, 1994.

ICOMOS (1999) Charter on the Built Vernacular Heritage. Mexico: ICOMOS.

ICOMOS (2005) Xi'an Declaration on the Conservation of the Setting of Heritage Structures, Sites and Areas. Xi'an: ICOMOS.

Terpstra, V. & David, K. H. (1991) The Cultural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Nashville: South-Western Publishing Company.

UNESCO (1972)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aris: UNESCO.

UNESCO Bangkok (2009) Hoi an Protocols for Best Conservation Practice in Asia: Professional Guidelines for Assuring and Preserving the Authenticity of Heritage Sites in the Context of the Cultures of Asia. Bangkok: UNESCO Bangkok.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9)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 A Handbook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d. by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Vol. 26, World Heritage Papers.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2)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학술지

- Antrop, M. (2005) Why Landscapes of the Past Are Important for the Futur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0(1-2), 21-34.
- Ford, J. & Martinez, D. (2000)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Ecosystem Scienc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Ecological Applications*, 10(5), 1249-1250.
- Ha Nam Khanh Giao et al. (2018) Satisfaction Of Tourists To Hoi An Ancient Town, Vietnam. *Global and Stochastic Analysis* 5(6), 123-135.
- Jung, H.-J. (2022) A Review of Academic Discourses of Cultural Landscape – for the Extension and Application to the Landscape Heritage Study and Polic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0, 26-37.
- Lynch, K. & Hack, G. (1984) *Site Planning*, Third Edi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Mitchell, N. & Buggey, S. (2000) Protected Landscapes and Cultural Landscapes: Taking Advantage of Diveristy Approaches. *The George Wright Forum*. 17(1), 35-46.

[국내 자료]

- 보고서

- (사)한국서원연합회 (2013) 한국의 서원1 현판과 기문.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간자료.
- (사)한국서원연합회 (2013) 한국의 서원2 고문서, 고서, 책판.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간자료.
- (사)한국서원연합회 (2013) 한국의 서원3 제향의례.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간자료.
- (사)한국서원연합회 (2014)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체계 방안.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간자료.
- (사)한국서원연합회 (2014)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간자료.
- (사)한국서원연합회 (2014) 한국의 서원유산 1.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간자료.
- (사)한국서원연합회 (2015) 유네스코 실사대비 보존관리 현황 점검.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5) 한국의 서원 건축 단청.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9)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통합모니터링 연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9) 한국의 서원 사진집.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0) 서원산책 창간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0) 서원산책 2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0)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0)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건축도면집.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0)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0)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0) 한국의 서원 통합 활용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고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0) 한국의 서원 종합 안내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0) 한국의 서원 통합안내판 기초연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보고서.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1)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정기보고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보고서.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1) 서원산책 3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1) 서원산책 4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1.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2.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주요 건축물 이력 -서원 건립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보고서.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기록문화와 제향.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방문객 관리연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보고서.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2) 서원산책 5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2) 서원산책 6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건축물 및 수목 현황 조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보고서.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관리자 전문교육.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2) 현판이 들려주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이야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2023년 한국의 서원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2023년 한국의 서원 운영자 워크숍.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주요 건축물 이력과 원문자료.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 소수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 남계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3 옥산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4 도산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5 필암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6 도동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7 병산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8 무성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 돈암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 (202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옛길 연구 보고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 한국의 서원 사계절 사진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 한국의 서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보고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보고서.
- HK건축문화유산연구원 (2017)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 연구 용역. 논산시 보고서.
- 건축사무소 도시건축집단 (2019)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표지석 디자인(전체) 설계도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자료.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함양 남계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함양군 보고서.
- 계림문화재연구원 (2013)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달성군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남계서원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도동서원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도산서원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돈암서원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무성서원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병산서원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소수서원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옥산서원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필암서원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2010) 서원 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11)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 세계문화유산한국서원협의회 (2013) 한국의 서원 의절. 세계문화유산한국서원협의회 발간자료.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경주 옥산서원 종합정비계획. 경주시 보고서.
- 이동구 (2020) 도산서원 이야기 현판·비석·표지석·암각을 중심으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정읍 무성서원 종합정비계획. 정읍시 보고서.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용역 보고서 - 번역집. 정읍시 보고서.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무성서원 고문서(현판)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정읍시 보고서.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5) 돈암서원 고문화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논산시 보고서.
- 한국경제연구소 (2015) 장성 필암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장성군 보고서.
- 한국국토정보공사 (2022)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정사영상제작. 한국국토정보공사 보고서.

한국행정학회 (2019)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 발간 자료.

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2013) 안동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안동시 보고서.

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2013) 안동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안동시 보고서.

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2014)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영주시 보고서.

#### • 학술지 및 학위논문

강관권 (2022)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의 생태와 생태관광 연구. 문화정책논총 36(1), 113-138.

권성진 (2002)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조사 연구 :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논문집 21, 209-224.

김덕현 (2011) 한국(韓國) 서원(書院)의 립지(立地)와 경관(景觀)에 대한 독해(讀解). 한국서원학보 1, 9.

김덕현, 이상호 (2013) 한국 서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 문화 역사 지리 25(2), 15-36.

김덕현, 이상호 (2013) 한국 서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 2. 문화 역사 지리 25(3), 14-33.

김덕현 (2017) 도동서원 경관에 재현된 성리학의 정신세계. 문화역사지리 29(4), 1-21.

김덕현 (2019) 儒學의 自然美와 조선 서원의 展望景觀. 문화역사지리 31(1), 1-28.

김덕현 (2022) 한국(韓國) 서원(書院)과 중국(中國) 서원(書院)의 입지·공간구성(立地·空間構成)과 유식공간(遊息空間)에 대한 비교연구(比較研究). 한국서원학보 15, 379-421.

김선의 (2018) 세계유산 잠정목록 한국의 서원인 돈암서원의 보존을 위한 활용. 建築 62(3), 58-62.

김연호 (2008) 도산서당(陶山書堂)의 입지(立地)와 도산서원(陶山書院)의 배치(配置)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집 3, 1-41.

김영나 (2021) 18세기 옥산서원 노비의 양상. 민족문화논총 79, 291-326.

김영모 (2013) 서원 경관의 보존·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11, 107-131.

김정문 (2006) 정읍 무성서원 및 주변지역 정비,복원 기본계획.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4), 80-91.

김정운 (2018)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 체계 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7, 5-32.

노재현, 신병철 (2012) 중용(中庸)의 미학으로 살핀 도동서원(道東書院)의 경관짜임.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4), 44-55.

노재현, 신상섭 (2009) 치(置)와 화(和)의 개념으로 분석한 남계서원의 경관짜임. 韓國造景學會誌 37(4), 72-85.

노재현, 최종희, 신상섭, 이원호 (2012) 연산 돈암서원(豚巖書院) 구지(舊址)의 원형경관 탐색.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4), 14-22.

노재현, 허준, 최종희 (2014) 경관적 재구성을 통한 “장성 필암서원” 경관짜임의 독해(讀解).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2), 42-54.

- 마서효, 노재현 (2022) 중국 전통서원의 수체계와 수경관의 구성적 특성. 문화재 55(3), 74-100.
- 문광군 (2018) 조선후기 道山書院의 경제기반과 전답운영. 충청학과 충청문화 24(1), 135-154.
- 박성대, 전성하 (2020) 경주 옥산서원 입지 및 공간구성의 풍수적 특성. 동방문화와 사상 8, 7-32.
- 박성진 (2020)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방향과 활용방안.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29-51
- 박정민 (2020) 무성서원의 역사문화 활성화 방안.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73-91.
- 박정민 (2020)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 255-281
- 박정해 (2014) 소수서원(紹修書院) 입지환경(立地環境)과 풍수(風水). 퇴계학과 유교문화 54, 315-342.
- 박현아, 윤재은 (2019) 병산서원에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 특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2), 107-118.
- 서경원, 한동수 (2020) 음택(陰宅)의 개념으로 분석한 소수서원의 배치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7-48.
- 성종상 (2015) 기념물에서 경관으로, 건축. 59(12), 21-24.
- 성종상 (2020) 세계유산으로서 문화경관의 가치와 의미,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43-96.
- 손병규 (1999)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 16, 149-182.
- 여해린 (2023) 세계유산 사레비교를 통한 전통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 해석-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오준협 (2023) 중국 4대 서원의 풍수지리적 입지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유인호 (2005) 옥산서원의 배치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응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6-32.
- 유인호, 하현정 (2012) 옥산서원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0(2), 145-157.
- 이경근 (2022) “그림 같은 풍경”의 재해석 - 병산서원 차경 설계의 수양론(修養論)적 해석 -. 韓國造景學會誌 50(6), 15-29.
- 이기석 (2021)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공간 분석 연구 -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6(3), 73-87.
- 이병훈 (2013)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127-183.
- 이병훈 (2017)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 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한국서원학보 4, 5-65.
- 이병훈 (2020) 조선시대 경주 옥산서원의 위상 변화. 한국서원학보 11, 125-183.
- 이병훈 (2023) 경주 옥산서원의 설립과 재정 운영. 大東漢文學 75, 43-84.
- 이상해 (2001)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退溪學報 110(1), 509-565.
- 이상호 (2014) 韓國書院의 立地와 景觀에 대한 解釋的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이수환 (2014) 옥산서원과 여주이씨. 한국계보연구 5, 5-56.
- 이승우 (2008) 도산서원의 공간위계와 건축문화. 韓國思想과 文化 41, 359-381.
- 이영훈, 성종상 (2023) 조선시대 서원 조경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41(2), 1-10.
- 이우중 (2018) 경상도의 초기 서원건축: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教育施設 25(6), 13-18.
- 이우진 (2020)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한국서원학보 10, 143-163.
- 이해준 (2020)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와 가치.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9-25.
- 장정태 (2021) 사찰에서 꽃핀 조선조 최초 사학(私學) 소수서원. 韓國思想과 文化 104, 197-219.
- 전성하 (2019) 도산서원의 풍수지리적 특성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9-13.
- 정수환 (2022) 일제강점기 현풍 도동서원의 현실과 대응. 대동한문학, 49-83.
- 정우락 (2012)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악양정과 남계서원. 南冥學研究 36, 231 - 261.
- 조상순 (1998) 필암서원연구(筆巖書院研究) -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문화재 31, 180-204.
- 조상순, 이상해 (1998) 필암서원의 건축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16.
- 조인철 (2019)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의 비교고찰: 건립배경과 자연환경의 풍수적 특성을 중심으로. 道敎文化研究 50, 157-196.
- 진성수 (2019)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원규. 儒學研究 49, 81-111.
- 차장섭 (2015)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정치(政治),사회적(社會的) 역할(役割)과 위상(位相). 역사교육논집 54, 151-187.
- 채혜인, 박소현 (2015).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개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1(2), 253-260.
- 최기훈 (2022) 돈암서원의 입지와 공간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과 진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73, 101-120.
- 최만봉 (2004) 무성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69-77.
- 최순권 (2013)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한국서원학보 2, 185-204.
- 최종희 (2007) 병산서원(屏山書院)의 입지(立地)와 공간구성(空間構成)에 관(關)한 연구(研究). 自然科學論文集 18(1), 77-90.
- 최종희 (2008) 연산(連山) 돈암서원(遯岩書院)의 입지(立地)와 공간구성(空間構成)에 관한 연구. 자연 과학 논문집 19(1), 95 - 111.
- 최종희 (2019) A Study on the Landscap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Dodong Seowon. Unesco World Heritage,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7, 42-48.

- 최종희, 한병권, 문영숙, 김동현 (2013) 경주 옥산서원의 경관보존관리방안. 自然科學論文集 24(1), 83-92.
- 최종희, 문영숙, 김동현 (2013) 세계유산 등재대상 함양 남계서원의 경관보존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2), 128-135.
- 최주희 (2020) 대구·경북 지역의 서원과 활용 방안[국학진흥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55-70.
- 탁영란, 성종상, 최종희, 김순애, 노재현 (2016) 주의집중 피로회복이론의 장으로 본 경주 옥산서원 강학 및 유식 공간의 일원적 공간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3), 50-66.
- 평홍쉬, 강태호 (2018) 경주 옥산구곡(玉山九曲)의 위치비정과 경관해석 연구 - 이정업의 「옥산구곡가」를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3), 26-36.

#### • 단행본

- (사)한국전통조경학회 (2016) 최신 동양조경문화사, 고양 : 대가.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0)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 서울 : 경성문화사.
- 김문준 외 (2018) 돈암서원,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봉곤 외 (2018) 필암서원,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봉렬 (2006)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1, 파주 : 돌베개.
- 김봉렬 (2006)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2, 파주 : 돌베개.
- 김봉렬 (2006)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3 이 땅에 새겨진 정신, 파주 : 돌베개.
- 김희곤 (2019) 정신 위에 지은 공간, 한국의 서원, 고양 : 미술문화.
- 성종상 엮음 (2021) 한국조경의 새로운 지평, 서울 : 한숲.
- 성종상 (2023) 인생정원, 서울 : 스노우폭스.
- 안영배 (2008) 흐름과 더함의 공간 : 안영배의 한국건축 읽기, 서울 : 다른세상.
- 이수환 외 (2018) 옥산서원,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이종호 (2019)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울 : 진한엠앤비.
- 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20)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이코모스한국위원회.
- 정강, 유기 (2019) 중국의 서원, 임상훈 역, 파주 : 보고서.
- 정수환 외 (2019) 도동서원 무성서원,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정수환 외 (2019) 소수서원 병산서원,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정재훈 (2005) 한국 전통 조경, 성남 : 조경.

최재균 (2016) 대한민국 전통조경, 파주 : 예문사.

한형조 외 (2018) 도산서원,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홍광표, 이상윤 (2001) 한국의 전통 조경, 서울 : 동국대학교 출판부.

## • 법령

영국, 『국립공원 및 농촌 접근에 관한 법률』

일본, 『고대 신사와 사찰 보호법』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법률』

한국,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한국, 경관법 (법률 제15460호, 2019. 3. 14. 시행)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96호, 2024. 11. 1. 시행)

한국,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문화재청훈령 제452호, 2018. 3. 15. 제정)

한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798호, 2024. 11. 1. 시행)

## • 고문헌

『관원선생문집(灌園先生文集)』

『남옹유고(楠翁遺稿)』

『노사집(蘆沙集)』

『논어(論語)』

『단곡선생문집(丹谷先生文集)』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석담집(石潭集)』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신재집(新齋集)』

『양성당기(養性堂記)』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

『일두집(一蠹集)』

『죽계지(竹溪誌)』

『지촌집(芝村集)』

『필암서원확연루중건상량문(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

『회재집(晦齋集)』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

『흥주지(興州誌)』

- 기사 및 포털사이트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웹페이지 <https://k-seowon.or.kr/>

World Heritage List <https://whc.unesco.org/en/list/>

두산백과 웹페이지 <https://www.doopedia.co.k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페이지 <https://unesco.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인 고현동 향약’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016>

백소애, ‘안동 청보리밭 축제’... 초록빛 물결에 반하다, 경북매일, 2023.06.06.

송의호, 하버드대보다 93년 앞선 ‘사립대학’ 소수서원, 중앙일보, 2020.12.10.

이숙중, 가을 곡식처럼 학문이 익어 가던 곳, 돈암서원, 아이뉴스24, 2022.09.26.

최유진, 50년 만에 재현되는 안동 섯다리, 한번 건너볼까요?, 오마이뉴스, 2019.05.13.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경관 자료조사연구 결과보고서

---

발 행 일 2023년 12월 22일

발 행 기 관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수 행 기 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unesco**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World Heritage since 2019

후원 |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달성군, 논산시, 정읍시, 장성군,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함양군

제작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